

2006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 2006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64  
전 화 : 02)535-4142  
홈페이지 : [www.ml.go.kr](http://www.ml.go.kr)



**(사)문화사회연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 2동 120-10 백광빌딩 3층  
전 화 : 02)745-1603  
전자우편 : [cultures21@naver.com](mailto:cultures21@naver.com)  
홈페이지 : [www.kccs.or.kr](http://www.kccs.or.kr)



2007. 12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2006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2007. 12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 2006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초판 제1쇄 인쇄 - 2007. 12

초판 제1쇄 발행 - 2007. 12

펴 낸 이 -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수행기관 - (사)문화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동연

공동연구원 : 김성일, 권경우, 오나라

보조연구원 : 김유리, 이대희, 맹기돈

보 조 원 : 장영란, 손상민, 장주희, 김성윤, 양기민

@국립중앙도서관 2007

ISBN 978-89-7383-230-9 93020

이 보고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사) 문화사회연구소가 수행한 연구보고서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작은도서관 이모저모



솔을꿈나무작은도서관



솔을꿈나무작은도서관



솔을꿈나무작은도서관



가재울작은도서관

별자리작은도서관





# :: 작은도서관 이모저모



사내면작은도서관



솔올꿈나무작은도서관



사내면작은도서관



웅달샘작은도서관



웅달샘작은도서관





# :: 작은도서관 이모저모



웅달샘작은도서관



구암작은도서관

구암작은도서관



구암작은도서관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일죽작은도서관



# :: 작은도서관 이모저모



구암작은도서관



구암작은도서관



구암작은도서관



구암작은도서관



봉명미니작은도서관



희망남포작은도서관





# :: 작은도서관 이모저모



희망남포작은도서관



희망남포이동도서관



누리봄문고



누리봄문고



누리봄문고

# :: 작은도서관 이모저모



웅남샘작은도서관



반딧불작은도서관



꿈나무작은도서관



피터팬작은도서관



공산작은도서관



송산개미작은도서관





# :: 작은도서관 이모저모



공산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지혜의 등대



굼나무정보도서관

# :: 작은도서관 이모저모



고대웃음꽃작은도서관



고대웃음꽃작은도서관



순성반딧불이작은도서관



순성반딧불이작은도서관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 목 차

### 1장 서론

|                |    |
|----------------|----|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 19 |
| 제 2절 연구과제      | 22 |
| 제 3절 연구방법 및 일정 | 25 |

### 2장 <작은도서관> 개념 및 모델구성

|                                 |    |
|---------------------------------|----|
| 제 1절 <작은도서관>의 개념 정의             | 31 |
| 제 2절 <작은도서관>의 기대효과              | 37 |
| 제 3절 <작은도서관>과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과의 비교 | 41 |
| 제 4절 <작은도서관> 유형별 모델 구축          | 47 |
| 제 5절 <작은도서관> 특성화 방안             | 51 |

### 3장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                        |    |
|------------------------|----|
| 제 1절 문화지표의 개념과 특징      | 57 |
| 제 2절 문화지표의 개발과정        | 60 |
| 제 3절 <작은도서관> 평가지표체계 개발 | 66 |
| 제 4절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지표 개발 | 69 |
| 제 5절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 개발 | 73 |

### 4장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설문조사

|                                  |     |
|----------------------------------|-----|
| 제 1절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81  |
| 제 2절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97  |
| 제 3절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107 |
| 제 4절 <작은도서관> 이용자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113 |
| 제 5절 <작은도서관> 재정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122 |
| 제 6절 <작은도서관> 네트워킹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129 |

## 5장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                              |     |
|------------------------------|-----|
| 제 1절 <작은도서관> 시설부문의 활성화 방안    | 137 |
| 제 2절 <작은도서관> 운영인력부문의 활성화 방안  | 140 |
| 제 3절 <작은도서관> 프로그램부문의 활성화 방안  | 144 |
| 제 4절 <작은도서관> 이용자관리부문의 활성화 방안 | 147 |
| 제 5절 <작은도서관> 재정운용부문의 활성화 방안  | 150 |
| 제 6절 <작은도서관> 네트워킹부문의 활성화 방안  | 152 |

## 6장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평가

|                              |     |
|------------------------------|-----|
| 제 1절 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 과정 평가     | 160 |
| 제 2절 사업영역별 성과목표 평가           | 165 |
| 제 3절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실제적 효과 평가 | 169 |

## 7장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지정방안

|                               |     |
|-------------------------------|-----|
| 제 1절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사업 개요    | 175 |
| 제 2절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모델 개발    | 177 |
| 제 3절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정 방안       | 187 |
| 제 4절 시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지정을 위한 제언 | 192 |

## 8장 결론

|                            |     |
|----------------------------|-----|
| 제 1절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 선정     | 195 |
| 제 2절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3 |
| 제 3절 후속 연구과제               | 206 |

|      |     |
|------|-----|
| 참고문헌 | 211 |
|------|-----|

|        |     |
|--------|-----|
| 부록-설문지 | 215 |
|--------|-----|

|                               |     |
|-------------------------------|-----|
| 부록-06년 <작은도서관> 지원현황 및 운영주체 정리 | 232 |
|-------------------------------|-----|

|                   |     |
|-------------------|-----|
| 부록-현장방문 인터뷰 질문 내용 | 234 |
|-------------------|-----|



## 표 목차

|                                          |     |
|------------------------------------------|-----|
| 도표 1. 06년 조성평가 연구의 역할체계                  | 25  |
| 도표 2. 지역문화의 특징                           | 42  |
| 도표 3.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 비교                    | 46  |
| 도표 4. 운영방식과 지역특성에 따른 <작은도서관> 유형          | 50  |
| 도표 5. 「문화지표체계개선」에서의 문화지표와 형식             | 62  |
| 도표 6. 「서울시 문화지표설정 및 측정연구」에서의<br>문화지표와 형식 | 63  |
| 도표 7.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에서의 문화지표와 형식           | 64  |
| 도표 8. 「성남시 문화지표조사연구」에서의 문화지표와 형식         | 65  |
| 도표 9. 「문화지표체계개선」에서의 문화지표체계               | 66  |
| 도표 10.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지표의 구성과 원리            | 69  |
| 도표 11.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지표                    | 72  |
| 도표 12.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의 구성과 원리            | 73  |
| 도표 13.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                    | 77  |
| 도표 14. 운영주체/지역별 분류                       | 161 |
| 도표 15. 운영주체별 지원대상 평가                     | 163 |
| 도표 16. 운영주체/지원유형별 분류                     | 165 |
| 도표 17. 사업 영역별 성과 평가                      | 168 |
| 도표 18.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지자체                | 195 |
| 도표 19.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운영인력               | 197 |
| 도표 20.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이용자                | 198 |
| 도표 21.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프로그램               | 199 |
| 도표 22.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시설                 | 201 |
| 도표 23. 후속 연구과제의 제안                       | 206 |

# 제1장 <작은도서관>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제 2절 연구과제

제 3절 연구방법 및 일정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문화 환경의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영화제, 연극제, 가요제, 박람회 등 지역의 특성화를 살린 축제를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지역문화의 특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복지의 증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이 1990년대 중반부터 건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업무통폐합과 관련하여 읍·면·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한 생활권 단위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이 급속히 증설되었다.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통폐합에 따른 유휴 공간의 활용을 목적으로 생겨난 대표적 생활권 단위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이다. <문화의집>이 문화관광부를 통해 건립되고 관리되고 있다면,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건립되고 관리되고 있다.

<문화의집>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공간<sup>1)</sup>이다. 지역민들은 <문화의집>에 설치된 인터넷 및 음악·비디오·영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자의 선호와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조직하여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지식 및 기능을 습득함과 동시에 주민 스스로 문화 생산자가 되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 결국 <문화의집>은 지역민들의 정서적, 심미적, 창의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체적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학습하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문화의집>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때, 지역민의 감수성 및 창의성이 신장되고 문화복지가 증진되어 궁극적으로 문화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2)</sup>

1) 복합문화공간이란 하나의 공간 안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든 곳이다. 가령 체육관이 체육행사 외에 콘서트나 영화상영관으로 쓰일 수 있다면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한 용도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가지는 문화적 효과가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공간구성, 인력구성, 재정확보가 새롭게 배치된 전략적 문화공간이다.

2) 임학순 외(1998), 『일선행정기관의 문화복지센터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46.

<주민자치센터> 역시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와 지역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일정한 지역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이 주인 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만든 지역민들의 자치활동 장소이다.<sup>3)</sup> 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문화여가, 시민교육, 주민편의, 지역사회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의집>과 다른 점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지역민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민의 자발적 결사체라는 점에서, <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소모임이나 자원봉사자와는 상이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들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문화 인프라들이 특색 있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집행되고 있지만,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실제적으로 강화하는 데 사용되지 못할뿐더러 그 활용도 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역민들이 이들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는 당초의 기대효과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현재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인력의 전문성 미흡,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운영 부족,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향수 콘텐츠 개발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이 안고 있는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새로운 형식의 문화지표모델들을 만들고 그 지표에 근거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운영평가지표가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객관적인 지표조사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운영평가지표는 단순히 가치평가가 포함되지 않는 단순 통계적 수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교연구, 분석과 평가, 발전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반해야 한다. 아무리 시설이 우수하고 예산의 투자가 많더라도 지역민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는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가 야기한 문제점들을

3) 박희선(2000), “주민자치센터의 위상과 기능”, 『도시와 빈곤』 45호, 한국도시연구소, pp.5-9.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역시 생활권 단위의 공공문화기반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작은도서관>이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와 역할상의 많은 부분이 겹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능은 서로가 상이하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설보다 구체적인 운영형식을 취하고 있다.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가 표방하고 있는 문화복지의 증진과 주민자치의 실현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작은도서관>은 확실한 자기 역할과 위상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이 갖는 특이성을 규명하고,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함과 동시에 2006년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국의 58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로부터 얻은 결과를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작은도서관> 시범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기준과 평가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과제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표개발과 그를 통한 현지조사 및 시범지구 조성모델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                          |
|--------------------------------|--------------------------|
| <b>&lt;작은도서관&gt;<br/>개념 정립</b> |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   |
|                                | <작은도서관>만의 역할과 기능의 특성화    |
|                                |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의 차등화와 다양화 |

<작은도서관>은 개인문고 수준으로부터 준(準)공공도서관 수준에 이르기까지 시설과 운영에 있어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로 분류되면서 야기된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와의 역할중복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부터 <작은도서관>의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을 검토함과 동시에 전국 58개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면서 <작은도서관>만이 가질 수 있는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자 한다. 이후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만의 역할과 기능의 특성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작은도서관> 정책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이론적 지침이 될 것이다.

|                                    |                         |
|------------------------------------|-------------------------|
| <b>&lt;작은도서관&gt;<br/>유형별 모델 구축</b> | <작은도서관>의 전체 지형도 그리기 그리기 |
|                                    |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분류         |
|                                    |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특성화 |

<작은도서관>의 전체 지형도는 매우 입체적이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총체적으로 조망한다는 것은 저마다의 높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특이성을 밝히는 작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분류를 통해 입체적인 지형도를 그리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된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작은도서관>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                   |
|----------------------------|-------------------|
| <b>〈작은도서관〉<br/>평가지표 개발</b>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체계 개발 |
|                            |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지표 개발 |
|                            |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 개발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체계는 운영의 적실성, 공공성의 확보, 정체성의 확립, 운영의 효과성 속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의 원칙들은 〈작은도서관〉의 존재 이유와 정책의 지속성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문화지표연구를 검토함과 동시에 보다 실용성 있는 평가지표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개발하고자 하는 평가지표는 시설평가와 운영평가로 나뉜다.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지표는 응답자 특성, 기초 질문, 입주환경, 주변 문화 환경, 지역특성, 장서, 공간구성, 이용자 규모라는 8개의 하위관심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는 운영인력, 프로그램, 이용자관리, 재정운용, 네트워킹이라는 5개의 하위관심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모델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                                 |
|------------------------------|---------------------------------|
| <b>〈작은도서관〉<br/>조성평가 설문조사</b> | 2006년에 지원한 58개 〈작은도서관〉 현지조사     |
|                              | 현지조사에 따른 58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분석    |
|                              | 현지조사에 따른 58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방안 제시 |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일은 〈작은도서관〉 정책의 정당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본격적 연구가 부재한 현 시점에서, 전국의 58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는 본 연구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다. 본 연구는 현지조사를 통한 조사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작은도서관〉관련 정책, 사업, 운영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데 있어 실증적 기초 자료로 유효하게 쓰일 것이다.

|                              |                      |
|------------------------------|----------------------|
| <b>〈작은도서관〉<br/>조성지원사업 평가</b> | 지원 대상의 선정과 조성지원과정 평가 |
|                              | 지원 수준 및 범위 평가        |
|                              | 사업영역별 성과목표 평가        |

〈작은도서관〉은 중앙정부(문화관광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원을 통해 조성되었다. 지원주체별 지원금 규모와 지원내역은 시설건립에서 도서구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연구는 2006년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국의 58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원평가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상선정, 지원방법, 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성지원사업을 다각도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추후 지원사업의 원칙과 대상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                     |
|---------------------------------|---------------------|
| <b>〈작은도서관〉<br/>시범지구 조성모델 개발</b> | 문화특성화지구 설정 현황 및 문제점 |
|                                 | 시범지구 지정 기준 및 범위 설정  |
|                                 |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때 지원대상의 선정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개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이외에, 시범지구의 선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특성화 모델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시범지구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범위를 설정하고 실질적 평가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의 다양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 제3절 연구방법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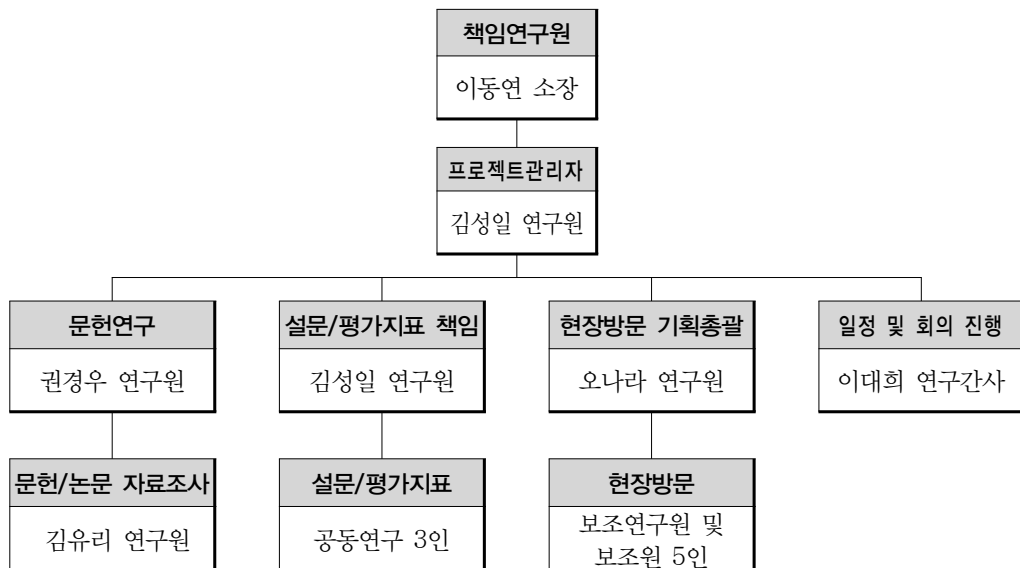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연구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문헌연구법을 통해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문화와 지역문화운동을 다룬 문헌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취지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정책과 문화복지를 다룬 문헌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서법을 통해 조성평가를 위한 지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합당한 관심분야와 세부관심부문별 질문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과 팩스 그리고 현지방문을 통해 필요한 응답을 받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면접법(인터뷰)을 통해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 내용을 얻고자 한다. 이때 인터뷰 문안은 질문서와 관련된 심층 질문을 포함하여 질문서에는 없으나 유의미한 정보가 될 만한 사항들을 직접 묻고 듣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 과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역할체계를 구성해 실질적 연구 작업에 나서고자 한다.

〈도표 1. 06년 조성평가 연구의 역할체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과정       | 일시             | 내용                             | 담당                       | 참여자                           | 비고                                      |
|----------|----------------|--------------------------------|--------------------------|-------------------------------|-----------------------------------------|
| 문헌 연구    | 8월 2일          | 초동모임<br>1차 세미나                 | 김성일<br>권경우<br>김유리        | 보조연구원 이상<br>전원참여              | <작은도서관><br>개념 및 정의와<br>의의               |
|          | 8월 9일          | 부천 <작은도서관><br>방문 사전조사          | 김성일<br>권경우<br>김유리        | 보조원 이상<br>전원참여                |                                         |
|          | 8월 14일         | 2차 세미나                         | 김성일<br>권경우<br>김유리        | 보조연구원 이상<br>전원참여              | 내용 공유 및<br>역할분담 논의                      |
| 설문<br>모임 | 8월 29일         | 1차 모임<br>설문초안 논의               | 김성일<br>권경우<br>오나라<br>김유리 | 보조연구원<br>이상 전원참여              | 설문과 현장방문<br>인터뷰                         |
|          | 9월 4일          | 2차 모임<br>설문완료 검토               | 김성일<br>권경우<br>오나라<br>김유리 | 설문확정/검토<br>5일 도서관<br>진흥팀 설문평가 |                                         |
|          | 9월 11일         | 3차 설문 워크숍<br>설문 수정<br>인터뷰항목 논의 | 김성일<br>권경우<br>오나라<br>김유리 | 보조원 이상<br>전원참여                |                                         |
| 집필<br>논의 | 9월 5일          | 역할분담 및 목차확인<br>연구자료 수집 및 공유    | 이동연<br>김성일<br>권경우<br>오나라 | 보조연구원 이상<br>전원참여              | 집필내용과<br>일정확인<br>연구내용의<br>차별화를 염두에<br>둠 |
|          | 9월 19일         | 문헌 및 연구자료 공유<br>인터뷰 확인사항 정리    | 이동연<br>김성일<br>권경우<br>오나라 | 보조원이상<br>전원참여                 |                                         |
|          | 10월19일         | 연구일정 및 현장 설문<br>인터뷰 확인사항 공유    | 이동연<br>김성일<br>권경우<br>오나라 | 보조연구원 이상<br>전원참여              |                                         |
| 설문<br>모임 | 9월 13일<br>~22일 | 설문발송 및 회수                      | 이대희                      | 29일까지<br>미회수분 확인              | 진흥팀 협조                                  |

| 과정                    | 일시                         | 내용                                            | 담당                 | 참여자                           | 비고                                        |
|-----------------------|----------------------------|-----------------------------------------------|--------------------|-------------------------------|-------------------------------------------|
|                       | 10월 1일<br>~                | 현장방문                                          | 맹기돈 및<br>보조원<br>5인 | 연구원 1인<br>(일정 확인 후)<br>보조원 1인 | 58개소 경로에<br>따라 39개 군등<br>분배               |
|                       | 10월21일<br>10월24일<br>10월31일 | 1차 설문 마감<br>설문최종 마감<br>인터뷰정리 제출 및 사<br>진자료 선별 | 이대희<br>맹기돈         | 보조원 5인                        | 설문자료<br>보고문플랫폼<br>인터뷰 확인<br>문안 숙지 후<br>진행 |
|                       | 11월 4일                     | 설문취합 완료<br>사진자료 분류<br>인터뷰 사항 정리               | 이대희<br>맹기돈         | 공동연구원<br>이상 전원참여              | 현장방문 종결                                   |
| 중간<br>보고              | 10월29일                     | 연구일정 및 방향성 검토<br>진행팀 요구사항 정리                  | 이동연                | 김성일, 권경우<br>오나라, 이대희          |                                           |
| 설문<br>코딩              | 11월 5일                     | 설문 분류 및 분석                                    | 김성일<br>맹기돈         | 해당 역할분담                       |                                           |
|                       | 11월 8일                     | 설문분석정리 완료                                     | 김성일<br>맹기돈         | 해당 역할분담                       |                                           |
| 인<br>터<br>뷰           | 11월 9일                     | 인터뷰 정리안 취합                                    | 오나라<br>이대희         | 해당지역보조원                       |                                           |
|                       | 11월13일                     | 인터뷰 분석 완료                                     | 오나라<br>이대희         | 해당지역보조원                       |                                           |
| 보<br>고<br>서<br>집<br>필 | 11월14일                     | 보고서 1, 2, 3장 초안                               | 집필진                | 집필진                           |                                           |
|                       | 11월20일                     | 보고서 4,5,6,7장 초안                               | 집필진                | 집필진                           |                                           |
|                       | 11월21일                     | 보고서 1,2,3장 완료                                 | 집필진                | 집필진                           |                                           |
| 최종<br>보고<br>회         | 11월23일                     | 보고서 4,5,6,7장 완료<br>보고서 완료 (1-7장)              | 집필진<br>(1차완료)      | 구성 및 편집<br>이대희                |                                           |
| 최종<br>완료              | 11월27일                     | 보고서완료 제출                                      | 집필진<br>수정보완<br>완료  |                               |                                           |

## 제2장 <작은도서관> 개념 및 모델 구성

제 1절 <작은도서관>의 개념 정의

제 2절 <작은도서관>의 기대효과

제 3절 <작은도서관>과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과의 비교

제 4절 <작은도서관> 유형별 모델 구축

제 5절 <작은도서관> 특성화 방안





## 제1절 <작은도서관>의 개념 정의

<작은도서관>의 개념 정의는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조성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시도되었다. 풀뿌리시민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운동’을 정부의 정책 속에 담아내기 위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개념 확립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종래의 도서관이나 문고에 대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냐를 판가름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특정 기준에 따라 정책적으로 조성된 시설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도서관만으로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권 내 소규모 도서관을 설립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해온 시민운동 차원의 사안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시설 기준이나 운영 체제 없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설립,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는 민간영역의 <작은도서관>운동에 대한 이해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작은도서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기능과 지향성을 포괄하는 최소한의 개념 정립만이 가능하다.

<작은도서관>운동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의 인구 밀집 지역과 저소득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2000년대 들어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서비스 역량이 일반 시민의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생활권 내 도서관을 조성해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성공적인 풀뿌리시민운동의 사례이다.

지식기반경제와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자기 학습에 기초한 평생교육 시대의 도래, 주40시간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 실시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564개소에 불과하여 공공도서관 한 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8만6천명대로서 OECD 주요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있는 공공도서관도 영유아와 그 양육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이 이용하기에 문턱이 높고,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에도 거리가 멀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서관 서비스에 갈증을 느껴온 시민과 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민영 <작은도서관>들은 생활권 내에 조성되어 접근성이 탁월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작은도서관>은 ‘걸어서 10분 거리,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지향한다. 또한 영유아를 동반한 주부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민영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도서관이기에 주민의 삶에 밀착되어 있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일상적 필요성과 관심사항이 도서관 운영에 반영되어 <작은도서관>은 독서공간뿐 아니라 공부방, 탁아소, 문화공간, 주민모임방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도서관이다. 행정 구역별로 조성되기보다는 일정 지역 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 공동체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를 묶어 주고 공동체문화를 키우는 데 기여한다. 또한 <작은도서관>운동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성숙한 도서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종래의 공공도서관은 생활권에서 동떨어진 곳에 권위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도서관의 내부 공간 구획도 서가와 열람실을 분리시켜 책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가로막는 관리 위주의 도서 보관실이자 취업과 입시를 위한 수험생들의 독서실로 왜곡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민영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조성된 동네도서관이자 마을도서관으로서 계층과 연령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형 운영 방침을 그 특징으로 한다. 젖먹이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이용자들이 책을 매개로 한데 어울리며 사회적 만남을 갖는다.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사회적 소통의 장소인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고유의 커뮤니티 기능을 살려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사라져가는 도시 ‘동네’ 공동체를 되살리고 해체되고 있는 농촌 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구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문화 조성 기능은 <작은도서관>운동이 공공성의 복원과 유지에 기여하는 시민운동의 일환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에 기반한 참여와 자치의 거점이다. 지역주민들은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모임, 각종 사회봉사 및 문화예술 소모임,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 도서관 운영 등에 참여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편안하게 드나들며 자연스럽게 육아, 교육, 지역문제, 사회문제와 같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공부하는 곳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은 주부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평생 학습, 자기계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작은도서관>운동이

지역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아내는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농촌, 폐광 지역, 도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매개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조손가정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마을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 고장에 대한 긍지와 노인에 대한 공경,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키우게 된다. 도시인구밀집지역의 <작은도서관>은 동네 엄마들이 고민을 나누고 공동으로 아이들을 보육하며 교육, 먹거리, 건강, 환경 등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한다. 민주주의 문화의 성숙을 시민의 자치 역량 강화로 정의할 수 있다면, <작은도서관>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참여와 자치의 산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작은도서관>은 새롭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영역의 창의성을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자, 자원활동가, 이용자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이렇게 개발된 풍요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지역 또는 전국 단위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작은도서관>과 공유될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민영 <작은도서관>은 고질적으로 재정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작은도서관>은 그 규모는 작지만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공동체문화를 살리는 등 사회적 공공성과 기여도가 높는데 반해 공적 지원에서는 늘 소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민영 <작은도서관>들은 주로 전월세 임대 공간에 조성되어 소액의 회비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공간 이전이 잦은 편이다. 거의 모든 민영 <작은도서관>이 공통으로 관리비, 인건비, 자료구입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서관을 구성하는 3요소를 자료, 공간, 사람이라고 할 때, <작은도서관>의 핵심은 사람에 있다. 민영 <작은도서관>들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하여 거실, 컨테이너, 시민단체사무실의 더부살이 공간, 전월세 상가건물, 교회예배실, 무상임대공간 등에서 문을 열었다. 언제 옮겨야 할지 모르는 공간에서, 시설과 장서가 충분치 않아도, 열의 있고 헌신적인 운영자들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운동은 가능했다.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꾸려가는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전문 사서를 고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운영자들 스스로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집단 연구를 통해 배우며 책과 도서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왔다. 많은 ‘작은 어린이도서관’ 관장들이 어떤 사서 못지않게 아동문학과 그림책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서관운영에 대해서도 ‘도서관학교’ 등의 연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서를 고용하는 도서관들이 있지만, 비교적 소수에 그치며 고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지급한다.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독서공간, 공부방, 주민사랑방, 복합문화공간, 탁아소의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기에 도서관 운영자도 단순한 사서업무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다. 관장과 사서를 비롯한 도서관 운영자들은 무보수 또는 최소한의 보수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시민운동의 활동가들로 이해할 수 있다.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작은도서관>운동에 지자체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민영<작은도서관>과 함께 공립 <작은도서관>까지 그 외연을 확장한다. 창원시, 부천시, 순천시는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지자체가 사서 인건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등의 재정 일체를 부담하고 운영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민관협력형 <작은도서관> 정책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천시와 순천시는 <작은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작은도서관>이 중앙정부의 정책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제 <작은도서관>운동은 시민의 요구와 참여가 국가 정책 수립을 이끌어 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의 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2004년 문화관광부가 ‘문화비전 21(창의한국)’에서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1만개 <작은도서관> 운동’을 제시한 이후로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복권기금)의 실시로 2004년 <작은도서관> 25개관이 신규 설립되었고, 2006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설된 ‘<작은도서관>진흥팀’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2006년 <작은도서관> 58개소에 대한 조성 및 지원 사업을 펼쳤으며, 2007년에는 72개소에 대한 조성 및 지원이 진행 중이다. 올 초 국립중앙도서관은 장기 지속 발전과제로 2023년까지 읍, 면, 동 당 1개소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2007년 11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현재 조성 추진 중인 마을 단위 <작은도서관> 정책은 향후 병영도서관, 병원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비영리 독서 시설'까지 포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운동에 참여하는 주체와 초점에 따라 계속해서 의미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현재까지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으로 신설된 <작은도서관>들은 주로 공공시설의 일부를 개조한 공간에 기본적인 도서 자료와 가구, 장비, 각종 물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 조성비로 복권기금을 지원받았다. 지자체는 공간을 제공하고 조성비를 보태며 <작은도서관> 신설 이후 운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신설 <작은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아오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전담 인력의 배치인데 이러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역량과 의지에 맡겨져 있다. 지자체는 신설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서 등 상근 인력 배치와 도서구입비, 시설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소요될 지속적인 예산 확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체제 마련,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전담 부서 설치, 도서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풀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지역 지자체별로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운동의 주체가 시민사회에서 지방 정부 및 중앙 정부로 확대,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이란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안에 소규모로 조성되어 주민 밀착형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뜻한다. 주로 마을 단위에 설치되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소재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접근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일정 지역 안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 공동체를 배경으로 설치 및 운영된다. 도서 열람 및 대출 기능을 포함한, 도서관을 매개로 한 각종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지역 사회 공동의 탁아, 보육, 교육, 문화예술활동, 소모임, 주민회합을 지원하는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작은도서관>은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민영 <작은도서관>, 민관협력형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의 <작은도서관>운동을 국가 정책으로 계승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기대되는 바는, 민영 <작은도서관>의 순기능이 정책과 제도에 온전히 이어지고 전체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진흥 사업은 시민의 열망과 자구적인 노력에 정부가 호응하고,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여러 시책들 중에 시민이 만족하는 하나의 사안으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활성화된

민영 <작은도서관>들의 주민 참여, 창조적인 운영, 지역공동체문화 형성 등이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립 <작은도서관>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상근 인력 배치, 운영 교육 지원, 이용률을 높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체제 마련,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경상 운영 예산 편성, 지자체 내 <작은도서관> 전담부서 설치 및 조례 제정 등을 이끌어낼 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민영<작은도서관>의 약점인 불안정한 공간 보유 실태, 열악한 시설, 전문적인 운영 교육에 대한 갈증,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소요 경비를 비롯한 자료구입비, 관리비, 인건비 부족 등의 제반 사안에 대한 해법을 민관이 공동으로 강구하여,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유연하고 포용력있는 다각도의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표어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 ‘동네 동네 <작은도서관>’
- ‘걸어서 10분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
- ‘주민사랑방 <작은도서관>’
- ‘지역공동체를 일구는 <작은도서관>’



## 제2절 <작은도서관>의 기대효과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현실적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한국의 복지정책이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하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주민들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주요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청은 우리 사회의 공적 인프라 증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증가는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로써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수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재정적 부담이 크고, 부지확보 및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공공도서관 건립의 어려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작은도서관>의 확대가 가져올 우리사회의 긍정적 효과를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작은도서관>은 대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불가능한 농어촌 및 저소득층 지역에 도서관 문화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류가 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아주 오래전부터 도서관은 존재하였다고 하지만 도서관의 진정한 가치는 정보화시대라고 불리는 현대에 와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평등, 형평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재로서 정보화 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 중에 하나인 도서관은 정보의 수집, 가공, 처리,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서관은 걸어서 10~20분이내의 거리에 있거나,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지역 정보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도서관은 적어도 제공 가능한 정보에 관한 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접근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 및 저소득층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서관이용에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각종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물적·인적 자원에 제약을 받는다. 이에 반해 <작은도서관>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인적·물적 재원을 활용하여 문화적 혜택이 절실한 지역에 독서공



간을 조성하여 독서문화에 필요한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자료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확산은 정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형편이 넉넉하고 쉽게 책을 구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대도시 사람들은 책을 사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책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 정보의 불평등은 지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된다. 즉 원하는 책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에게도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은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실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금까지 설립된 민영 <작은도서관>을 살펴보면 개관준비부터 개관 후 이용 및 운영, 프로그램 선정, 공간 구성 등에 이르기 까지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즉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작은도서관>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만 있다면 도서관 자체의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들 간의 인간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공동체적인 커뮤니티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매개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작은도서관>의 기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형 공공도서관은 각각의 지역사회의 특징적이고 향토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비해서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준비하여 제공하는데 용이하다. 지역사회의 구체적 문제에 관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은 물론이고 이와 연관된 활동들을 마련하는 일 또한 <작은도서관>이 할 수 있다. 즉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혹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살아가는데 유익한 많은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에 맞는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취업, 직업, 교육, 주택, 노인문제, 건강, 복지, 정치, 교통, 교양생활, 여가활동, 소비자보호, 법률, 경제문제 등의 지역과 밀접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기반 시설이 될 수 있다. 평생교육의 협의의 개념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교육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의미한다. 즉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

며,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동안의 교육을 통칭하는 것이다(이애란, 2006. p276). 오늘날 평생교육이 국가주도로 도서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찾게 되면 공공시설인 도서관의 이용촉진과 그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은 아직까지 뚜렷한 교육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이용할 자료와 학습 및 문화공간이 함께 지원되는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의 기반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함께 호흡 가능한 교육여건을 마련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세 번째로 <작은도서관>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농어촌의 주민들은 대도시의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향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레크레이션 등의 문화활동을 주선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소비생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산간벽지의 <작은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은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중요하다. 지역적 여건이 좋지 못한 주민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곳에서, 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욕망을 풀어줄 변변한 공간 하나 없는 문화적 사각지대인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문화적 쉼터의 공간으로 이용될 것이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참여는 도서관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도서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역사는 바로 지식·정보의 대중적 보급과 확산, 그리고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역사이다(이연옥, 2002. p262). 그러나 현재 도서관운동의 정책적 상황은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인정이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도서관이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 목적에 있어 도서관측과 행정부문, 사회 일반의 인식이 같아야 한다. 지역단위 도서관서비스의 발전과 향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그 지역 도서관 관계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도서관>은 자발성을 근거로 한,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으로 도서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작은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교육비의 부담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국내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에는 학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다. 학교교육이 끝나면 갈 곳을 찾는 학생들과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미취학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형의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설립이 용이한 <작은도서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농어촌지역의 <작은도서관> 중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독서지도프로그램(독서토론, 이야기교실, 책낭독 등)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독서에 대한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준다. 어린이의 성장에 있어서 책임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이들의 책임기 습관, 도서관 이용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독서지도 프로그램은 어려서부터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 스스로 즐겨 독서를 하게 만들며,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도서관이용을 생활화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독서의 본질은 자율성에 있다. “독서는 강제되어서는 안 되는 자발적 행위여야 하며, 언제, 어떻게, 무슨 책을 읽는지 읽는 이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무엇보다 독서는 자기 스스로 즐거운 경험에 의해 지속적인 독자로 성장하게 하는 경험 학습이며, 독서한 이후에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평가하여서도 안된다.”(김수경, 2006. p251) <작은도서관>은 독서지도프로그램을 통하여 책임기에 무관심하던 아이들에게 책임기의 흥미를 유발하고, 책임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보다 더 다양한 책과의 만남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평소 책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 농어촌지역 가정 등에 읽을 책을 전달하여 책 읽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청소년들이 책과 친숙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제3절 <작은도서관>과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과의 비교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정체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과의 비교이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역시 생활권 단위에서 정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생활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지역’에 기초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정체성 확립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을 기반으로 확고히 뿌리내릴 때만이 존재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은 <작은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 역시 생활권 단위의 문화생활과 생활자치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세 공간이 상호 겹쳐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역할상의 중첩현상이다. 이는 곧 예산과 시설의 중복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정체성은 지역에 대한 규명과 함께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굳건히 정립될 수 있다.

지역이라는 공간은 시장 메커니즘과의 일정한 관계 속에서 기본적 성격이 설정되지만, 국가의 국토개발과 지역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보다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과정 속에서 공간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계획을 둘러싼 자본축적의 논리와 시민사회의 논리가 갈등한다. 특히 지역이라는 공간은 지역민들에게 있어 생산 활동의 터전이며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보금자리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할 외적 조건이기에 더더욱 갈등의 장이 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야기된 쟁점 역시 이러한 정황 속에서 생겨났다. 정부는 수도권외의 비대화를 해소하고 분권·분산정책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이양, 자치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의 근저에는 서울을 비롯한 일명 수도권이라 불리는 중심부와 지방이라고 하는 주변부 사이에서 나타난 심각한 지역격차의 문제가 깔려있다.

이제 ‘서울/지방’이라고 지칭되는 위계적이고 수탈적인 지역구분은 사라져야 한다. 엄밀히 말한다면, 서울 역시 세계 대도시라는 맥락 속에서 하나의 변방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서울은 이들 세계 대도시의 성장에 필요한 자원흐름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또 하나의 수탈지역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역시 지역이다. 즉, ‘서울/지방’이라



는 위계적 가치서열 속에서 최상층에 있는 독과점적 ‘특별’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자원의 생산과 유통 및 시민사회의 삶의 질 추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역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균등발전은 단순히 서울로 집중된 사회경제적 자원을 시혜적 차원에서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혁신할 능력의 배양을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분산의 대상과 내용,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 지역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동원 및 개발, 지역의 특성화 전략수립 및 실현, 지자체의 행정 쇄신,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 등의 사안에 대한 다각적 모색이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속에서 지역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초로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때 지역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역문화는 단지 특정 지역의 문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이란 하천과 구릉 등 자연적 경계가 아닌 다양한 사회경제적 혹은 문화적 관계의 구성을 통해 생겨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방문화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역문화는 단순히 문화의 하위범주가 아니라 문화의 본질, 즉 문화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대상이다. 둘째, 지역문화는 사회갈등과 통합의 기능을 담당한다. 동일한 세계관과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못한 지역보다 사회적 결속력이 강하다. 하지만 그러한 기능이 사회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문화가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태도를 보다 완강하게 가질 경우, 다른 문화를 배타적으로 대할 수 있다. 셋째 지역문화는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심급 혹은 부문들과의 중층결정을 통해 구성된 실천적 공간이다. 즉, 특정 지역에 비슷한 경제적 수준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태적 공간이 아니라, 지역 내 혹은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심급과 주체들이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공모하며 때로는 투쟁하는 역동적 공간인 것이다.

〈도표 2. 지역문화의 특징〉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회의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1996년에는 문화정책의 핵심가치로 문화복지가 부각되면서 생활권 단위의 문화생활을 위한 환경이 광범위하게 조성되었다. 이로부터 <문화의집>을 필두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작은도서관>이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들 시설들은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한다. 시민과 지역민들의 정서적, 심미적, 창의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체적으로 생활자치를 확대해가는 이러한 활동은 문화복지의 증진과 함께 문화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 공동체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의집>은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및 통폐합 방안<sup>4)</sup>과 관련하여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sup>5)</sup>.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안은 지방행정체계의 축소조정, 공무원 인력감축 등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추가하여 지역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문화의집>은 읍·면·동 단위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문화민주주의 및 문화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실현을 기치로 설립되었다. <문화의집>이 수행하는 역할로는 문화체험, 문화교육, 문화창작, 정보검색 및 이용, 생활상담, 문화 소모임 활성화가 있다.

<문화의집>은 여타 공공문화시설 및 사설문화센터와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대중주의에 입각한 소규모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시(군, 구)

4)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및 통폐합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IMF 한파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구조조정 이외에 행정전산화에 따른 유휴인력의 발생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민선단체장이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바람에 읍·면·동사무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임학순 외(1998), 『일선행정기관의 문화복지센터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p.15-17.

5) 읍·면·동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에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촉하는 행정공간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광역시 산하에 자치구를, 도 밑에는 시와 군을 두고 있다. 자치구 밑에는 동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두고 그 밑에 동을, 시와 군이 통합된 통합시에는 읍·면·동을, 군 밑에는 읍·면을 둔다. 동은 비교적 전통이 짧고 상대적으로 상위 자치단체 인구에 예속되어 있어 사무에 대한 권한이 적은 편이지만, 읍과 면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무에 대한 권한이 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동과 면은 규모가 작지만, 읍과 면의 경우 공무원 수도 동과 면의 2-3배가 되고 규모도 일반 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동의 경우 주민들의 이동이 심하고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외지에서 이주한 주민의 수가 많고 토착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주민간 동질성이 비교적 약하다. 반면에 읍이나 면의 경우 토착민의 수가 많고 농업이나 어업 등 주민의 직업이 비슷하고 생활양식이 동 일하므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나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임학순 외(1998), 같은 책, pp.6-12.

민회관이 강좌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문화의집>은 주민이 직접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하며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 둘째, 이용자의 문화 욕구 및 수요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즉, 이용자의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차이와 주변 문화 환경 및 이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정도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이용자가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너무 교훈적이거나 진부한 프로그램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한다. 개인의 욕망을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 유감없이 밖으로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의집>은 누구나 아마추어 정신을 기초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생기는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의 자치조직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화복지 및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일정한 지역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과 연대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만든 지역민들의 자치활동 장소이다. 이로부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의 강화와 지역 공동체의 건설을 목적으로 1999년 전국 자치구 및 일반 시·동 278개소에서 시범 실시되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역할로는 문화여가기능(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시민교육기능(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주민편익기능(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지역사회진흥기능(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한 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주민자치기능(지역 문제에 대한 토론회와 건의)이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그 기능이 유지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할 만한 주민자치조직의 구성과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sup>6)</sup>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 도입단계에서는 동의 사무와 인력조정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조례나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골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호응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착단계에서는 관련

6) 이호(2000),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방향과 지역운동의 참여 방법”, 『도시와 빈곤』 45호, 한국도시연구소, pp.67-74.

법령정비를 완전히 끝내고, 읍·면·동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이나 프로그램의 어느 정도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단계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조직으로 완전히 정착시켜야 한다. 이 단계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조직에 의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문화복지와 지역자치를 기치로 설립된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질적 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든다. <문화의집>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첫째,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이다.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은 크게 변화된 게 없는 실정이다. 가령, 운영인력의 능력발전을 위한 문화교육, 직무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요원한 상태이다. 둘째, 재정 및 시설지원의 문제이다. 한때 쾌적하고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문화의집>에 소요되는 재정적 한계는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트’에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문화의집>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다. 단순히 이용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지역민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문화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문화복지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자치센터> 역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통해 밑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공간의 활용이라는 행정적 요구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렇다보니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 관심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둘째, 강좌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핵심인 자발적 소모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강좌 중심의 프로그램은 개인 취미에 국한됨으로써 지역발전에 관한 담론생산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전문인력의 부재이다. 대체로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행정 공무원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행정 공무원의 업무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작은도서관> 정책은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점은 ‘도서관 운동’으로 촉발된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일정 정도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 정책은 시민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보다 쉽게 이끌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있는 셈이다. <작은도서관> 정책의 지속성은 지금까지 존재해 온 시민사



회의 요구와 활동을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포괄할 수 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강점은 ‘책 읽기’ 자체가 갖고 있는 강한 교육적 욕구이다. <문화의집>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중문화 및 소비문화와 상당히 중첩된다. 즉, 언제 어디서든 일반 사설학원이나 문화센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에 <문화의집>이나 <주민자치센터>만의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 없다. 하지만 ‘책 읽기’는 아직까지 상업화가 덜 된 분야이며, 부모들의 교육 열기를 감안할 때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항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작은도서관> 정책의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3.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 비교〉

|      | 〈문화의집〉                                                        | 〈주민자치센터〉                                                           | 〈작은도서관〉                                                               |
|------|---------------------------------------------------------------|--------------------------------------------------------------------|-----------------------------------------------------------------------|
| 설립목적 |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및 통폐합 방안과 관련하여 공공건물의 유휴 공간을 활용 | 읍·면·동사무소에 생기는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의 자치조직이 주체가 되어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복지 및 생활자치를 구현 | 생활권 내 주민 밀착형 소규모 도서관 설립을 통해 정보서비스 및 문화공동체 구축                          |
| 역할   | 문화체험, 문화교육, 문화창작, 정보검색 및 이용, 생활상담, 문화 소모임 활성화                 | 문화여가기능,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주민자치기능                           | 대출, 수서, 공부방, 각종 정보서비스 제공, 문화프로그램                                      |
| 기대효과 | 문화 소외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증대<br>지역민의 문화 욕구 실현<br>문화민주주의 구현      |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증대<br>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지역자치 구현                     | 정보문화 소외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격차 해소<br>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관 확충<br>평생학습의 기초 인프라 구축 |
| 주체   | 문화관광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



## 제4절 <작은도서관> 유형별 모델 구축

<작은도서관>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자연발생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그 명칭사용이 확산되어 현재로서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에는 모호해 어려운 점이 많다.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설립과 운영의 주체, 방식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2006년 문화관광부의 복권기금에 의해 조성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볼 때,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가능성은 소재지역의 특성과 운영주체에 의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지원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유형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소재지별

#### (1) 농촌형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운 사업에서는 선정에서부터 농어촌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신축 가능성이 더 떨어지며 인구 밀도가 낮아서 이용자수가 적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거리적 접근성 떨어지지만, 주민들의 유대감이 강하고 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작은도서관>이 조성되면 문화 사랑방으로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리모델링할 건물 자체가 많지 않으므로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

#### (2) 도농복합형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민과 농민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같은 도시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 공동화 지역이나 저소득층 지역에 비해 인구이동이 많고 주민들의 유대감이 적고 위화감이 커서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지역이다.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이용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지자체에 의한 공공도서관 신축 가능성 큰 곳이다. 공동체의 부재로 인하여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경우 문화 사랑방으로서보다는 도서

관 고유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도시지역

2006년도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 문화소외지역이 포함되었다. 도시 문화소외 지역으로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구도심이었던 지역이 쇠퇴한 도심 공동화 지역, 임대 아파트 등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 이용자가 많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거리적 접근성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높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자체에 의한 공공도서관 신축 가능성이 크며, 상호대차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도서의 배달이 농어촌에 비해 용이하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 등 공간을 구하기가 농어촌에 비해 용이하여, 적은 지원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공동체 기능이 약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단순한 이용자로 남아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 2. 운영주체별

이미 설립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열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은도서관> 사업의 성패는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의해 다양한 성격을 띠게 된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이고 자율적 운영과 동시에 지자체의 지원과 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장기적 운영이 확보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에서의 민간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 (1) 지자체 직영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자체의 조성 및 지원 의지가 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단순한 도서관 이용자로 남으며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는 무관심하거나 수동

적인 태도를 보일 우려도 있다. 지자체의 지원 지속 가능성이 크지만,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친화도, 즉, 심리적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지자체 산하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사서가 파견되어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전문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은 낮을 수밖에 없고 문화 사랑방 기능보다는 도서관 고유의 기능으로서 남을 가능성이 크다.

## (2) 민간 위탁

지자체에서 건립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지자체의 의욕이 강하면서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민간의 의욕적 참여가 결합되는 이상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민간 위탁의 경우 해당 도서관 관할 지역주민의 자체 운영과 광역 시민단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작은도서관>을 광역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지자체의 지원 지속 가능성 크고,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문화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민간의 주체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집행 등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

## (3) 민간 직영

민간 직영의 경우 민간의 의욕이 강하나 해당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지속적 지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 성격이 커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친화도가 커서 심리적 접근성이 좋고 자원 봉사 등 주민들의 참여가 높다. 하지만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 다양한 자구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작은도서관>들은 심지어 지자체로부터 독립적이려는 경향으로 인해 지자체의 지원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며 운영 재정이 불안한 경우가 많다.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작은도서관>들은 탐방한 결과를 볼 때, 민간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가 가장 전망이 좋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 지자체 소속 도서관 또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분관 형태, 민간 운영 주체의 경우도 해당 지역 주민에 의한 것이 아닌 광역 시민 단체에서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장기적 운영의 관점에서 볼 때 취약점을 드러내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의욕이 없는 곳은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아무리 확고하다고 해도 활기를 띠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지역 주민의 의욕이 강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무관심, 재정 열악, 시설 열악 등 아무리 현재 조건이 나쁘더라도 지속적 운용 가능성이 있었다.

〈도표 4. 운영방식과 지역특성에 따른 작은도서관 유형분류〉

|        | 도시 지역                                                | 도농복합 지역                                                 | 농어촌 지역                                                 |
|--------|------------------------------------------------------|---------------------------------------------------------|--------------------------------------------------------|
| 지자체 직영 | 지자체직영/도시<br>인구밀집<br>지자체주도형<br>수직적 의사소통구조<br>안정적 재정마련 | 지자체직영/도농복합<br>인구편중<br>지자체주도형<br>수직적 의사소통구조<br>안정적 재정마련  | 지자체직영/농어촌<br>고령인구<br>지자체주도형<br>수직적 의사소통구조<br>불규칙적 재정확보 |
| 민간 위탁  | 민간위탁/도시<br>인구밀집<br>민관파트너쉽형<br>수평적 의사소통구조<br>안정적 재정마련 | 민간위탁/도농복합<br>인구편중<br>민관파트너쉽형<br>수평적 의사소통구조<br>불규칙적 재정확보 | 민간위탁/농어촌<br>고령인구<br>민관파트너쉽형<br>수평적 의사소통구조<br>불규칙적 재정확보 |
| 민간 직영  | 민간직영/도시<br>인구밀집<br>민간주도형<br>상향식 의사소통구조<br>재정 불안정     | 민간직영/도농복합<br>인구편중<br>민간주도형<br>상향식 의사소통구조<br>재정 불안정      | 민간직영/농어촌<br>고령인구<br>민간주도형<br>상향식 의사소통구조<br>재정 불안정      |



## 제5절 <작은도서관> 특성화 방안

### 1. <작은도서관> 특성화를 위한 검토사항

- (1) <작은도서관>은 고유한 형태를 갖지 않는다. 주민들의 생활밀착형의 도서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고정되고 유형화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 (2) <작은도서관>은 일방적인 형태의 공간구조나 똑같은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이 아니라 지역 정서와 상황에 맞는 특성화를 지향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자신만의 색깔을 가져야 할 것이다.
- (3) <작은도서관>은 공공문화기반시설과 동떨어진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다.
- (4)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즉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 (5) <작은도서관>은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민관협력(governance)’ 실험의 장이다.

### 2. <작은도서관> 특성화 방안

#### (1) 도서관 기능과 역할 수행

현재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보충하는 도서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대체로 운영주체와 지역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권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현재 문화적 소외는 그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그러한 소외감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은 운영주체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책과 독서문화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문화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도서관의 확충은 경제적 혹은 환경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화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 (2) 대안적인 문화공간의 창출

풀뿌리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문화공간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96년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이 생활권내에서 다양한 정보와 수준 높은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해 문화창조적 활동을 직접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의집’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문화의집’ 운영비 지원이 돌연 중단되었고, 2005년에는 ‘문화의집’ 조성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지원이 중단되었다. 이후 프로그램 운영비로 복권기금이 지원되었으나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문화는 점차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으며, 지역의 문화복지는 위협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도서관>은 ‘문화의집’과는 다른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명확한 방향성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작은도서관>을 통한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문화의집’이 했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의집’이나 ‘주민자치센터’와는 달리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책과 도서관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일종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자연스러운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점차 상실되어 가는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 (3) 지역 문화기관 및 문화시설의 네트워크 역할

현재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문화시설 및 문화기관 등이 존재하고 있다. 도서관과 박물관, 문예회관 및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시민문화단체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개

별적인 기관이나 문화시설이 공동의 움직임을 통해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문화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문화 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개별 문화기반시설 등이 함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에 막혀 있어서 실질적인 자리는 부재한 상태이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한다는 점에서 ‘민’과 ‘관’의 중간지대를 형성한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지역문화의 네트워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 3. <작은도서관>의 특성화 모형과 사례

(1) 프랑스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사설도서관이 존재한다. 그 중에 아랍 문화 도서관, 소장자와 기증자의 이름을 딴 개인도서관 등 특화된 주제의 도서관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착안한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공공도서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특성화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을 선정하고 그 문화예술인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 영역을 특성화시킨 주제별(테마형) <작은도서관>을 설립한다. 셋째, 경기도 안산시처럼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은 경우에 지역 특성과 정서를 고려해서 ‘아시아문화도서관’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 윤이상도서관(경남 통영)
- 바우덕이전통예술도서관(경기 안성)
- 아시아문화도서관(경기 안산)
- 미술·음악·문학 작은도서관

(2) 현존하는 <작은도서관>의 예: ‘인천 가재울 작은도서관’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



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두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센터’의 역할을 연결지었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갖는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족이나 협소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정서와 지역문화를 <작은도서관>의 특성화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구청의 예산지원과 지역발전기금,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기업 후원금(한국전력공사)을 유치한 사례 또한 <작은도서관>의 재정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현재의 재정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지만,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3장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제 1절 문화지표의 개념과 특징

제 2절 문화지표의 개발과정

제 3절 <작은도서관> 평가지표체계 개발

제 4절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지표 개발

제 5절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 개발



## 제1절 문화지표의 개념과 특징

일반적으로 지표라고 하면 사회지표를 떠올린다.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란 특정 사회의 발전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통계와 그 이외의 모든 형태의 증거를 말한다. 사회지표는 인구학적 영역(가구수, 인종별·성별·세대별 인구수, 지역별 주거자수), 경제적 영역(임금수준, 고용형태, 직업분류), 사회문화적 영역(교육수준, 소비행태, 문화생활수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발전수준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분석의 유용한 도구이다. 하지만 ‘삶의 질’이라는 문제 속에서 사회지표는 방법론과 분석상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왜냐하면 사회지표는 측정 가능한 객관적 지표의 단순통계수치를 통해 사회를 분석하려 했는데, 삶의 질이라는 문제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감성의 문제까지 포괄해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과 관련하여 사회지표가 갖는 분석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 중의 하나가 문화지표이다. ‘문화지표’(cultural indicators)란 한 사회의 문화발전과 환경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통계 및 그 이외의 모든 형태의 증거를 말한다. 무엇보다도 문화지표는 ‘가치와 지향’을 분석대상 및 논리전개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서 사회지표와는 상이하다. 물론 사회지표이건 문화지표이건,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대상을 지표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시도하려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문화지표는 ‘가치와 지향’이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대상을 지표로 설정하고 규명한다는 점에서 사회지표와 다를 뿐더러,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 보다 많은 설득력을 확보한다. 따라서 문화지표연구는 객관적 연구라는 엄밀성을 과잉 강조한 나머지 문화가 갖는 특징과 속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문화의 발전수준과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문화지표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문화지표는 단순통계조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문화지표는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령, <작은도서관>의 시설평가지표만으로는 <작은도서관>이 갖고 있는 의미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시설확충을 통해 통계상의 높은 점수를 얻는다 해도, 운영주체의 전문성과 지자체(행정당국 포함)의 의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내용분석에 있어 상이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지표에는 문화의 생산자 혹은 행정주체의

전문성과 실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지표에는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소통매체인 문화콘텐츠(프로그램)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운영의 핵심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현에 있다. 그런 만큼 문화지표에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종류를 총합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 범주의 유형화(관심유발형, 지식학습형, 창작참여형) 및 그에 해당되는 기대효과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계를 측정할 항목들이 문화지표로 포함되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지표는 통합적 비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문화지표조사는 주제별 혹은 영역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가령, 문화기반 시설, 예술단체 현황, 지역문화축제와 같이 개별 영역별로 지표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문화지표연구는 해당 영역이 여타의 다른 영역과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 문화는 그 자체로서 다른 문화 혹은 정치·경제·사회심급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지표는 한 국가 혹은 한 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즉, 문화기반시설과 프로그램과의 상관관계, 문화예술행정과 운영인력과의 관계, 설립취지와 지역정서와의 관계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평가지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측면들이 고려된 가운데 구성된 문화지표는 현 시기 문화발전의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대중의 문화욕구를 얼마나 증진시키고 있는지,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특성화되고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즉, 문화지표는 현상에 대한 단순통계를 넘어 문화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문화지표가 분석하고 규명하고자 하는 ‘가치와 지향’의 문제를 풀어낼 방향성을 제시한다. 요컨대, 문화지표연구는 단순히 가치평가가 포함되지 않는 통계수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교연구, 분석과 평가, 발전모델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반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작은도서관>은 생활권 단위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이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된 이용자이며, 문화소외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주된 활동으로 전개한다.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소외라는 개념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상황에서의 도서관 활동은 대출과 수서업무 이외



에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기능해야 할 역할까지 부여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위한 지표의 설계 역시 <작은도서관>의 복합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만의 특이성은 <작은도서관> 내부에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의 시설규모와 운영체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 제2절 문화지표의 개발과정

문화지표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1986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으로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를 발간하는 데서 시작되었다.<sup>7)</sup> 이 보고서는 문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한 사회 또는 사회집단을 특징짓는 고유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 그리고 정서적인 특성들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영역을 문화유산, 문학과 예술, 대중매체, 사회 문화적 활동, 여가활동, 국제문화교류 등으로 구분하여 333개의 하위지표를 제시했다. 그 후 연구된 「문화지표체계개선」(1995)은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지표를 포함하면서, 관심영역을 창작, 창작물, 유통, 생산, 수용, 향수실태로 분류하여 보다 구체적인 문화지표를 구성했다.

이러한 문화지표연구는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역문화지표의 설계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연구」(1996)를, 성남시는 「성남시 문화지표조사 연구」(2001)를, 청주시는 「청주 시민 문화의식 분석」(2001)을 통해 자신의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2001년에 이루어진 성남시의 「성남시 문화지표조사 연구」는 기존의 문화지표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지역문화지표연구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문화지표체계가 국가나 지자체간의 비교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 연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현실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경, 사회인구적 환경, 경제적 환경)과 문화적 특성(문화 인프라 관련 기존 평가 검토, 문화생활, 문화관광 환경)이 자세하게 검토되었다.

문화지표를 통해 문화현실을 수량화하여 양적 비교가 가능한 문화지수연구는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2000년)을 통해 이루어졌다.<sup>8)</sup>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은 선행 문화지표연구의 검토 이외에 사회지표에 포함되어 있던 문화지표와 외국의 문화지표(호주, 캐나다 등)를 검토하면서 문화유산, 문학과 예술, 대중문화, 사회문화적 활동(여

7) 문화지표체계개발의 사전 연구라 할 수 있는 「국민문화지표 설정을 위한 사회지표론적 모색」, 「국민문화지표연구」 등이 1984년에 있기는 했지만, 이들 연구는 지표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문화실태를 측정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단편적 보고서들이었다.

8) 물론 지자체별 문화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는 연구는 1995년에 중앙일보사가 전국 74개 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비교 평가한 것과 이를 바탕으로 1998년에 이루어진 지역간 삶의 질을 지수화한 연구(집문당)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지표조사연구」(1995)와 「지역문화복지지수 체계개발 및 조사연구」(1996)는 지자체별로 문화지수를 산출하여 이를 비교하고 평가한 최초의 연구이다.

가활동)의 관심영역을 세분화하여 새롭게 문화지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관심영역 내부와 영역 사이의 중요도를 설정하는 기준과 가중치의 부여방법 그리고 이를 지수화 하는 새로운 문화지수체계를 제시했다.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표체계가 확고히 구축되어야 한다. 그것은 문화지표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요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일정한 형식의 확립으로부터 시작된다. 평가지표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관심영역과 하위관심영역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표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구성해야 한다. 문화지표를 관심영역별로 나누어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첫째, 지표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가령,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의 개발이라는 연구목적만 하더라도 지자체의 지원정도, 지역의 문화자원 규모,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과 문화수요, 다른 공공문화시설의 존재 등과 같이 다양한 관심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영역들이 모두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구과정의 한계(연구예산, 한정된 조사자 수)와 현실적 한계(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표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만 해당 연구에 맞는 특정의 관심영역과 지표를 설정할 수 있고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 역시 나올 수 있다.

둘째, 지표를 개발하는 방법론을 만들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한 지표작업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먼저 연역적 사고를 통해 연구목적에 따른 문화지표의 의미와 가치를 우선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실측 가능한 요소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여 지표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한편, 귀납적 방법으로 연역적 방법과 같이 관심영역을 사전에 선정해 놓고 개별 특정 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요소를 가능한 한 많이 추출하여 통계적 방법을 통해 선정지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sup>9)</sup> 위의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목적과 상황에 따라 실용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셋째, 관심영역과 하위관심영역 그리고 세부항목을 분류하고 해당 영역의 구체적 지표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각 관심영역이 상호 중복되거나 겹쳐지지 않게 해야 한다(배타성의 원칙). 또한 각 관심영역은 <작은도서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포괄성의 원칙). 이러한 원칙을 통해 관심영역이 구성되어야 평가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각 관심영역은 독자적인 내용을

9) 임학순 외(1995),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지표 조사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p.42-46.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영역과의 인과적 연관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개방성의 원칙). 이는 <작은도서관>이 다른 영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층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원칙이다.

위에서 논의한 문화지표체계의 확립과정과 원칙에 근거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문화지표체계는 분야, 부문, 관심영역과 같은 대범주를 설정한 다음 세부분야, 세부관심영역과 같은 중범위 수준의 지표를 나눈 후 구체적인 지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된 문화지표연구에서 대표적 사례를 뽑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지표체계개선」(1995)에서는 문화지표체계가 전체, 분야,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의 6단계를 통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문화 분야는 문화유산, 문학과 예술, 대중매체, 사회문화적 활동, 여가활동, 국제문화교류 등 6개로 설정되었고, 이는 다시 3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졌다. 또한 33개의 부문별 관심영역을 따로 설정하고 각 관심영역에 따라 세부관심영역을 분류한 다음 구체적인 지표 517개를 설정했다. 문화지표체계의 형식과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도표 5. 「문화지표체계개선」에서의 문화지표와 형식〉

##### 〈「문화지표체계개선」(1995)〉

| 분야 | 부문 |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 | 지표 |
|----|----|------|--------|----|
|----|----|------|--------|----|

##### 〈「문화지표체계개선」(1995)에서의 문화지표<sup>1)</sup>〉

| 분야         | 부문  |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      |
|------------|-----|--------|-------------|
| 사회문화<br>활동 | 도서관 | 인력, 예산 | 도서관운영, 인력운영 |
|            |     | 도서관    | 도서관운영, 예산현황 |
|            |     | 행사     | 행사현황        |
|            |     | 수용자    | 이용자현황       |
|            |     | 수용실태   | 만족도 및 장애요인  |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연구」(1996)는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활동,

전통문화자원, 문화행정의 관심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17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나눈 후 91개의 개별지표를 만들었다. 91개의 문화지표는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적 문화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과 자치구 차원에서 구체적인 문화지표를 삼을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하고 있다. 문화지표체계의 형식과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6. 「서울시 문화지표설정 및 측정연구」에서의 문화지표와 형식〉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연구」(1996)〉

| 관심 영역 | 세부관심영역 | 지표 | 구분        |           |
|-------|--------|----|-----------|-----------|
|       |        |    | 서울시<br>지표 | 자치구<br>지표 |

〈「서울시 문화지표 설정 및 측정연구」(1996)에서의 문화지표<sup>1)</sup>〉

| 관심 영역 | 세부관심영역 | 지표                    | 구분        |           |
|-------|--------|-----------------------|-----------|-----------|
|       |        |                       | 서울시<br>지표 | 자치구<br>지표 |
| 문화 시설 | 도서관    | 공공도서관 수               | ○         | ○         |
|       |        | 인구 100만인당 공공도서관 수     | ○         |           |
|       |        | 인구 1,000인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 ○         | ○         |
|       |        | 인구1,000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  | ○         |           |
|       |        | 인구 1,000인당 이동도서관 장서 수 | ○         | ○         |
|       |        | 인구 1,00인당 이동도서관 대출건 수 | ○         | ○         |
|       |        | 전자도서관 수               | ○         |           |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2000)은 문화지수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문화지수화의 선행 작업으로서의 문화지표는 주관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제외하고 객관적 지표, 양적 지표로 한정하여 구성하였다. 한편 변화된 문화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대중문화(매체문화활동) 영역에 만화, 게임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문화교육과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였다. 문화지표는 전체, 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라고 하는 4단



계를 두고 만들어졌고, 문화유산, 문학 및 예술, 대중문화, 사회문화적 활동 및 여가활동의 4개 관심영역을 16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나눈 후 102개의 개별지표를 설정하였다. 문화지표체계의 형식과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도표 7.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에서의 문화지표와 형식〉

####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2000)〉

|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 | 세부항목(개별지표) | 구분 <sup>10)</sup> |
|------|--------|------------|-------------------|
|------|--------|------------|-------------------|

#### 〈「국민문화지수체계개발」(2000)에서의 문화지표<sup>1)</sup>〉

|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 | 세부항목                                                                                                                         |
|---------|--------|------------------------------------------------------------------------------------------------------------------------------|
| 문학 및 예술 | 문학     | 문학인 수, 문학도서 발행종수, 도서발행 경험 출판사 수, 서점수, 도서관 수, 도서관 좌석 수, 도서관장서 수, 문학도서 독서 권수, 도서관 이용률, 향후 독서 의향, e-book 발행수, 문학 관련 인터넷 사이트 접속률 |
|         | 공연예술   | 공연예술인 수, 공연예술단체 수, 공연예술 기획사 수, 공연예술 행사 수, 공연시설 수, 공연시설 좌석수, 공연예술행사 관람률, 향후 공연예술 관람 의향, 공연예술 관련 인터넷사이트 접속률                    |
|         | 조형예술   | 조형예술인 수, 조형예술 전시회 수, 미술관 수, 미술관 소장품 수, 미술관 면적, 화랑 수, 연간 조형예술 전시회 관람률, 향후 조형예술 전시회 관람 의향, 조형예술 관련 인터넷사이트 접속률                  |

2001년 제출된 「성남시 문화지표조사 연구」는 지역문화의 지표체계를 만들고 이에 합당한 지표를 설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분류했던 것에 포함되지 않지만 문화 활동을 위해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지표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는 3개의 영역을 11개의 관심영역으로 세분화 한 후, 25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문화지표체계의 형식과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문화의 기능에 따른 분류로 ①은 창작(생산), ②는 유통(분배), ③은 향유(소비)를 뜻한다.

〈도표 8. 「성남시 문화지표조사연구」에서의 문화지표와 형식〉

〈「성남시 문화지표조사연구」(2001)〉

| 영역 |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 | 지표항목 | 산식 |
|----|------|--------|------|----|
|----|------|--------|------|----|

〈「성남시 문화지표조사연구」(2001)에서의 문화지표<sup>1)</sup>〉

| 영역   |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              |
|------|-----------|---------------------|
| 문화환경 | 문화시설/공간   | 문화시설/공간 유형 및 수      |
|      |           | 문화공간 유형 및 수         |
|      | 문화인력      | 문화인력 수              |
|      |           | 문화인력 유형             |
|      |           |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유형 및 수 |
|      | 문화재원      | 문화예산 규모             |
|      | 문화행사/프로그램 | 주최기관별 프로그램 수        |
|      |           | 문화행사/프로그램 수         |
|      |           | 문화행사/프로그램 유형        |
|      | 문화유산      | 문화재 및 문화유산 수/유형     |
|      | 문화지원 환경   | 문화지원제도              |
|      |           | 업무분장 체계             |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지표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평가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평가자의 평가목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하위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이 설정된다. 가령, 〈작은도서관〉의 행정과 정책에 집중할 것인지, 이용자들의 이용실태에 집중할 것인지, 지역문화에 영향을 주는 시너지효과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지표의 목록은 상이하게 선택된다. 따라서 새롭게 작성될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는 〈작은도서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 모두를 포괄할 표준모델을 하나 만들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표준모델 안에서 선택해 활용해야 한다.



### 제3절 <작은도서관> 평가지표체계 개발

기존의 문화지표체계의 형식은 지표연구의 목적 및 활용, 변화된 문화 환경을 반영 하면서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선행 문화지표체계의 형식이 갖고 있는 분류기준 이나 문화적 의미는 보고서에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 그 자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에 따라 관심영역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관심영역 이나 부문이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나뉘어져 있는지, 무엇을 규명하고자 하는지 에 대한 인식은 결과분석에서 종합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도 측정의 실용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지표체계의 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표 9. 「문화지표체계개선」에서의 문화지표체계〉

| 관심영역 | 하위관심부문 | 세부항목 |
|------|--------|------|
|------|--------|------|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한 지표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위한 문화적 기준 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작은도서관> 운영의 적절성이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의 시설평가, 운영인력체계 및 운영실태, 이용자들의 이용실태 및 활동, 프로그램의 적 실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갖는 문화적 의미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이다. 현재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증가하 고 있다. 양적인 팽창과는 무관하게 이들 시설의 운영 실태를 보면, 창발적인 문화프로 그램의 개발보다는 시설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경우, 운영의 적실성은 낮게 평가 된다.

또한 이용자들의 이용실태 및 활동 역시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도서 대출에서부터 자원봉사자의 활동 그리고 소모임까 지 아우르는 참여의 스펙트럼이 넓을수록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확보이다. <작은도서관> 관련 자원운용, 문화정책시 행, 이용자 참여를 통해 공공성의 확보 정도가 측정될 수 있다. 문화자원으로서의 <작

은도서관> 운영을 살펴보면 공적 운영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문화자원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이용에 있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은 접근성, 이용의 형평성, 비시장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편 <작은도서관> 관련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공적 운영을 측정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은 형성과정과 시행과정 그리고 시행주체에 있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참여는 <작은도서관>을 매개로 문화적 권리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문화적 권리는 문화적 욕구의 실현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시민 스스로가 문화적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확대된다. 이에 <작은도서관>의 이용에 있어 의견개진 및 수렴의 형식을 살펴보는 일은 문화적 권리의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정체성 형성이다. <작은도서관>의 공간적 특성(입지환경, 접근성, 내부 공간 분할)과 이용자들이 <작은도서관>에 부여하는 의미를 분석하면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먼저 공간적 특성은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작은도서관>이 입주해 있는 공간(도시화 정도, 인구규모, 지역민의 경제활동, 지역문화), 접근성(이용자들의 도보를 기준으로 걸리는 시간), <작은도서관> 내부의 공간분할(안내데스크, 열람실, 서가, 휴게실)은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이다.

이용자들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생각 역시 <작은도서관>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용자들의 이용실태와 동기 속에서 <작은도서관>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작은도서관>은 지역과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획일적인 공간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똑같은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넷째,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과성이다. <작은도서관> 관련 발전계획의 수립, 구체적인 사업의 집행, 체계적 평가실행,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통해 운영의 효과성이 측정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발전계획수립을 알아보면 지자체가 어떤 관점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어떠한 발전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작은도

서관> 정책은 지자체 이외에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문화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이루는 가운데 수립되어야 한다.

한편 <작은도서관>이 수행해 온 사업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만의 사업이 갖는 독창성을 측정할 수 있다.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사업은 그 내용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창성과 참신성을 구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의 체계적 평가실행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의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이 추진해 온 각종 사업에 관한 평가가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원에 있어 투명성과 형평성이 관철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운영인력과 조직의 전문화를 평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자체 문화행정부서의 지원과 운영인력의 전문성, 업무분장, 책임과 역할체계, 재교육 프로그램이 평가대상으로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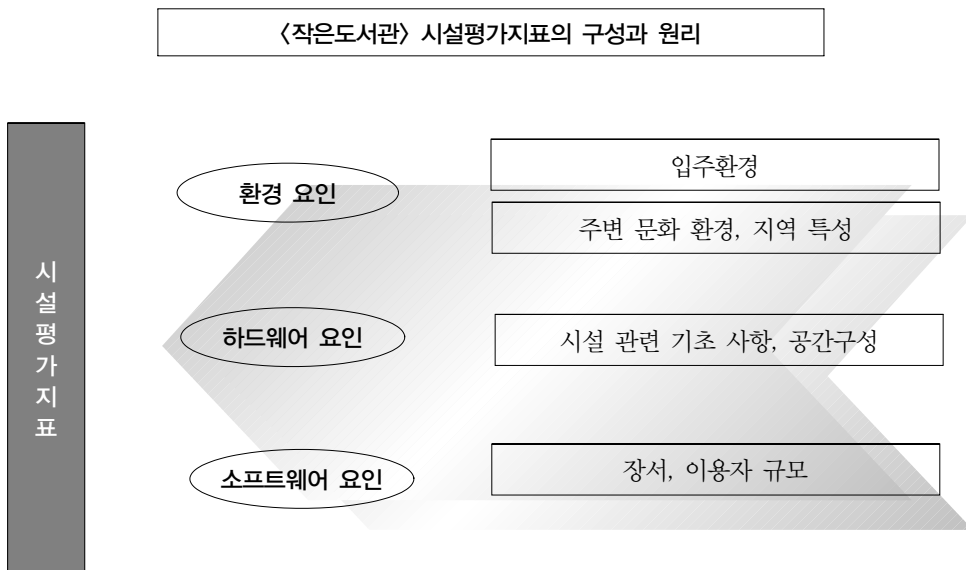


## 제4절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지표 개발

<작은도서관>의 시설평가는 크게 환경 요인(입주환경, 주변 문화 환경, 지역특성)과 하드웨어적 요인(시설관련 기초 사항, 공간구성)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요인(장서, 이용자 규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환경 요인은 <작은도서관>이 입주해 있는 환경을 알아봄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분류와 특성화 운영을 모색하기 위한 지표이다. 하드웨어적 요인은 <작은도서관>의 기초적 시설정보를 살펴봄으로써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표이다. 소프트웨어적 요인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작은도서관>의 시설평가지표는 7가지 하위관심부문을 설정하여 개발되었다. 7가지 하위관심부문으로는 기초질문, 입주환경, 주변 문화 환경, 지역특성, 장서, 공간구성, 이용자 규모가 설정되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평가지표의 구성과 원리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도표 10.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지표의 구성과 원리〉



## (1) 환경 요인

환경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관심부문은 입주환경, 주변 문화 환경, 지역 특성의 세 가지 영역이다. 첫 번째 하위관심부문인 입주환경은 <작은도서관>이 입주해 있는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공간 입주 형태 (주민자치센터 내 입주, 기타 공공기관 내 입주, 민간 건물 내 입주, 자체 독립 건물에 입주, 기타)
- 운영형태 (지자체 직영, 민간 위탁, 지자체 위탁, 순수민간단체 직영, 기타)
- 접근성 (도보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내외 걸리는 이용자)

두 번째 하위관심영역인 주변 문화 환경은 <작은도서관> 주변에 어떤 문화시설 및 단체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 문화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주변 문화예술기관
- 주변 문화예술단체
- 주변 문화예술인

세 번째 하위관심영역인 지역특성은 <작은도서관>이 어떠한 사회적 환경 속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도시화 정도 (농어촌지역, 도농복합지역, 도시지역, 기타)
- 사회 계층 (상류층지역, 중류층지역, 저소득층지역, 기타)
- 중점 활동 (주거지역, 상가지역, 산업밀집지역, 학교지역, 기타)
- 주거 형태 (일반거주지역, 아파트밀집지역, 기타)
- 직업 분포 (자영업, 사무직, 농어업, 학생, 기타)

## (2) 하드웨어적 요인

하드웨어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관심부문은 시설 관련 기초 사항과 공간구성의 두 가지 영역이다. 첫 번째 하위관심부문인 시설 관련 기초 사항은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의 프로필을 작성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 관련 기초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정식 명칭 | ○ 주소        | ○ 설립연도           |
| ○ 홈페이지  | ○ 개관시간      | ○ 휴무일            |
| ○ 전화번호  | ○ 사서 자격증 유무 | ○ 작은도서관 CI 설치 유무 |

두 번째 하위관심영역인 공간구성은 <작은도서관> 내부의 공간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구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공간명칭 | ○ 층수 | ○ 평수 | ○ 특이사항 |
|--------|------|------|--------|

## (3) 소프트웨어적 요인

소프트웨어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관심부문은 장서구비와 이용자 규모의 두 가지 영역이다. 첫 번째 하위관심부문인 장서구비는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각종 도서의 종류와 권수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구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단행본 (1000권 미만, 1001-2000권, 2001-3000권, 3001-4000권, 4001권 이상)
- 정기간행물 (5종 미만, 6-8종, 9-11종, 12-14종, 15종 이상)
- 시청각자료(DVD, CD, VTR) (30개 미만, 30-50개, 51-80개, 81-100개, 101개 이상)
- 연간 자료 구입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 이상)

- 장서 소장 비율 (아동-학습문화, 그림책, 동화책, 기타 / 성인-소설, 비소설, 교양, 기타)
- 상호대차시스템 실시 여부 (실시, 미실시)

두 번째 하위관심부문인 이용자 규모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이용 계층 (주부, 아동, 청소년, 노인,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 기타)
- 1일 평균 이용자
- 1일 평균 대출권수
- 관내 인구수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여,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1.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지표〉

| 관심영역           | 하위관심부문  | 세부항목                                                  |
|----------------|---------|-------------------------------------------------------|
| 시설<br>평가<br>지표 | 응답자 특성  | 직급, 성별, 연령, 근무년수                                      |
|                | 기초 질문   | 정식명칭, 주소, 설립연도, 홈페이지, 개관시간, 휴무일, 전화번호, 사서유무, 작은도서관 CI |
|                | 입주환경    | 공간입주형태, 운영형태, 접근성, 전체 면적, 층별 면적                       |
|                | 주변 문화환경 | 주변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
|                | 지역특성    | 도시화, 사회계층, 중점 활동, 주거형태, 직업분포                          |
|                | 장서      | 단행본,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연간 자료구입비, 장서소장비율, 상호대차시스템          |
|                | 공간구성    | 대출부스, 자료실, 열람실, 휴게실, 소모임방                             |
|                | 이용자 규모  | 이용계층, 1일 평균 이용자수, 1일 평균 대출권수, 관내 인구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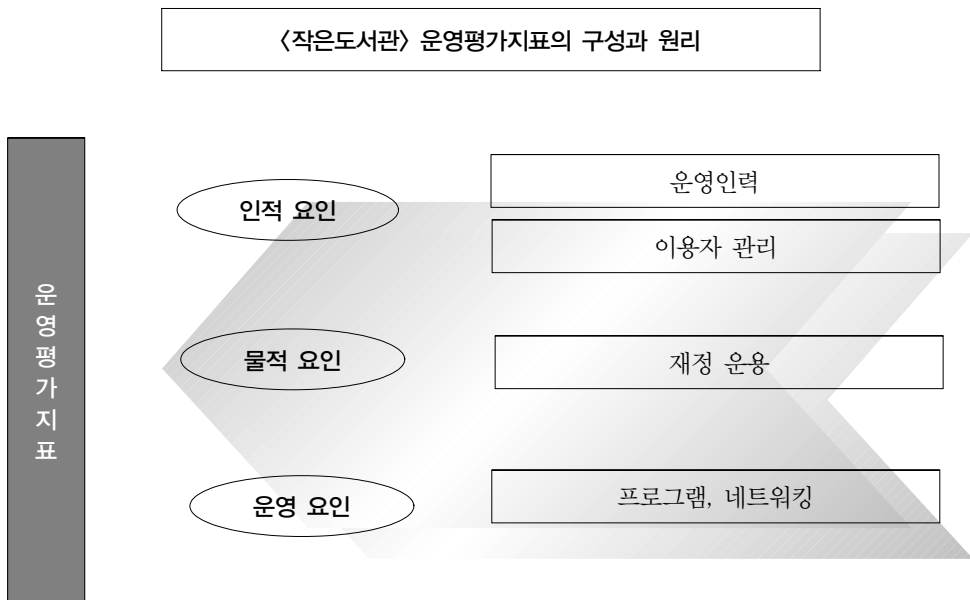


## 제5절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 개발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평가는 크게 인적 요인(운영인력, 이용자 관리)과 물적 요인(재정 운용) 그리고 운영 요인(프로그램, 네트워킹)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인적 요인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인적 측면에서 알아봄으로써 얼마나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물적 요인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재정 운용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운영 요인은 <작은도서관>의 실질적 사업과 활동이 얼마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이다.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지표는 5가지 하위관심부문을 설정하여 개발되었다. 5가지 하위관심부문으로는 운영인력, 프로그램, 이용자 관리, 재정 운용, 네트워킹으로 설정되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지표의 구성과 원리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도표 12.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의 구성과 원리〉





## (1) 인적 요인

인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관심부문은 운영인력과 이용자 관리의 두 가지 영역이다. 첫 번째 하위관심부문인 운영인력은 <작은도서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작은도서관> 운영목표 (도서 열람, 대출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독서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문화 개선, 공공도서관의 분관 기능, 주민의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사랑방 역할, 기타)
- 주요 업무 (대출, 수서,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회원관리, 시설관리)
- 운영에 관한 내부 소통구조 (<작은도서관>의 운영목표에 대한 고려 정도, 운영목표에 관한 소통 정도)
- 업무분장 (업무분장에 대한 인식 태도,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보 정도,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지원 정도)
- 운영인력의 전문성 (사서업무 수행능력,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능력,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모범 운영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 지역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가로서의 능력)
- 운영인력의 복지 (주 단위 근무 시간, 봉급체계, 복리후생제도)

두 번째 하위관심부문인 이용자 관리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 관리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작은도서관> 인지도 증대 노력 정도
- <작은도서관> 홍보 방안 (인쇄 홍보물 제작을 통해, 지역신문, 벼룩시장 등 언론매체를 통해, 컴퓨터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반사회나 기타 주민모임을 통해, 특별히 하지 않음)
-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방식 (건의함 등의 의견 수렴함을 통해, 개별사업 및 프로그램의 평가 질문지를 통해, 이용자대표로 이루어진 주민들의 자치모임을 통해,

컴퓨터 통신망(인터넷)을 통해, 특별히 하지 않음)

-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여부
- 자원봉사자 활동과 관리 (자원봉사자 활용분야, 모집방법, 관리체계, 보상체계, 활용목적)
- 이용자 소모임 활동과 관리 (소모임 수, 인원, 참여계층, 지원방법)

## (2) 물적 요인

물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관심부문은 재정운용이다. 재정운용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재정이 어떻게 확보되고 집행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 예산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도서구입,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및 확장, 자원봉사자 관리, 직원 인건비, 기타)
- 재정운용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
- 예산 선정에 있어 이용자 의견 수렴 (건의함과 같은 의견 수렴함을 통해, 주민운영위원회 같은 주민들의 자치모임을 통해, 개별적인 면담 혹은 의견개진을 통해, 자체 설문지를 통해, 기타)
- 예산 선정 및 결산내역의 공개(도서관 내 게시판을 통해, 정기 혹은 비정기 소식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가 문의해 올 때 개별적으로 제공, 기타)
- 지원주체 및 지원명목과 규모
- 설립지원금 지원 이외의 중앙정부의 역할(운영자금 지원, 재정 관련 법규 마련, 정부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기금 조성, 다양한 재정확보지침 마련, 기타)
- 설립지원금 지원 이외의 지자체의 역할(운영자금 지원, 재정 관련 조례 마련, 지역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기금 조성, 다양한 재정확보지침 마련, 기타)

## (3) 운영 요인

운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관심부문은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의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위관심부문인 프로그램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독서문화개선 프로그램 (독서모임, 책읽어주기, 글쓰기, 강독, 도서전시, 기타)
- 창작욕구실현 프로그램 (공연, 제작, 경연)
- 문화욕구유발 프로그램 (공연 관람, 전시 관람, 영상물 관람)
- 교육 프로그램 (소양교육, 문화강좌, 가정문화, 단기강좌, 상담)
-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주체 (관장, 사서, 자원봉사자, 이용자들의 자발적 소모임,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 등 입주기관)
-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 (이용자들의 의견, 도서관의 실질적 지원능력, 도서관의 설립취지, 사서의 운영판단, 지역문화 혹은 지역정서)
-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 (제한된 프로그램 종류, 적은 참여자 수, 협소한 공간, 프로그램 기획·운영의 전문성 부족, 프로그램 진행비 부족)

두 번째 하위관심부문인 네트워킹은 <작은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상호대차시스템과 기타 문화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킹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상호대차시스템 실시 여부
- 상호대차시스템으로 제공되는 도서 종류 (아동-학습문화, 그림책, 동화책, 기타 / 성인-소설, 비소설, 교양, 기타)
- 상호대차시스템으로 제공되는 도서권수 (10권 미만, 11-20권, 21-30권, 31-40권, 41권 이상)
- 상호대차시스템 실시에 따른 문제점
- 상호대차시스템 이외의 다른 문화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인력, 재정, 운영, 기타)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여,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3.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지표〉

| 관심영역                                              | 하위관심부문   | 세부항목                                                 |
|---------------------------------------------------|----------|------------------------------------------------------|
| <b>운영<br/>평가<br/>지표<br/>I</b><br><br><b>운영 인력</b> | 인력구성     | 직급, 인원, 고용주체, 상근·비상근                                 |
|                                                   | 운영목표     | 정보서비스 제공, 독서문화 개선, 사랑방 역할, 공공도서관의 분관 기능, 지식정보 양극화 해소 |
|                                                   | 업무       | 대출, 수서, 프로그램 기획·진행, 회원관리, 시설관리                       |
|                                                   | 내부 소통구조  | 운영목표에 대한 인지도, 운영목표 공유 정도                             |
|                                                   | 업무분장     | 업무분장에 대한 만족도, 업무수행의 자율성 보장 정도, 업무지원에 대한 만족도          |
|                                                   | 운영인력 전문성 | 운영인력의 전문성, 전문성 확보 방안                                 |
|                                                   | 직원복지     | 근무시간, 봉급체계, 복리후생제도                                   |

| 관심영역                                              | 하위관심부문      | 세부항목                                            |
|---------------------------------------------------|-------------|-------------------------------------------------|
| <b>운영<br/>평가<br/>지표<br/>II</b><br><br><b>프로그램</b> | 독서문화개선 프로그램 | 독서모임, 책읽어주기, 글쓰기, 강독, 도서전시, 기타                  |
|                                                   | 창작욕구실현 프로그램 | 공연, 제작, 경연                                      |
|                                                   | 문화욕구유발 프로그램 | 공연 관람, 전시 관람, 영상물 관람                            |
|                                                   | 교육 프로그램     | 소양교육(인문학), 문화강좌, 가정문화(육아, 아동), 단기강좌(어학, 논술), 상담 |

| 관심영역                                                     | 하위관심부문   | 세부항목                                                    |
|----------------------------------------------------------|----------|---------------------------------------------------------|
| <b>운영<br/>평가<br/>지표<br/>III</b><br><br><b>이용자<br/>관리</b> | 인지도 확보   | 인지도 확보 노력 정도                                            |
|                                                          | 홍보수단     | 인쇄 홍보물, 언론매체, 인터넷, 주민모임                                 |
|                                                          | 의견수렴     | 건의함, 개별사업의 평가 질문지, 주민자치모임, 인터넷                          |
|                                                          |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여부                                               |
|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의 활용분야, 인원수, 참여계층, 활용목적, 활용시간(월평균), 모집방법, 관리체계, 보상 |
|                                                          | 소모임      | 소모임 명칭, 인원, 참여 계층, 지원방법                                 |

| 관심영역                                              | 하위관심부문    | 세부항목                                            |
|---------------------------------------------------|-----------|-------------------------------------------------|
| <b>운영<br/>평가<br/>지표<br/>Ⅳ</b><br><br><b>재정 운용</b> | 재원 확보 방안  |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                                 |
|                                                   | 예산지출      | 도서구입, 프로그램운영,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인건비               |
|                                                   | 재정 관련 개선점 | 재정운용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                              |
|                                                   | 주민참여      |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견 반영 여부, 반영 방법                      |
|                                                   | 재정운용 공개   | 결산내역 공개 여부, 공개 방법                               |
|                                                   | 지원주체 및 규모 | 문화관광부, 지자체, 주민자치후원회, 지역문화재단, 기금, 기업 후원          |
|                                                   | 중앙정부 역할   | 운영자금 지원, 재정 관련 법규 마련, 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 재정확보 가이드 마련 |
|                                                   | 지자체 역할    | 운영자금 지원, 재정 관련 조례 마련, 지역 차원의 기금 조성, 재정확보 가이드 마련 |

| 관심영역                                             | 하위관심부문    | 세부항목                                        |
|--------------------------------------------------|-----------|---------------------------------------------|
| <b>운영<br/>평가<br/>지표<br/>Ⅴ</b><br><br><b>네트워킹</b> | 상호대차시스템   | 상호대차시스템 운영 여부, 대상, 미실시 이유                   |
|                                                  | 도서 종류     | 아동(학습문화, 그림책, 동화책, 기타), 성인(소설, 비소설, 교양, 기타) |
|                                                  | 도서권수      | 상호대차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주 단위 도서권수                    |
|                                                  | 문제점       | 상호대차시스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
|                                                  | 다른 부문의 교류 | 상호대차시스템 이외의 교류 여부, 교류 내역, 성과                |



## 제4장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설문조사

- 제 1절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제 2절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제 3절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제 4절 <작은도서관> 이용자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제 5절 <작은도서관> 재정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제 6절 <작은도서관> 네트워킹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제1절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1. <작은도서관>의 사서 자격증 유무

#### ■ [질문 1]의 의미

조사 대상 <작은도서관>의 사서 인력 배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 문항이다.



#### □ 조사결과

응답한 <작은도서관>의 75%가 사서 없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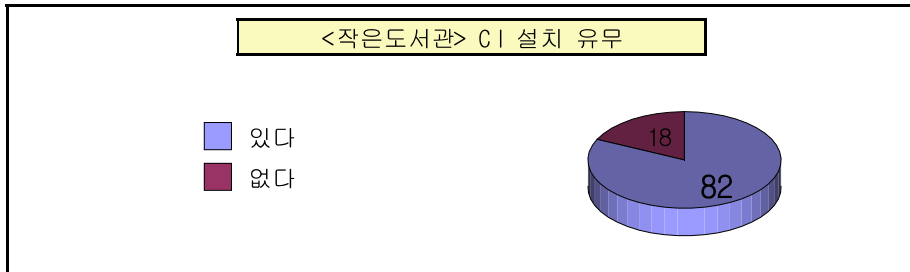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서 인력 배치가 법적 필수 조건이 아닌 <작은도서관>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각 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자원 활동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겠다. 동시에 도서관 운영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교육이 요구된다.

### 2. <작은도서관>의 CI 설치 여부

#### ■ [질문 2]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상징 로고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문항이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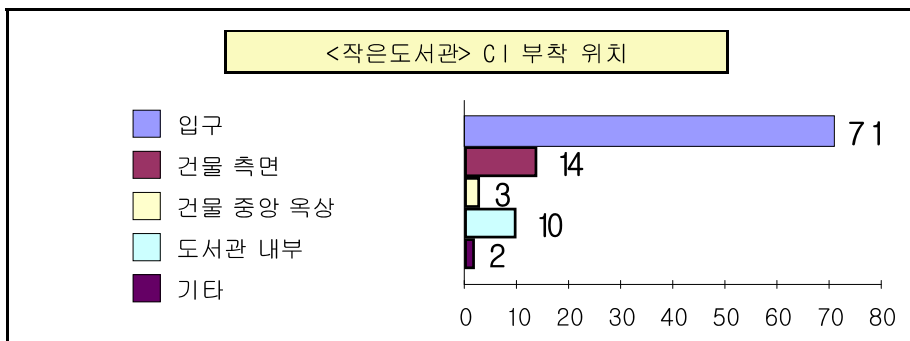
응답의 82%가 <작은도서관> 상징 로고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도서관이 복권기금 조성 지원 수혜 <작은도서관>의 통합적인 이미지 구축에 협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 결과분석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 12월 <작은도서관>의 'CI'(corporate identity)를 발표하였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비전 등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징 로고를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이미지 형성과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조성 지원된 <작은도서관>들이 이 상징 로고를 현판과 안내표지판 등에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의 대다수가 이러한 지침을 따르고 있다.

#### ■ [질문 2-1]의 의미

<작은도서관> 상징 로고의 부착 위치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이다.



#### □ 조사결과

88% 이상이 도서관 외부에 상징 로고를 부착하고 있다. 상징 로고 부착 장소로서 입구, 건물 측면, 도서관 내부, 건물 중앙 옥상, 기타 위치가 각각 71%, 14%, 10%, 3%, 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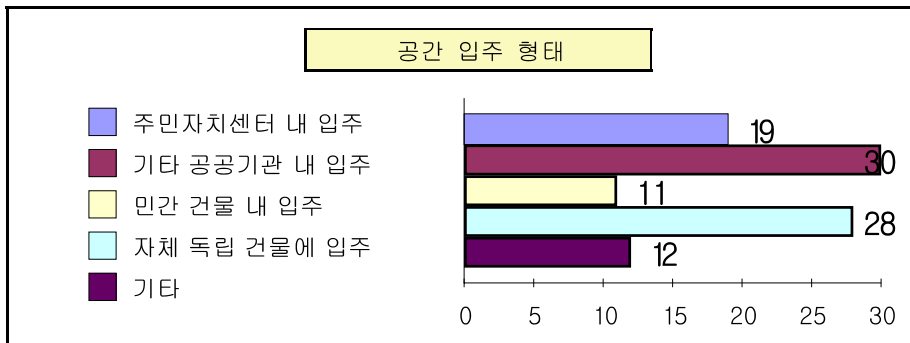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 상징 로고는 주로 각 도서관의 외부 표지판인 옥외 간판, 현판, 출입구 사인물, 창문 사인물 등에 활용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도로 쪽에 설치된 유도간판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 CI는 도서관 이용자뿐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들에게도 <작은도서관>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3. <작은도서관>의 입주환경

#### ■ [질문 3-1]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입주 환경에 대한 설문 문항이다.



#### □ 조사결과

도서관 전용 건물 신축을 포함하여 자체 독립 건물을 확보한 <작은도서관>이 전체의 28%이고, 기존 시설물 내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곳을 모두 합치면 60%에 이른다. <작은도서관>이 입주한 기존 시설물은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이 민간 건물에 비해 다섯 배가 많다. 기타 공공기관 내 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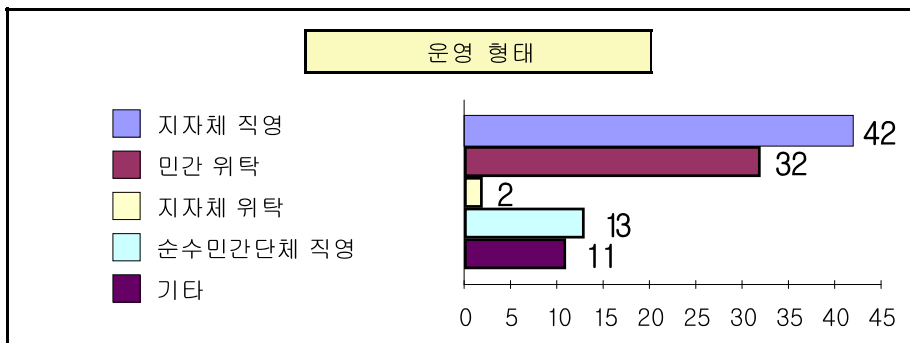
<주민자치센터> 내 입주, 민간 건물 내 입주, 기타 공간 활용이 각각 30%, 19%, 11%, 12%로 나타났다.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 공간 입주 형태는 건물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이 많고, 리모델링할 공간은 공공시설물 내 유휴공간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신축에 드는 부지 구입 및 건축 비용을 줄이고, 리모델링을 할 공간 임대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자체 협력 사업인 ‘2006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의 주요 선정기준이 ‘<작은도서관>의 설치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며, 신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조건으로 지자체의 부지 또는 공간 제공을 조건으로 삼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2006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작은도서관>을 신설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질문 3-2]의 의미

이 설문 문항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 조사결과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이 42%이고, 지자체에서 설립하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곳이 32%로 나타났다. 반대로 민간에서 설립한 후 공립화 된 경우도 2% 있었다. 민간에서 직영하는 곳은 13%에 불과하다. 11%의 기타 답변 중에는 순천시와 같이 민간이 설립 운영 하고 지자체에서 조성비와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 □ 결과분석

지자체 협력사업인 ‘2006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의 특성상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지자체에서 재정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형태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를 따져 보면, ‘민간위탁’ 답변과 ‘기타’ 답변을 합쳐서 43%에 달해 ‘지자체 직영’ 42%와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른다고 분석할 수 있다.

## 4. <작은도서관>의 주변 문화환경

#### ■ [질문 4]의 의미

<작은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 환경에 대한 설문으로서, 인근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가 있는지 물었다.

#### □ 조사결과 (주요 사항을 정리)

열 명 이상의 응답자가 <작은도서관> 주변의 문화예술 유관 기관, 단체, 종사자가 전문하거나 있더라도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주민자치센터> 외에 문화 시설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치면 그 수가 더 늘어나 <작은도서관>이 해당 지역의 거의 유일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인근에 도서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문화의집>, <문화회관>, <복지회관>, 문화체육시설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0%, 40% 가량으로 나타났다.

#### □ 결과분석

광산 지역에 소재한 민영 <작은도서관> 한 곳을 포함한 소수의 <작은도서관>은 주변의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등 기관과, 민예총, 전교조, ‘생명의숲’ 등 단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문화예술인으로는 화백, 사진작가, 시인 등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기록하는 등 주변의 문화예술환경에 대해 숙지하고 교류를 하고 있어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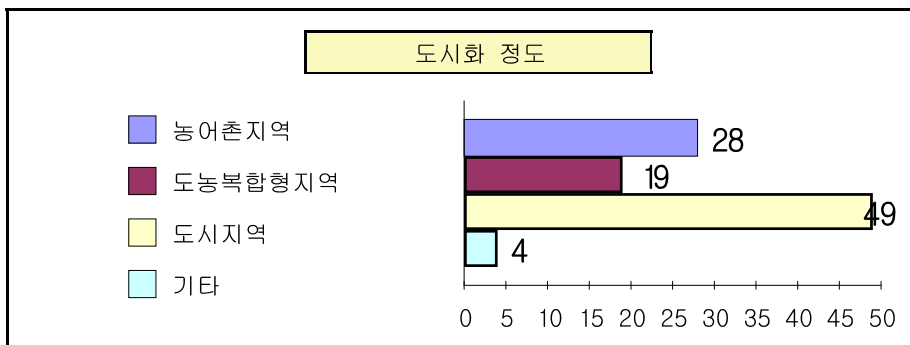
민간의 <작은도서관>운동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작은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인력, 운영예산, 공간, 장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운영

되지만 운영자의 활동가적 철학과 열의, 그리고 네트워킹에 기초한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활동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 직영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신설 <작은도서관>들도 지역의 문화예술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교류하고 연계하여 활동을 벌여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5.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지역특성

### ■ [질문 5-1]의 의미

경제사회학적 환경 조사를 위해 도시화 정도를 물었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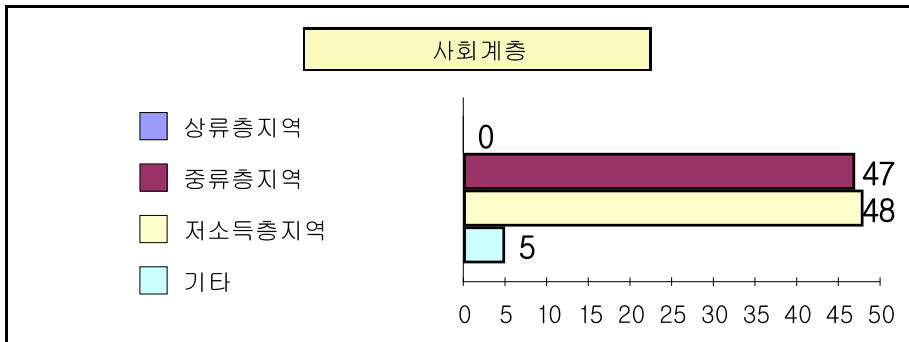
도시 지역이 49%로서 절반에 달하고, 농촌 지역이 28%, 도농복합형 지역이 19%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4%이다.

### □ 결과분석

도시의 인구밀집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경우, 이용률이 높아 공적자원투입 대비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촌의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시급하다는 점과 함께,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의 경우 대형 공공도서관이 설치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같은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질문 5-2]의 의미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 계층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이다.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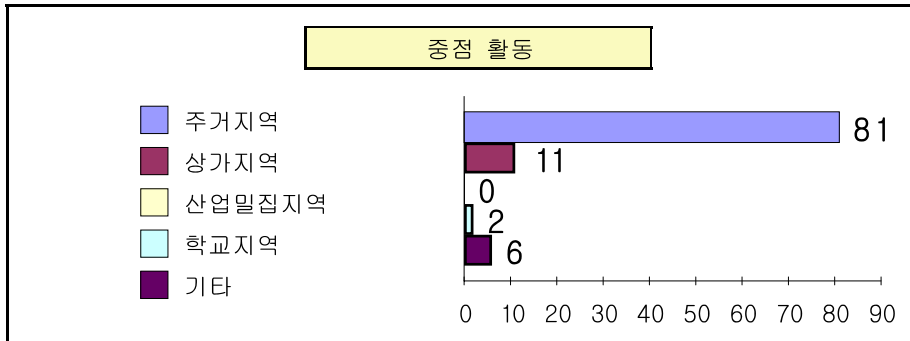
저소득층 및 중류층 지역에 소재한 <작은도서관>이 절대 다수이다. 저소득층지역, 중류층지역, 기타지역이 각각 48%, 47%, 5%이고, 상류층지역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은 없었다.

□ 결과분석

농촌 및 도시의 저소득층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도서관 서비스 및 문화 복지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수요가 높은 중류층 거주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이 설치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서비스를 채워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 [질문 5-3]의 의미

도서관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산업구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설문 문항이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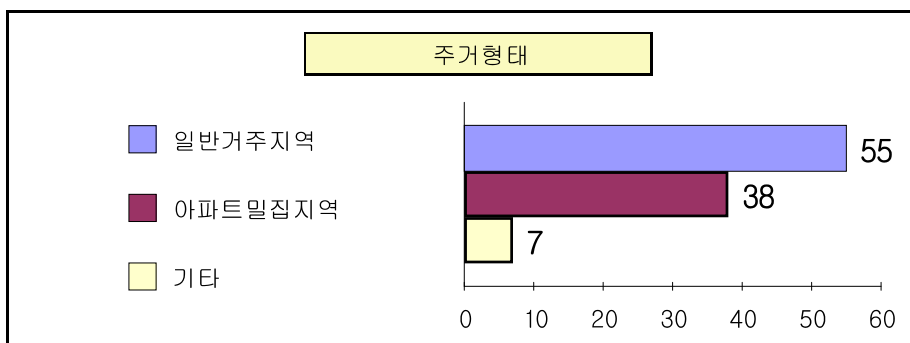
주거지역이 81%에 달해 가장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그밖에 상가지역, 기타지역, 학교지역이 각각 11%, 6%, 2%였고, 산업밀집지역이라고 응답한 곳은 없었다.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은 높은 접근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주거 지역에 주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재지가 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 ■ [질문 5-4]의 의미

작은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의 주거 형태에 대한 질문이다.



#### □ 조사결과

아파트밀집지역이라는 답변이 38%에 이르는 한편, 55%의 <작은도서관>은 다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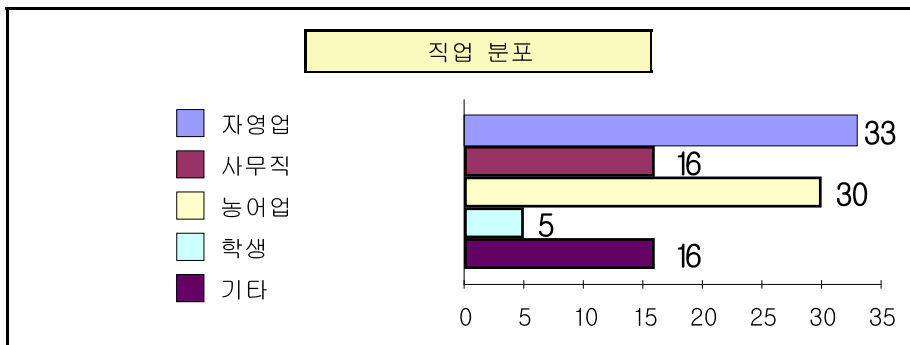
주택 등의 일반거주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은 7%이다.

#### □ 결과분석

인근 주거 형태가 아파트밀집지역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것은 <작은도서관>의 주요 조성 지점이 인구밀집지역임을 반영하며, 이 경우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 등 공공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일반거주지역에는 구도심이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이 포함된다.

#### ■ [질문 5-5]의 의미

작은도서관이 소재한 생활권의 산업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 문항이다.



#### □ 조사결과

자영업과 농어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답변에 일용직 종사자 등이 있다. 자영업, 농어업, 학생 비율이 각각 33%, 30%, 5%이고, 사무직과 기타 답변이 동일하게 1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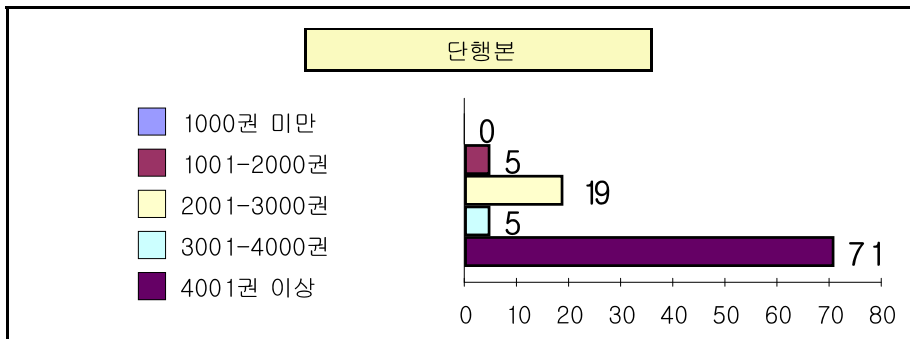
#### □ 결과분석

농어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농어촌 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 소재한 <작은도서관> 생활권의 경제 인구가 반영된 것이다.

## 6. <작은도서관>의 장서 관리

### ■ [질문 6-1]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소장 도서 보유량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문항이다.



### □ 조사결과

71%의 <작은도서관>이 4천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천1권~3천권이 19%이고, 3천1권~4천권과 1천1권~2천권이 동일하게 5%씩이었다. 문고 등록 최소 기준인 장서량 1천권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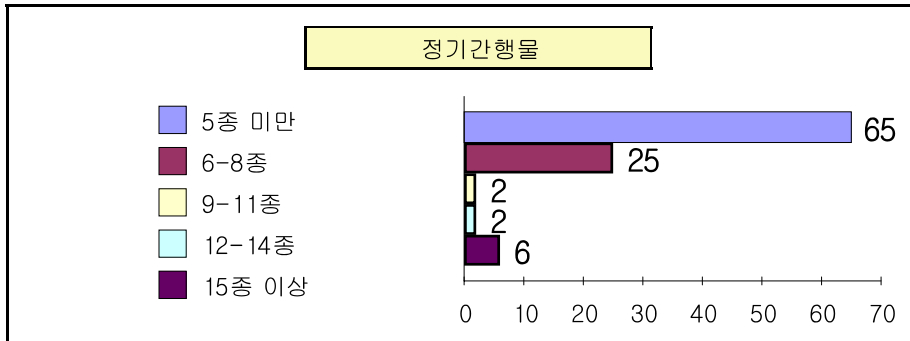
### □ 결과분석

4천권 이하의 장서를 보유한 곳이 29%에 달해 <작은도서관>의 장서 보유 수준이 아직까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서관이 새로 조성된 곳임을 감안하면 이용자 수요와 요청에 따른 도서 구비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지자체 등의 도서구입 예산 확보 여하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콘텐츠 확충 여부도 결정될 것이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

### ■ [질문 6-2]의 의미

정기간행물 소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 문항이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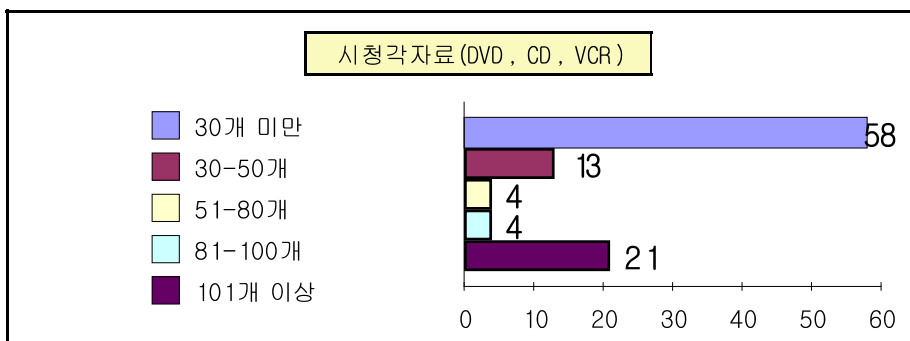
정기간행물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있어도 5종 미만이라 답한 도서관이 65%에 이른다. 한편 15종 이상이라 답변한 곳도 6% 조사되었다. 그밖에 6~8종이 25%이고, 9~11종, 12~14종은 동일하게 2%씩으로 나타났다.

#### □ 결과분석

신설 <작은도서관>이 다수이고 안정적인 도서구입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수의 정기간행물을 갖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기간행물 구비 역시 전반적인 장서 확충과 함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남는다.

#### ■ [질문 6-3]의 의미

시청각자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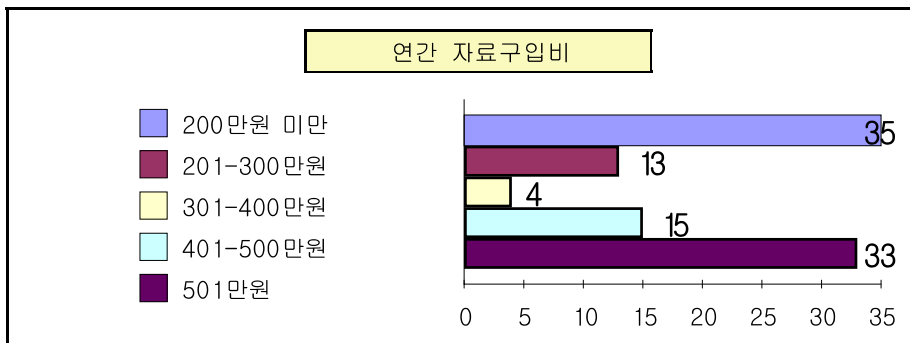
시청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30점 만이라고 답한 곳이 58%로 절반이 넘었다. 101점이상, 30~50점, 51~80점, 81~100점이라고 답한 곳이 각각 21%, 13%, 4%, 4%로 나타났다.

#### □ 결과분석

디비디, 씨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 및 음악 자료 구비를 통해 주민들이 도서관에 보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도서관 내에서 이러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영상 및 음향 장비와 설비는 영화상영회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작은도서관>이 복합적인 주민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볼 때 조사 대상 <작은도서관>들도 시청각자료와 열람용 설비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찾아오게 만들 적극적인 서비스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 ■ [질문 6-4]의 의미

연간 자료구입비 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이다.



#### □ 조사결과

도서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200만원 미만으로 책정된 도서관이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이 넘는 도서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도서관은 33%이다. 401~5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이 각각 15%, 13%, 4%로 확인되었다.

## □ 결과분석

도서구입예산 확보 수준의 양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자료구입비가 500만원 이상인 곳은 설립 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로서 공립도서관의 분관 체제로 진입한 공립 <작은도서관>과 활성화 되어 있는 일부 민영 <작은도서관>들이다. 신설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도서구입예산 확보가 시급하게 요청된다.

## ■ [질문 6-5]의 의미<sup>11)</sup>

성인도서와 아동도서 각각에 대한 장서소장비율을 물었다.

## □ 조사결과 (장서소장비율-주요 내용 정리)

성인도서는 소설 비율이 높았다. 성인 이용자를 위한 장서 80% 이상을 소설류로 구성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성인도서보다는 아동도서를 더 많이 갖추고 있는 도서관 비율이 높았다. 아동도서 소장 비율은 동화책, 그림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동도서 중 학습만화 소장 비율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도서관들도 나타났다. 아동도서의 40% 이상이 학습만화로 채워져 있다고 답한 곳도 있었다. 아동을 위한 도서 중 학습만화 비율이 10%이상이라고 답한 곳은 모두 60%에 달했다.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들은 성인 이용자에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류를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이용자 계층에 따라서 아동서 비율을 높이거나 성인도서 비율을 높이고 있었다. 한편 아동서 가운데 학습만화 소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사회 아동 독서 실태를 <작은도서관>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작은도서관>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양서의 수서가 요구된다.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소장도서 정보를 전산화하지 않은 도서관은 장서소장비율을 묻는 문항에 무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도서구입은 이용자층을 예상하거나 분석하여 계획적으로 수서하여 구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서 등의 전문가의 지원과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11) [질문 6-5] 이하는 서술형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한 통계가 불가능하여 각각의 응답 중 중요한 것을 정리하여 분석했다.

## 7. <작은도서관>의 공간 구성

### ■ [질문 7]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공간 구성에 대해 물었다.

#### □ 조사결과 (주요 내용 정리)

자료 열람 공간과 대출 부스와 같이 기본적인 서비스 공간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작은도서관>들 대부분이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기본 서비스 공간 이외의 다양한 기능성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활동이 가능한 별실, 주민 참여를 의도한 소모임방, 휴게실, 주방, 탕비실, 사무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강좌나 회의 등을 위한 비교적 큰 강당 개념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도 있었다. 시청각 자료의 개인 열람 공간을 소규모로 마련한 곳이 있는가 하면, 영화상영회 등이 가능한 영상시설을 갖추고 필요 시 서가 등 집기를 치울 수 있도록 공간을 유연하게 이용하는 곳도 눈에 띄었다. 다양한 이용자층을 배려하여 어린이전용공간, 영유아공간, 노인사랑방, 청소년공간을 따로 마련한 도서관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어린이 이용자를 위한 유희 요소로서 다락방, 숨는방 등을 갖춘 도서관들도 있었다. 인터넷 사용을 위해 컴퓨터실을 갖추거나 독서실 개념의 공부방을 따로 마련한 도서관도 있었다. 농어촌 지역의 한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복사기, 팩스, 프린터 등을 구비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었다.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은 제한된 규모의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많은 <작은도서관>이 열람 공간 이외에 소모임방,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을 마련해 다양한 활동을 소화할 수 있는 기능적인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공간 구성 및 가구 배치가 요청된다. 좁은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가를 벽부형으로 배치하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종래의 중앙 배열식 서가 배치는 공간 활용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각실을 가벽으로 구획하면 좁은 공간을 더욱 답답해 보이게 할 수도 있다.

게시판, 휴게공간, 카페공간을 마련한 곳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작은도서관>이 개인적 독서에만 할애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만남, 소통, 대화가 있는 ‘지역민 사

랑방'을 지향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서가와 함께 소파, 좌탁, 입탁 등을 갖추어 각자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람 공간이 도서관의 가장 큰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작은도서관>이 시험공부를 위한 독서실과 차별적인 독서문화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한다.

<작은도서관>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영유아 공간을 마련하여 아기를 동반한 부모들이 불편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도서관이 다수 확인되었다.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경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유희 요소로서 돌림계단, 숨는공간, 다락방, 놀이방 등을 마련한 곳들이 있었다. 한편 '인터넷 사용 공간'을 설치한 도서관이 다수 있었는데,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의 경우 부모들의 요청으로 제한적으로만 개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은 인터넷공간을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도서자료 검색용 컴퓨터 이외 별도의 컴퓨터실은 <작은도서관>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판단하기 어렵다.

지역민 커뮤니티 활동,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식사 준비, 운영 인력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탕비실이나 주방을 마련한 곳이 많아 <작은도서관>의 주민생활밀착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에 유기농텃밭, 별 관측 공간, 할머니사랑방 등 지역 특성 또는 운영자의 철학이 반영된 공간도 확인되어,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도서관 공간 구성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8.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규모

### ■ [질문 8-1]의 의미

도서관의 주이용자층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설문 문항이다.

### □ 조사결과 (이용 계층-주요 내용 정리)

주이용자층으로 아동을 1순위로 꼽은 도서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이 주부, 청소년 순이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 결과는 아동, 주부,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 □ 결과분석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권 단위 <작은도서관> 서비스의 최대 수혜자는 어린이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더욱 다양한 계층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 [질문 8-2]의 의미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물었다.

#### □ 조사결과 (1일 평균 이용자 수-주요 내용 정리)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천명을 상회하는 곳을 제외하고 평균을 냈을 때, 하루 평균 <작은도서관> 이용자는 7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명 이상이라는 답변도 열 건 넘게 확인되었다. 주중보다는 주말에, 학기중보다는 방학 때 이용률이 높다는 보충 의견이 있었다.

#### □ 결과분석

일일 이용자 수가 평균 70명에 이르는 분석 결과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호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질문 8-3]의 의미

도서 대출권수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이다.

#### □ 조사결과 (1일 평균 대출권수-주요 내용 정리)

1일 평균 대출권수가 천권을 상회하는 곳을 제외하고 평균을 냈을 때, <작은도서관> 대출권수는 하루 평균 80권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일 평균 대출권 수가 200권 이상이라는 답변이 10건 가까이 확인되었다. 장서 부족과 도서관리프로그램 미설치 등 준비 부족으로 대출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대출 보다 열람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더 높다는 소수 응답이 있었다.

#### □ 결과분석

도서 대출이 하루 평균 80건을 넘어 신간 도서와 양서의 지속적인 구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서관입비 예산 확보가 <작은도서관> 활성화의 중요한 조건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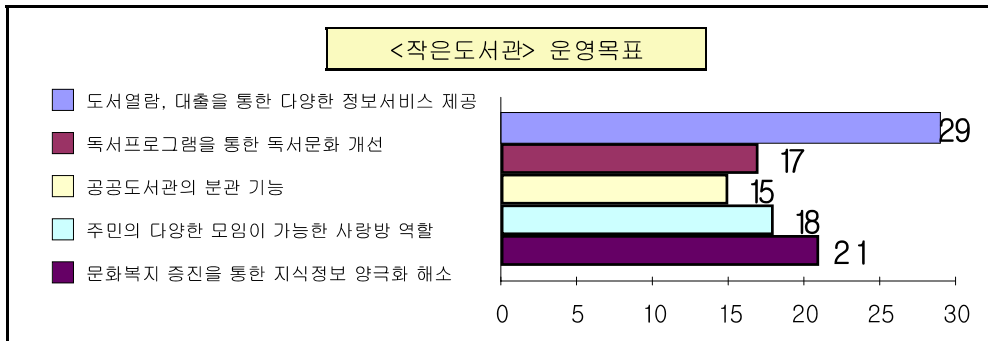


## 제2절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1. <작은도서관>의 운영목표 및 주요 업무

#### ■ [질문 2]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운영목표를 묻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이 운영인력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운영인력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는 <작은도서관>의 정체성과 특성화를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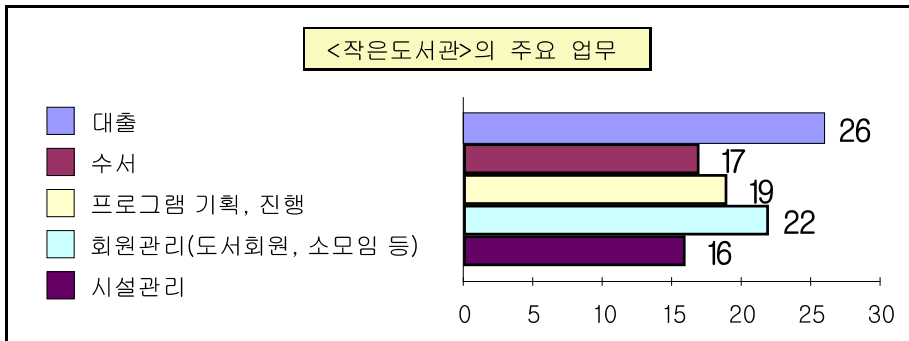
도서열람, 대출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이 29%, 문화복지 증진을 통한 지식정보 양극화 해소가 21%, 주민의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사랑방 역할이 18%, 독서프로그램을 통한 독서문화 개선이 17%, 공공도서관의 분관 기능이 15%로 나왔다.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운영목표에 대한 운영인력의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도서열람과 대출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29%)과 문화복지 증진을 통한 지식정보 양극화 해소(21%)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이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하며, 아울러 정보문화의 소외지역과 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차원의 지원이 <작은도서관>의 또 다른 역할임을 상기시킨다.

#### ■ [질문 3]의 의미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인력이 처리하는 주 업무를 묻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역할수행의 다양함 속에서 어느 역할이 중요한가에 따라 지역과 환경에 맞는 <작은도서관>의 특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



#### □ 조사결과

대출이 26%, 회원관리(도서회원, 소모임 등)가 22%,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이 19%, 수서가 17%, 시설관리가 16%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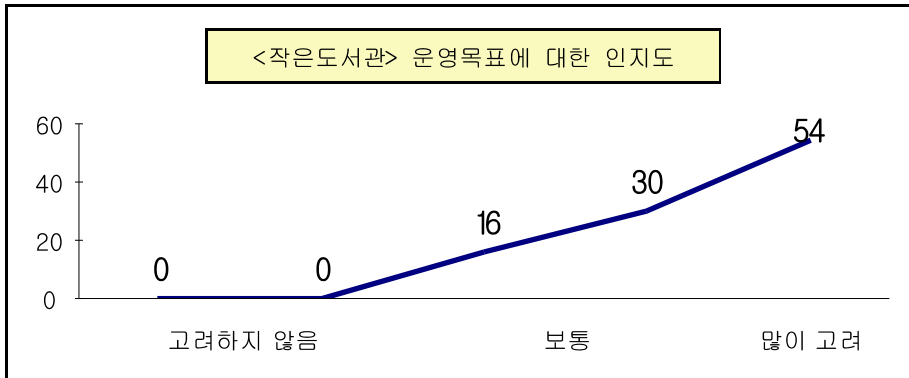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출(26%)과 회원관리(22%)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 결과 역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함을 시사한다.

## 2.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내부 소통구조

#### ■ [질문 4-1]의 의미

운영인력이 업무수행에 있어 <작은도서관>의 운영목표를 얼마나 고려하는가를 묻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의 현 운영이 설립취지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현실적인 운영이 <작은도서관>의 설립취지와 부합될수록 운영의 적실성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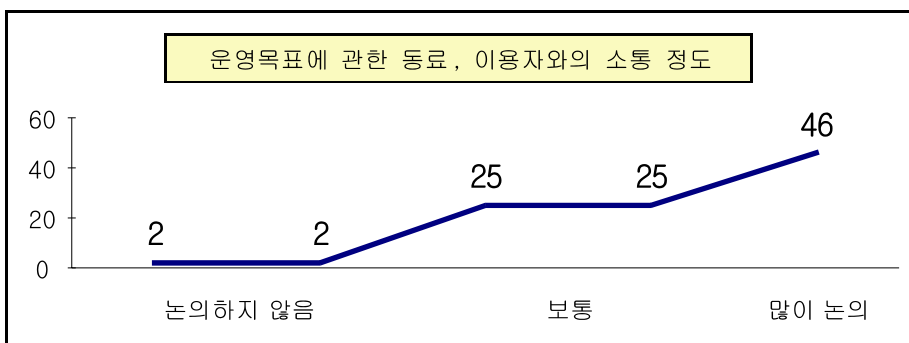
‘많이 고려한다’가 54%, ‘어느 정도 고려한다’가 30%, ‘보통’이 16%, ‘조금 고려한다’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가 각각 0%로 나왔다.

#### □ 결과분석

운영인력의 업무수행에 있어 <작은도서관>의 운영목표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많이 고려한다’(54%)와 ‘어느 정도 고려한다’(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운영목표와 설립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질문 4-2]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운영목표를 동료 및 이용자들과 어느 정도 소통하는가를 묻는 이유는 운영인력 사이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운영인력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운영상의 혼선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 □ 조사결과

‘많이 논의한다’가 46%, ‘어느 정도 논의한다’와 ‘보통’이 각각 25%, ‘조금 논의한다’와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가 각각 2%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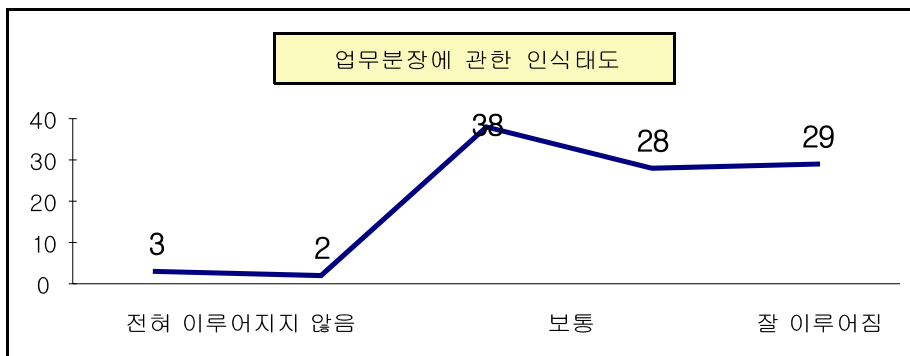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운영목표에 관한 운영인력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많이 논의한다(46%)와 어느 정도 논의한다(25%) 그리고 보통(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운영인력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작은도서관>업무수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작은도서관>의 업무분장

#### ■ [질문 5-1]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업무분장에 대한 운영인력의 인식태도를 묻는 이유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질수록 운영인력 사이의 협업관계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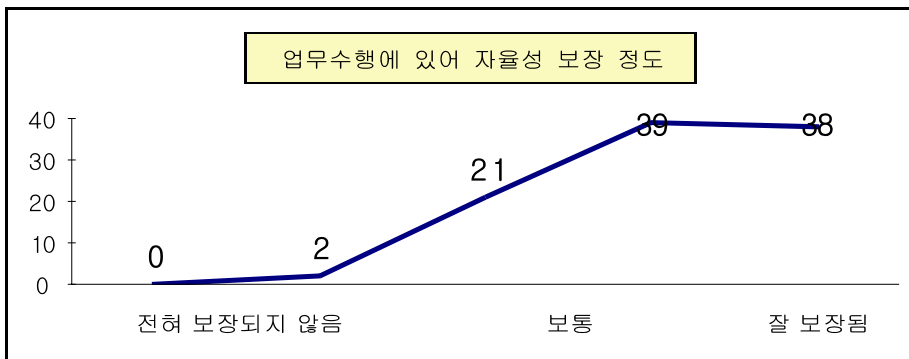
‘보통’이 38%, ‘잘 이루어진다’가 29%,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가 28%,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3%, ‘조금 이루어진다’가 2%로 나왔다.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업무분장에 대한 운영인력의 인식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통’(38%)과 ‘잘 이루어진다’(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업무분장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는 업무수행의 능률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현재의 운영인력이 갖는 높은 만족도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질문 5-2]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운영인력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를 묻는 이유는 업무수행의 능률을 묻기 위함이다. 지자체나 상급 도서관의 관계가 유기적이고 민주적일수록 <작은도서관>의 업무수행이 갖는 능률은 높아진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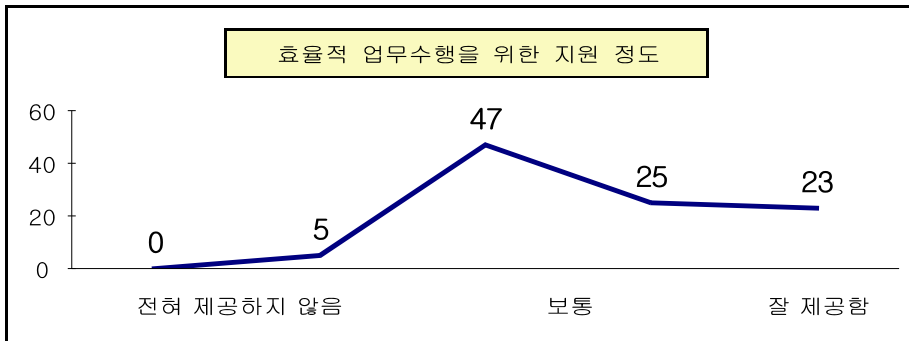
‘어느 정도 보장된다’가 39%, ‘잘 보장된다’가 38%, ‘보통’이 21%, ‘조금 보장된다’가 2%,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가 0%로 나왔다.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운영인력의 자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보장된다’(39%)와 ‘잘 보장된다’(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보장(77%)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작은도서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능률이 잘 확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질문 5-3]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지자체나 상급 도서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묻는 이유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물적 토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지자체나 상급 도서관의 지원이 많을수록 <작은도서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다양해지고 활발해진다.



#### □ 조사결과

‘보통’이 47%, ‘어느 정도 제공된다’가 25%, ‘잘 제공된다’가 23%, ‘조금 제공된다’가 5%,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가 0%로 나왔다.

#### □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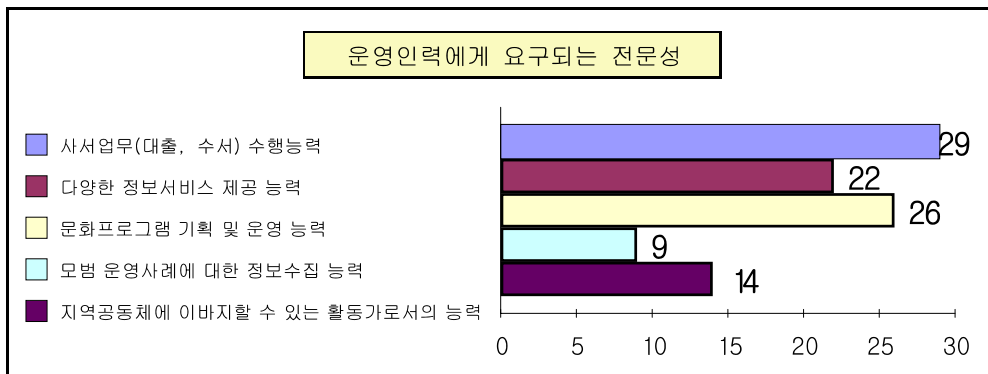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통’(47%)과 ‘어느 정도 제공된다’(25%)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사실은 지자체나 상급 도서관의 지원이 설립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속적인 지원체계의 안정화가 필요함을 상시시킨다.

## 4.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

#### ■ [질문 6-1]의 의미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묻는 이유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작은도서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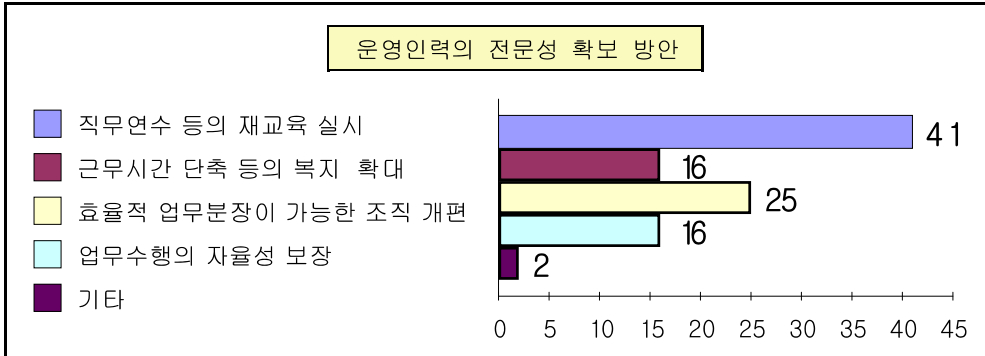
사서업무(대출, 수서) 수행능력이 29%,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이 26%,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능력이 22%, 지역공동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활동가로서의 능력이 14%, 모범 운영사례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이 9%로 나왔다.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서업무 수행 능력( 29%)과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2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일차적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전문성 역시 <작은도서관>의 주요 역할임을 상기시킨다.

#### ■ [질문 6-2]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묻는 이유는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다.



#### □ 조사결과

직무연수 등의 재교육 실시가 41%, 효율적 업무분장이 가능한 조직 개편이 25%, 근무시간 단축 등의 복지 확대와 업무수행의 자율성 보장이 각각 16%, 기타가 2%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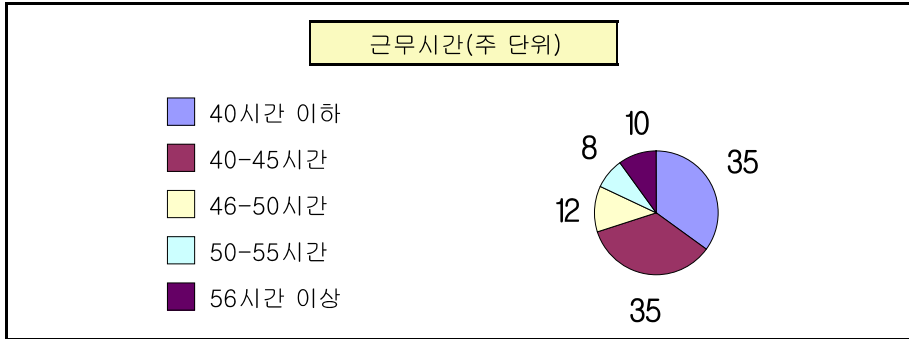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직무연수 등의 재교육 실시(41%)와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가능한 조직 개편(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현 운영인력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 5.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복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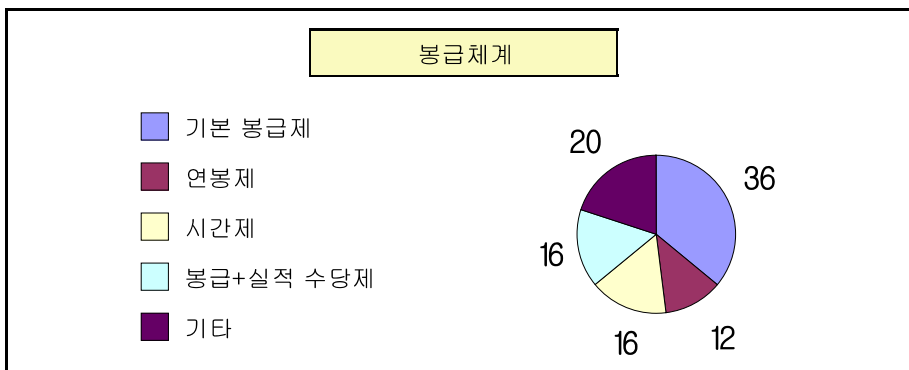
#### ■ [질문 7]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게 보장되는 복지현황을 묻는 이유는 운영인력의 신분보장과 업무수행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운영인력의 복지상태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도서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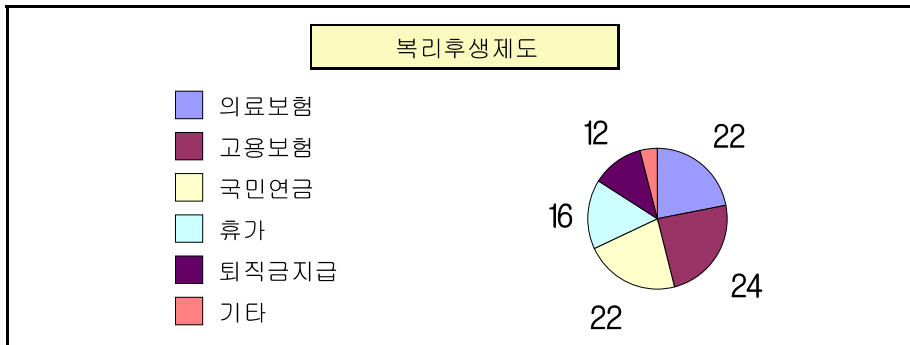
#### □ 조사결과

40시간 이하와 40-45시간이 각각 35%, 46-50시간이 12%, 56시간 이상이 10%, 50-55시간이 8%로 나왔다.



#### □ 조사결과

기본 봉급제가 36%, 기타가 20%, 시간제와 봉급+ 실적 수당제(보너스)가 각각 16%, 연봉제가 12%로 나왔다.



#### □ 조사결과

고용보험이 24%,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각각 22%, 휴가가 16%, 퇴직금지급이 12%, 기타가 4%로 나왔다.



## 제3절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1.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현황

#### ■ [질문 1]의 의미

<작은도서관>운영에 있어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개별 도서관들의 프로그램 유사성과 독창성을 구분지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반을 위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조사결과

| 대구분          | 소구분      | 프로그램 예시                                                                                      |
|--------------|----------|----------------------------------------------------------------------------------------------|
| 독서문화 개선 프로그램 | 독서모임     | 주부독서모임/어른독서회/엄마그림책공부/책또래별 교실/동화를읽는어른들의모임                                                     |
|              | 책읽어주기    | 책읽어주기(이야기방)/이야기극장(그림책을 슬라이드로 찍어 읽어주기)/영어동화책 읽어주기/동화구연/유치부그림책읽어주기                             |
|              | 글쓰기      | 글쓰기모임/독후감상문대회                                                                                |
|              | 강독       |                                                                                              |
|              | 도서전시     | 작은전시회/주제별도서전시/그림책작가소개및활동지전시/                                                                 |
|              | 기타       | 월별 독서퀴즈대회/저소득아동 독서교실/지은이 만남/마을학교/테마기행/이동도서관 운영/다독자선정및시상/도서관자원활동가교육/책놀이/길거리도서관/어린이집과연계한‘책의여행’ |
| 창작육구 실현 프로그램 | 공연       | 인형극/마술카페                                                                                     |
|              | 제작       | 북아트/컴퓨터영상교육/점토클레이아트/종이접기/풍선아트/폐품활용/칼라믹스/레고다타                                                 |
|              | 경연(자체행사) |                                                                                              |

|              |              |                                                                             |
|--------------|--------------|-----------------------------------------------------------------------------|
| 문화육구 유발 프로그램 | 공연 관람        | 체험학습/현장학습                                                                   |
|              | 전시 관람        |                                                                             |
|              | 영상물 관람       | 영화상영                                                                        |
| 교육 프로그램      | 소양교육(인문학)    | 어린이한자교실/경제금융교실                                                              |
|              | 문화강좌         | 서예/종이접기/POP 예쁜글씨교실/한지공예/어린이예절교실/화법및화술/역사교육/도자기페인팅/요가/천연비누만들기/토피어리만들기/토요역사학교 |
|              | 가정문화(육아, 아동) | 부모역할훈련/일일도서관현장학습/식품안전강좌및식사회/외국인주부한국적응프로그램/외국인주부자녀교육                         |
|              | 단기강좌(어학, 논술) | 중국어강좌/영어강좌/한문/주산                                                            |
|              | 상담           | 독서및학습지도상담/심리상담                                                              |

#### □ 결과분석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독창적이면서도 지역의 실정에 걸맞은 프로그램도 여럿 눈에 띄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동화읽어주기가 아니라 그림책을 슬라이드로 찍어서 보여주는 ‘이야기극장’ 프로그램은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인 주부 및 자녀 프로그램 등은 지역문화와 지역실정을 감안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은이(저자) 초청’ 프로그램은 <작은도서관>에서 쉽사리 하기 힘든 프로그램임에도 몇몇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14개관 정도는 프로그램 기획이 전무한 상태이다.

#### ■ [질문 1-1]의 의미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실시 프로그램 중에서 운영과 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알 수 있다.



## □ 조사결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구연동화/(영어)동화책읽어주기’가 14개관, ‘영화상영’ 7개관, ‘어학 및 논술, 한자 등 교육프로그램’ 6개관, ‘다양한 독서모임’과 ‘종이접기’가 4개관이었고, 그 외에는 풍선아트나 클레이아트, 독서퀴즈대회나 독서 감상문대회 등이 좋은 호응을 얻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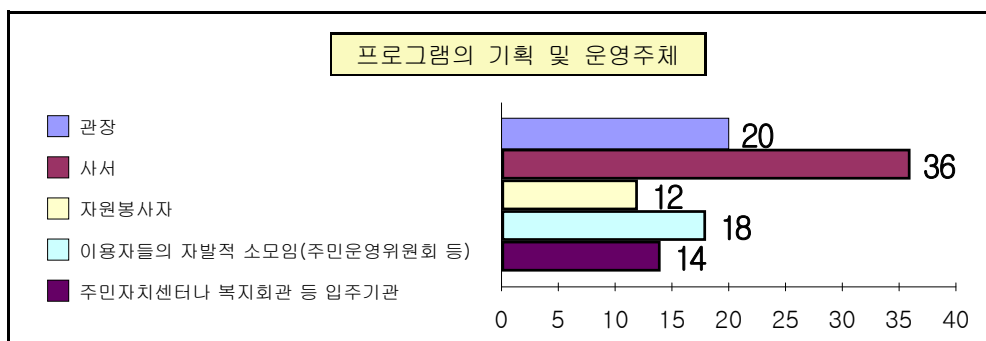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지역주민들에게 의미가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주민들이 원하고 나아가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민들이 가장 큰 호응을 보이는 프로그램을 눈여겨보면서 세대별, 지역별 차이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2.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주체

## ■ [질문 2]의 의미

<작은도서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 □ 조사결과

‘사서’가 36%로 가장 많았고, ‘관장’과 ‘이용자들의 자발적 소모임’이 각각 20%와 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입주기관’이 14%, ‘자원봉사자’가 1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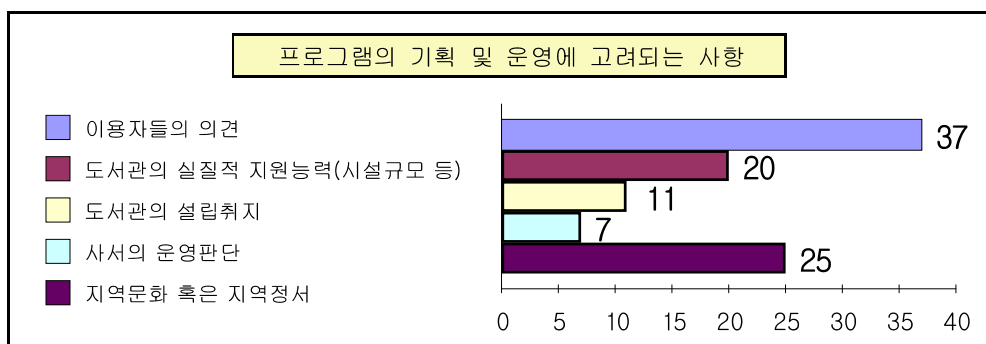
#### □ 결과분석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 ‘사서’와 ‘관장’이 가장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소모임’ 등은 30%에 그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 중심 혹은 주민 밀착적인 프로그램이 정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3.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

#### ■ [질문 3]의 의미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획과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 □ 조사결과

‘이용자들의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고, ‘지역문화 혹은 지역정서’가 25%, ‘도서관의 실질적 지원능력’이 20%를 차지했다. 그리고 ‘도서관의 설립취지’가 11%, ‘사서의 운영 판단’이 7%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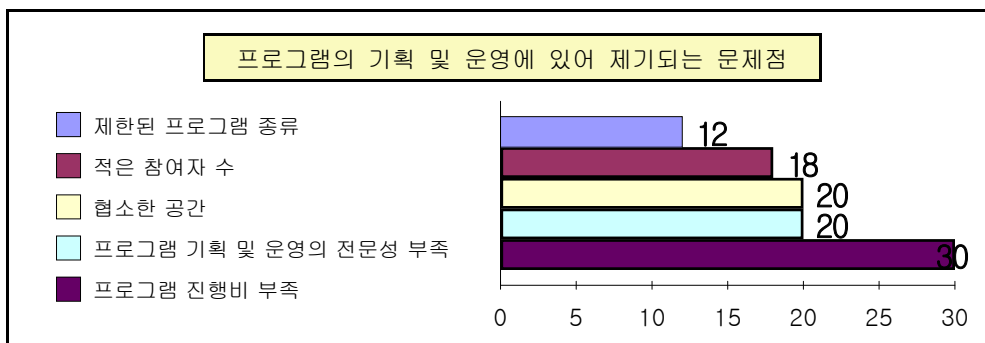
## □ 결과분석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물음에서 ‘이용자들의 의견’과 ‘지역문화 혹은 지역정서’가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주체’에 대한 물음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려하되 직접적인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는 ‘사서’나 ‘관장’, 그리고 ‘입주기관’ 등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

### ■ [질문 4]의 의미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으며, 나아가 만약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 조사결과

‘프로그램 진행비 부족’이 30%,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 부족’과 ‘협소한 공간’이 각각 20%, ‘이용자들의 참여 부족’이 18%, ‘제한된 프로그램 종류’가 12%로 나왔다.

## □ 결과분석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프로그램 진행비 부족’이었다. 이는 현재 지원 예산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 부족’과 ‘협소한 공간’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부족’의 문제는 사서나 관장이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거나 다른 <작은도서관>과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협소한 공간’의 문제 역시 <작은도서관>의 공간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문화의 집’이나 ‘주민센터’ 등과 연계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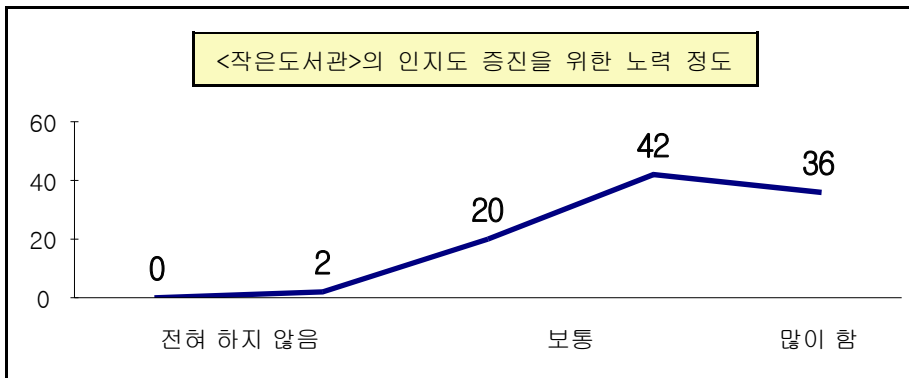


## 제4절 <작은도서관> 이용자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1. <작은도서관>의 인지도 증진을 위한 노력

#### ■ [질문 1]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정도를 묻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지역민이 찾아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 □ 조사결과

‘어느 정도 한다’가 42%, ‘많이 한다’가 36%, ‘보통’이 20%, ‘조금 한다’가 2%, ‘전혀 하지 않는다’가 0%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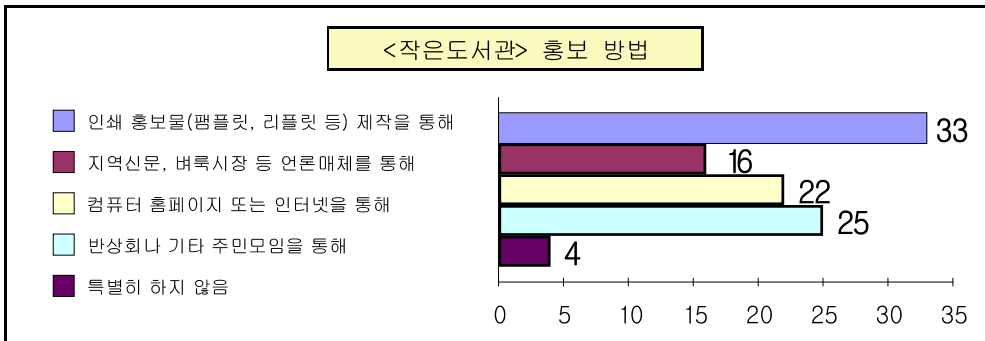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한다(42%)’와 ‘많이 한다’(36%)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 운영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자 개발에 나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작은도서관> 홍보 방법

### ■ [질문 2]의 의미

<작은도서관>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들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작은도서관>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의 개발은 이용자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 □ 조사결과

인쇄 홍보물(팸플릿, 리플릿 등) 제작을 통해가 33%, 반상회나 기타 주민모임을 통해가 25%, 컴퓨터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가 22%, 지역신문이나 벼룩시장 등 언론매체를 통해가 16%, 특별히 하지 않는다가 4%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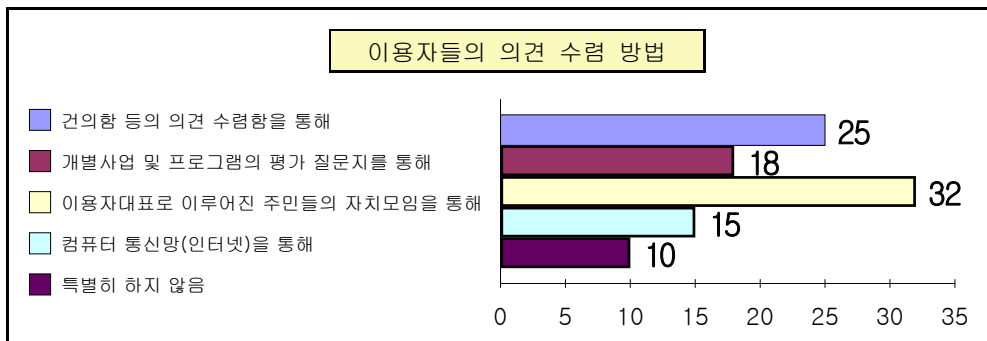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인쇄 홍보물의 제작(33%)과 반상회나 기타 주민모임(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작은도서관> 홍보에 있어 자체 제작한 인쇄 홍보물이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방법 및 만족도 조사

#### ■ [질문 3]의 의미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의 의견수렴방식을 묻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작은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때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 조사결과

이용자대표로 이루어진 주민들의 자치모임을 통해가 32%, 건의함 등 의견 수렴함을 통해가 25%, 개별사업 및 프로그램의 평가 질문지를 통해가 18%, 컴퓨터 통신망(인터넷)을 통해가 15%, 특별히 하지 않음이 10%로 나왔다.

#### □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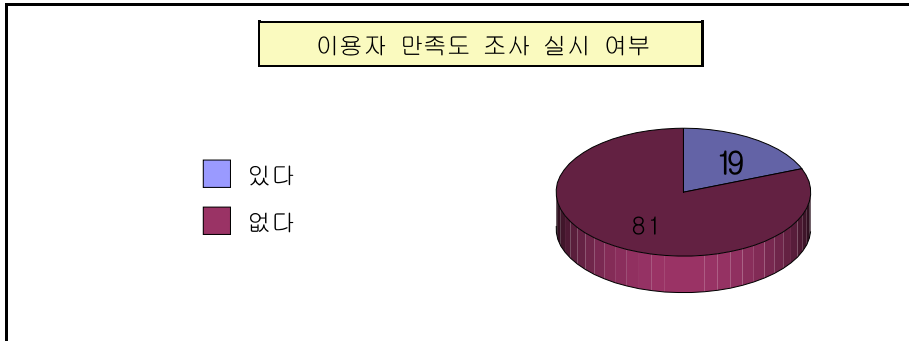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의 의견수렴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용자대표로 이루어진 주민들의 자치모임(32%)과 건의함 등 의견 수렴함(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이용자들의 직접 참여가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 [질문 4]의 의미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여부를 묻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사업의 피드백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는 운영주체와 이용자 사이의 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때 가능할 수 있다.



#### □ 조사결과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9%, 조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1%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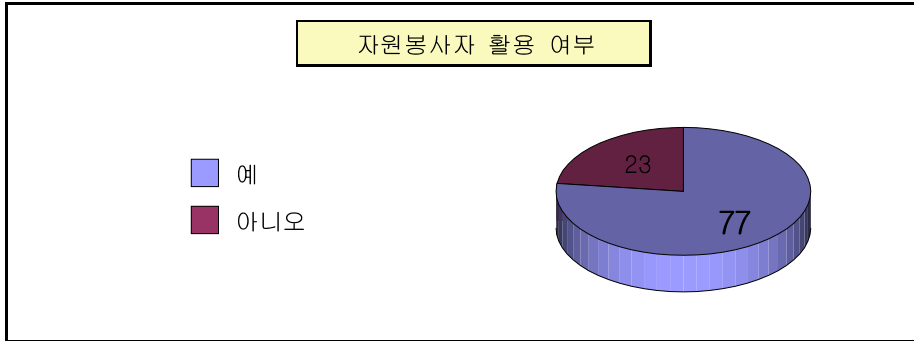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81%가 없다고 응답한 것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참여했는가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는 그만큼 불투명하게 된다.

## 4.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및 관리체계

### ■ [질문 5-1]의 의미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이 전적으로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의 이용자는 단순히 시설만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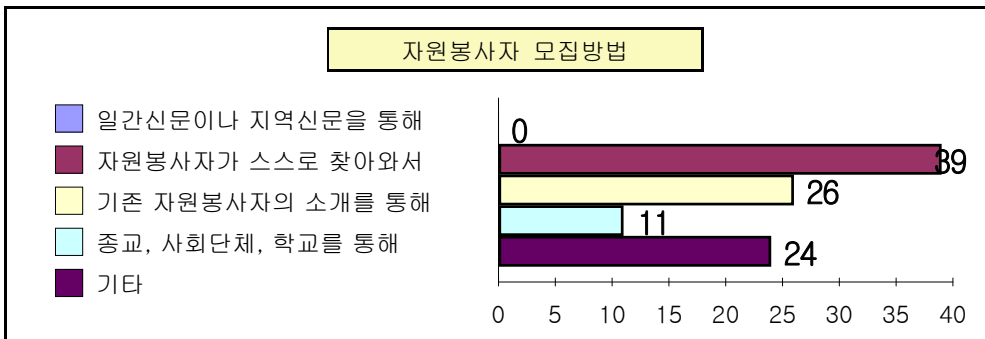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예’라는 응답이 77%, ‘아니오’라는 응답이 23%로 나왔다.

#### □ 결과분석

무려 77%에 달하는 <작은도서관>이 현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취지에 적절히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 ■ [질문 5-3]의 의미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확보방안을 묻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다양한 자원봉사자 확보방안이 모색되고 실행될수록,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의 확보는 손쉬워진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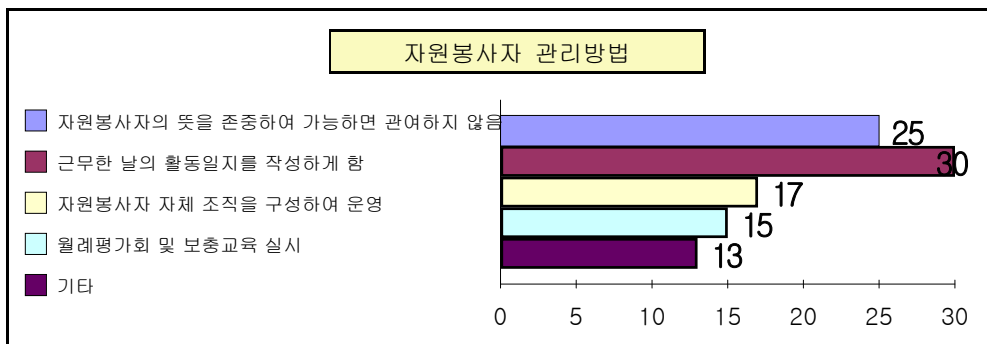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찾아와서가 39%, 기존 자원봉사자의 소개를 통해가 26%, 기타가 24%, 종교 및 사회단체 혹은 학교를 통해가 11%,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을 통해가 0%로 나왔다.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 모집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찾아와서(39%)와 기존 자원봉사자의 소개를 통해(26%)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인력충원이 주로 자원봉사자의 자발성 및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 ■ [질문 5-4]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 관리방법을 묻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이 취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관리체계가 잘 구축될수록 자원봉사자 활동의 지속성이 보다 잘 보장된다.



#### □ 조사결과

근무한 날의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함이 30%, 자원봉사자의 뜻을 존중하여 가능하면 관여하지 않음이 25%, 자원봉사자 자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함이 17%, 월례평가회 및 보충교육 실시가 15%, 기타가 13%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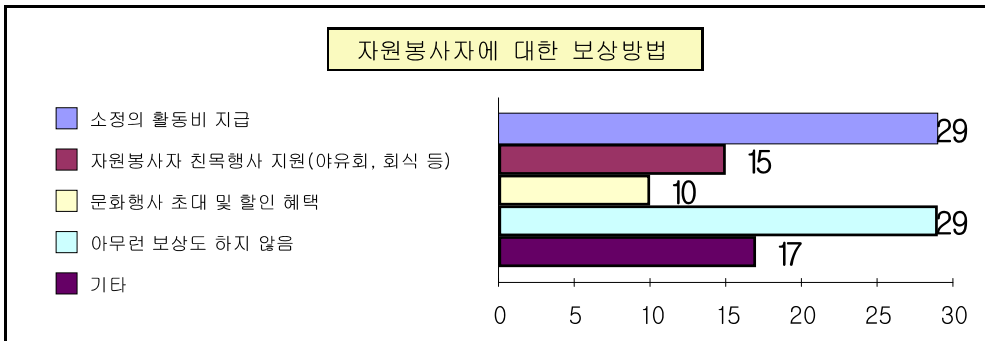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 관리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근무한 날의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함(30%)과 자원봉사자의 뜻을 존중하여 가능하면 관여하지 않음(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활동일지를 통한 자원봉사자의 관리가 가장 일반적임을 의미하며, 자원봉사자의 자발성을 그대로 믿는 경우도 하나의 관리방법임을 보여준다.

#### ■ [질문 5-5]의 의미

<작은도서관>이 취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방법을 묻는 이유는 자원봉사자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자원봉사자의 지속적 활동을 유인할 수 있다.



#### □ 조사결과

소정의 활동비 지급과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음이 각각 29%, 기타가 17%, 자원봉사자 친목행사 지원(야유회, 회식 등)이 15%, 문화행사 초대 및 할인 혜택이 10%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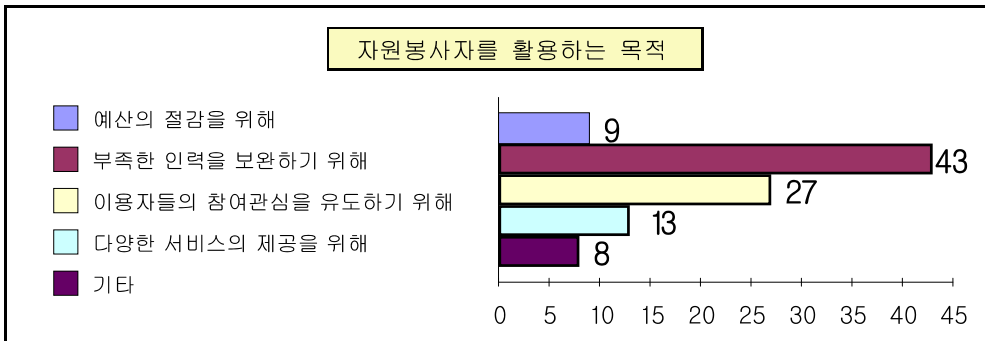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소정의 활동비 지급(29%)과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음(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일반적인 <작은도서관>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볼 때, 소정의 활동비 지급이라는 응답은 이채롭다.

#### ■ [질문 5-6]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용목적을 묻는 이유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에 있어 자원봉사자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활용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 □ 조사결과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가 43%, 이용자들의 참여관심을 유도하기 위해가 27%,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가 13%, 예산의 절감을 위해가 9%, 기타가 8%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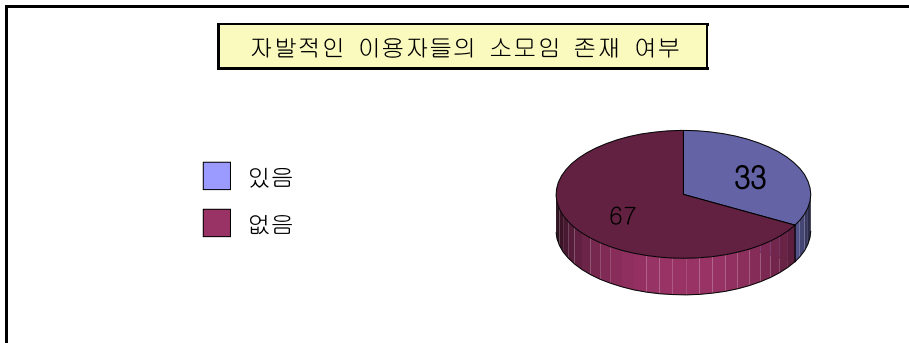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용목적에 묻는 질문에 대해, 부족한 인력의 보완(43%)과 이용자들의 참여관심 유도(27%)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작은도서관>이 담당해야 할 다양한 업무와 기능에 있어 운영인력이 겪는 과부하를 반영한다.

## 5.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의 소모임 활동 상황

#### ■ [질문 6-1]의 의미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의 소모임 활동 여부를 묻는 이유는 주민참여와 문화자치라는 <작은도서관>의 또 다른 설립취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용자들의 소모임이 활발할수록 <작은도서관>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조사결과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발적인 이용자들의 소모임이 있다는 응답이 33%, 없다는 응답이 67%로 나왔다.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의 자발적 소모임 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7%에 달하는 <작은도서관>이 '없다'고 응답한 것은 주민참여와 문화자치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설립취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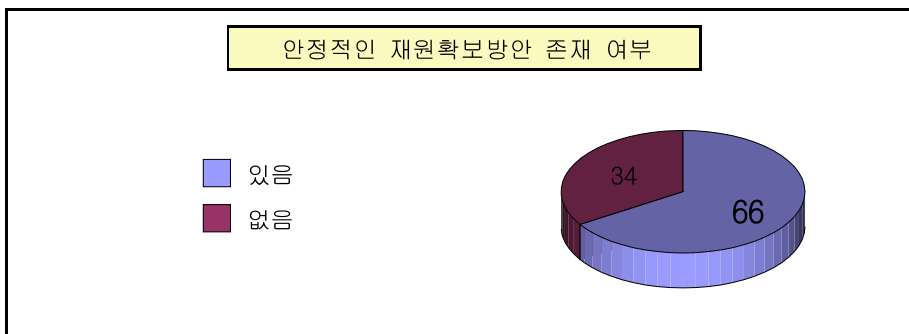


## 제5절 <작은도서관> 재정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1. 안정적인 재정확보방안 확보

#### ■ [질문 1]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방안을 묻는 이유는 향후 <작은도서관>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지속적 운영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 □ 조사결과

조사된 <작은도서관> 가운데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있는 곳은 66%였고, 34%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방안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방안을 확보한 곳의 수가 많았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정확보방안이 없는 곳이 34%나 되어 지원이 시급한 실정인 곳도 많았다.

#### ■ [질문 1-1]의 의미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있는 곳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 □ 조사결과

조사 결과, 지자체 지원이 59%, 민간 지원이 24%, 도서관 자체적 조달이 17%로 나타났다. 지자체 지원은 시비, 군비, 지자체 도서관의 분관으로서의 지원, 지자체 복지관 예산 지원 등이었고 민간 지원으로는 도서관 발전기금, 향우회, 기업, 운영위원회, 재단 후원 등이었다. 도서관 자체적 조달으로는 회비, 프로그램 회원제, 강좌비 등이 있었다.

#### □ 결과분석

안정적인 운영 재정을 마련한 도서관들은 지자체의 지원과 민간의 지원을 받는 곳이 8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7%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2. 재정운용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

#### ■ [질문 3]의 의미

<작은도서관>들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 질문이다.

#### □ 조사결과

조사 결과, 93%가 재정운용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운영비의 증액을 응답하였다. 부족한 운영비는 행정운영비, 도서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동아리모임 지원금, 인건비 등이었다. 기타 7%는 표준화된 가이드, 운영비 지출의 자율성 보장 등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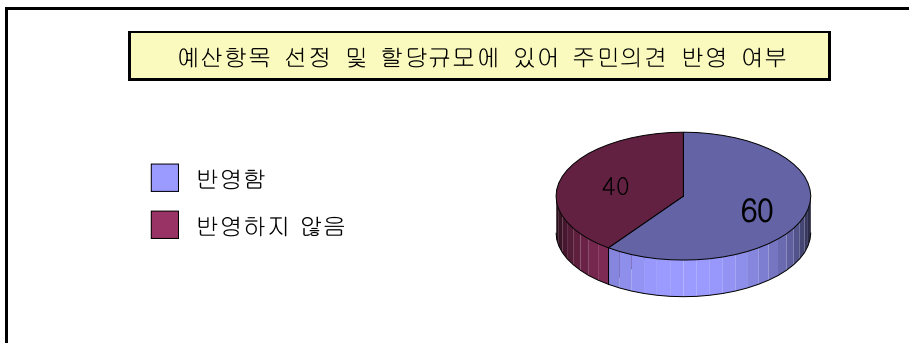
#### □ 결과분석

대다수의 도서관들이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예산 선정에서의 이용자 참여

#### ■ [질문 4]의 의미

예산항목 선정 및 할당규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근거로서의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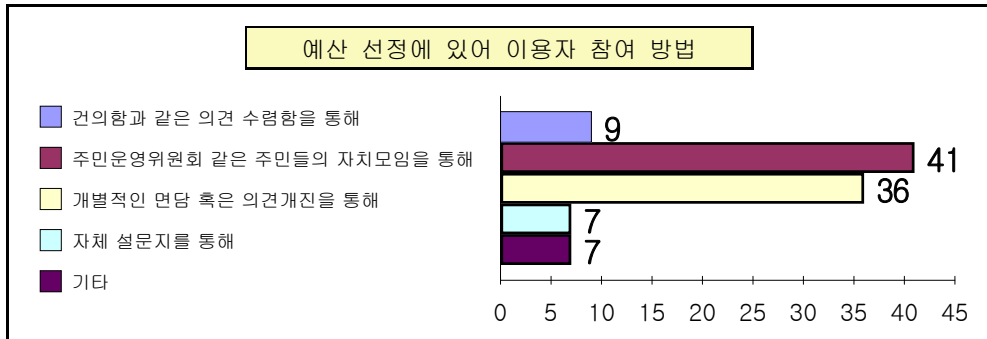
조사결과 예산항목 선정 및 할당규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곳은 60%였고 반영되지 않는 곳이 40%였다.

#### □ 결과분석

예산항목 선정 및 할당규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곳이 반영되지 않는 곳보다 많았으나, 반영되지 않는 곳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예산항목 선정 및 할당규모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 [질문 4-1]의 의미

예산항목 선정 및 할당규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다.



#### □ 조사결과

예산항목 선정 및 할당규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은 주민자치모임을 통하는 경우가 41%, 개별의사개진이 36% 의견수렴함을 통해 9%, 설문지 및 기타가 각 7%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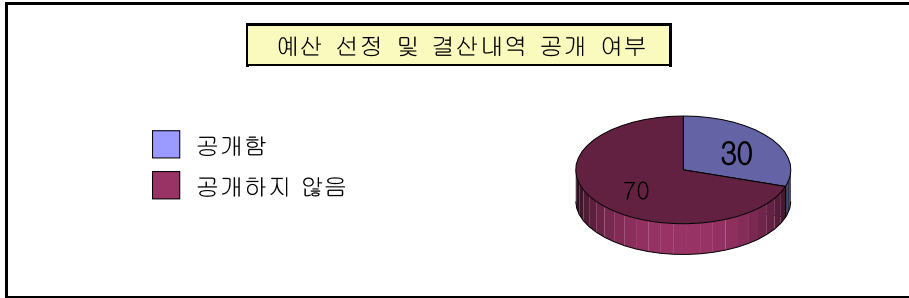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주민의 의견을 통해 예산항목 선정 및 할당규모가 결정되는 <작은도서관>이 가장 주도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작은도서관>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지원 방향에 잘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의사개진이나 의견수렴함, 설문지 등 비주도적인 방법도 많았다. 단순한 이용자가 아닌, 지역의 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 4. 예산 선정 및 결산내역 공개

#### ■ [질문 5]의 의미

주민들에 대한 예산 선정 및 집행에 관한 결산 내역의 공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노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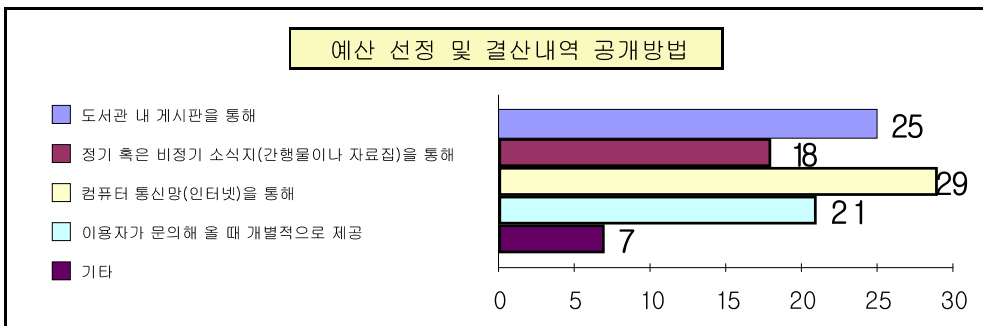
예산 선정 및 집행에 관한 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70%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공개하는 경우는 30%에 그쳤다.

#### □ 결과분석

예산 선정 및 집행에 관한 결산 내역을 공개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 [질문 5-1]의 의미

주민들에 대한 예산 선정 및 집행에 관한 결산 내역의 공개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 □ 조사결과

조사결과, 인터넷을 통해 예산 선정 및 집행에 관한 결산 내역의 공개하는 곳이 29%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도서관 게시판을 통한 공개가 25%, 소식지를 통한 공개가 18%, 기타 공개 방법이 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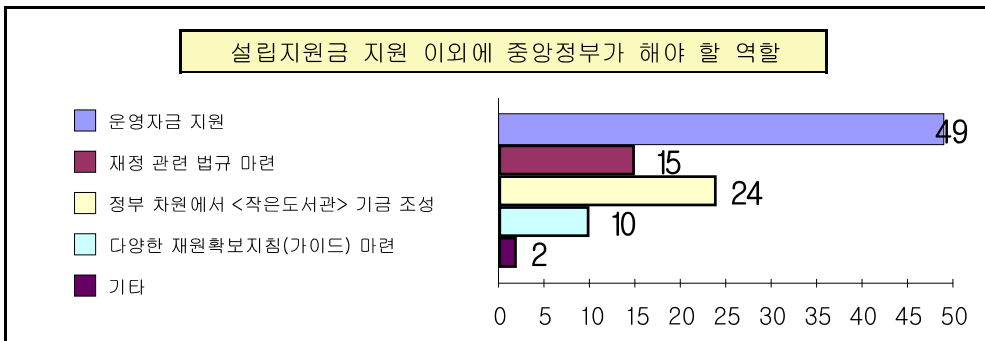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주민들에 대한 예산 선정 및 집행에 관한 결산 내역의 공개는 매우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예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었다.

## 5. 설립지원금 이외에 중앙정부(문화관광부)가 해야 할 역할

### ■ [질문 7]의 의미

설립지원금 이외에 중앙정부(문화관광부)가 해야 할 역할을 묻는 질문은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에 필요한 도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 □ 조사결과

조사 결과, 운영 자금 지원을 바라는 <작은도서관>이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작은도서관> 기금 조성이 24%, 재정관련 법규 마련이 15%, 다양한 재정 확보 지침(가이드) 마련이 10%, 기타 2% 등으로 나타났다.

## □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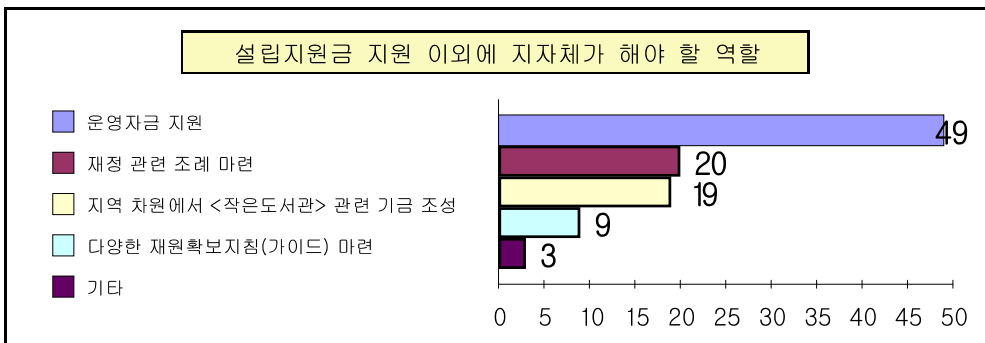
운영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기금 조성, 재정관련 법규, 재정 확보 가이드 등 운영 재정에 관한 응답을 모두 합하면 98%에 달해 운영 재정의 확보가 모든 <작은도서관>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있는 <작은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도서를 구입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부족하며 재정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6. 설립지원금 이외에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

### ■ [질문 8]의 의미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중앙 정부(문화관광부)의 지원 외에 지자체에 대해 바라는 지원 항목에 대한 질문이다.



### □ 조사결과

조사 결과, 지자체에 대하여 운영 자금 지원을 바라는 <작은도서관>이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자체가 재정관련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원하는 곳이 20%, 지자체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기금을 조성해줄 것을 원하는 곳 19%, 다양한 재정 확보 지침(가이드) 마련이 9%, 기타 3%로 나타났다.

### □ 결과분석

중앙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대해서도 운영 자금과 관련된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직접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기금 조성, 재정관련 조례, 재정 확보 가이드 등 운영 재정에 관한 응답을 모두 합하면 97%에 달했다. 운영 재정의 확보가 모든 <작은도서관>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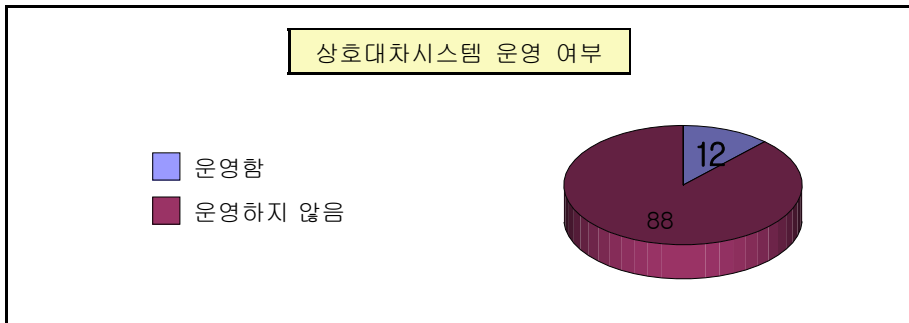


## 제6절 <작은도서관> 네트워킹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1. 상호대차시스템 운영 여부

#### ■ [질문 1]의 의미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킹에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상호대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작은도서관> 네트워킹 정도를 가늠하는 질문이다.



#### □ 조사결과

조사 결과, 상호대차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운영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였다.

#### □ 결과분석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킹에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상호대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 [질문 1-1]의 의미

상호대차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상호대차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 장애와 향후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환경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질문이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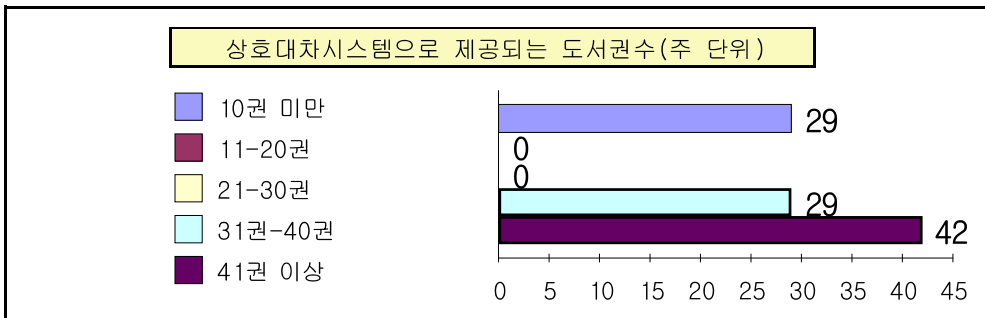
조사 결과, 준비 부족이라고 응답한 곳이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력 부족이라고 응답한 곳이 21%, 예산 부족이라고 응답한 곳이 13%, 구축 중에 있다고 응답한 곳이 17%, 향후 운영 예정인 곳이 8%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응답한 곳이 13%나 되었다. 준비 부족의 경우 시스템 통일 및 시설 어려움, 프로그램호환 필요, 전산화작업 미비/대출반납프로그램 설치 어려움, 프로그램차이로 인한 어려움, <작은도서관>들의 도서목록 통일, 아직 도서관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곳은 이용자의 요청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 분석결과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준비 부족,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의 이유들로 인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산과 가이드 제공이 요청된다. 그런데,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응답한 사례도 적지 않아 상호대차시스템의 개념 정립과 홍보에 관한 문제, 제반 여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 [질문 3]의 의미

상호대차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그 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다.



#### □ 조사결과

상호대차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상호대차로 제공되는 도서관수가 주당 41권 이상인 곳이 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1에서 40권 사이인 곳이 29%, 10권 미만인 곳이 29%로 나타났다.

#### □ 결과분석

06년 지원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한 시기가 얼마되지 않아 도서관별 장소 이용의 편차가 높다. 하지만 구축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호대차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급격히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질문 4]의 의미

상호대차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할 점을 제안하기 위한 질문이다.

#### □ 조사결과

상호대차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곳이 50%로 나타났고 문제점을 보고한 곳이 50%였다. 상호대차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들로는 신청한 책이 누락되거나, 다른 도서관으로 잘못 옮겨지는 문제, 세부적 운영규정에 대한 공통규정이 없음, 상호대차 이용 증가에 따른 도서관반의 어려움, 상호대차에 따른 도서 훼손분실에 대한 예산 부족,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 및 지속적인 교육 부재, 운영인력 1인으로 운영인력이 업무시간내 대출처리를 요청한 상태에서 퇴근후 자료를 가져다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운영 인력의 부족, 본 도서관의 다양한 도서 부족, 신서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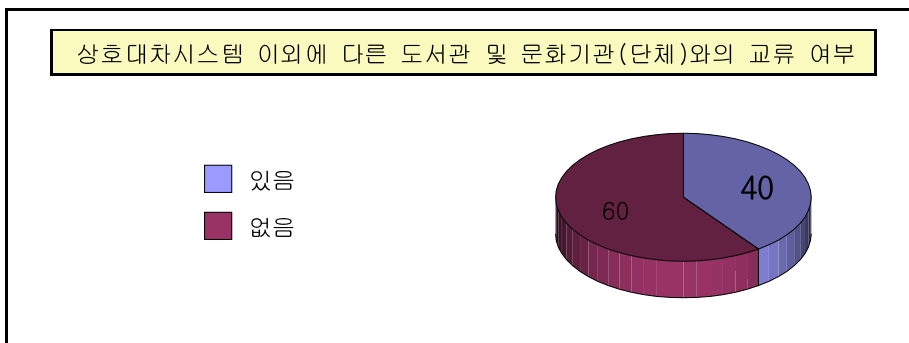
#### □ 결과분석

상호대차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도서의 검색과 신청을 위한 전산망이다.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은 이러한 전산시스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도서는 디지털 콘텐츠가 아니라 실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서배달은 또 다른 문제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일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도서배달을 위한 업무 및 인력은 많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 공공도서관의 경우 <작은도서관>보다 오히려 노후한 도서들이 많아서 상호대차시스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신서 확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2. 상호대차시스템 이외에 다른 도서관 및 문화기관(단체)과의 교류 여부

### ■ [질문 5]의 의미

<작은도서관>은 장서 규모의 한계, 비전문적 인력 구성 등으로 인하여 도서 구입, 도서 관리 등 도서관 고유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다른 도서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도서관 고유의 기능 이외에도 지역의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기능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주기적인 운영을 통해서 가능하다. 문화 프로그램의 특성상 <작은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전문적인 문화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질문은 <작은도서관>들이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 단체들과 교류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 □ 조사결과

조사 결과,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 단체와의 교류가 없는 곳이 60%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 단체와의 교류가 있는 곳은 40%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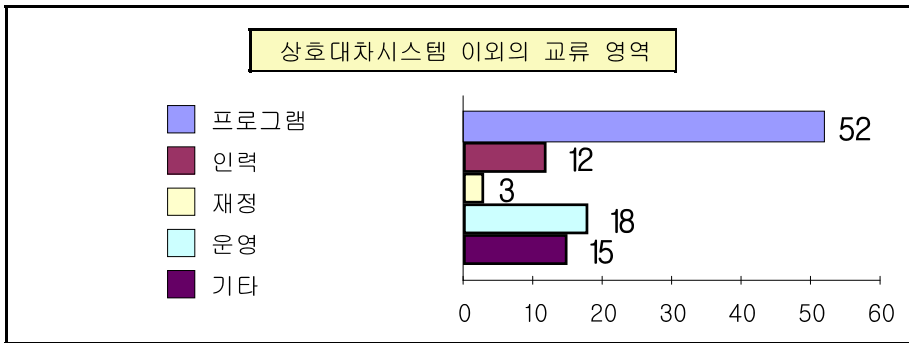
### □ 결과분석

다른 도서관들 또는 문화 단체들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질문 5-1]의 의미

상호대차 시스템은 <작은도서관>의 도서관 고유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작

은도서관>의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호대차 시스템 이외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 정보 교환 등의 교류가 필요하다.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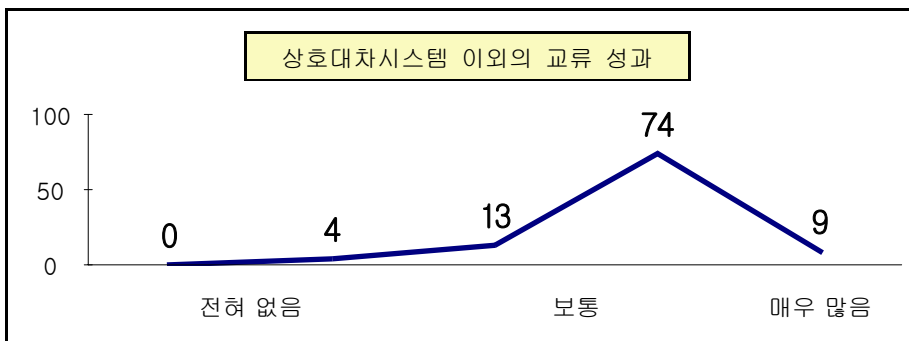
조사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교류가 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운영관련 교류가 18%, 인력교류 12%, 재정교류 3%, 기타 15%로 나타났다.

#### □ 결과분석

교류가 이루어지는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교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사랑방으로서 자리잡기 위한 <작은도서관>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질문 5-2]의 의미

상호대차 이외에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 단체들과 교류하는 경우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 □ 조사결과

조사 결과, 성과가 크다고 응답한 곳이 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13%, 매우 크다고 응답한 곳이 9%, 거의 없다는 곳이 4%로 집계되었다.

#### □ 결과분석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작은도서관>들이 다른 도서관들이나 문화 단체들과 교류하는 것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작은도서관>들에 대해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5장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제 1절 <작은도서관> 시설부문의 활성화 방안

제 2절 <작은도서관> 운영인력부문의 활성화 방안

제 3절 <작은도서관> 프로그램부문의 활성화 방안

제 4절 <작은도서관> 이용자관리부문의 활성화 방안

제 5절 <작은도서관> 재정운용부문의 활성화 방안

제 6절 <작은도서관> 네트워킹부문의 활성화 방안



## 제1절 시설부문의 활성화 방안

### 1. 접근성의 확보

공간, 자료, 각종 집기 등 <작은도서관>의 기본 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조사이다.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과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 그리고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이후에야 어떤 성격의 도서관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여, 어떤 형태의 시설을 조성할지에 대한 적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기본 취지는 접근성 높은 생활권 도서관을 조성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있다. 접근성이야말로 <작은도서관>의 핵심 조건이다.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수혜 도서관의 상당수가 접근성 높은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절반 가까운 수의 <작은도서관>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2층 이상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대다수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동 등 공공시설물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작은도서관>이 공공시설물의 주된 사무공간보다 부차적으로 여겨져 건물 내에서 2~4층이나 복도 끝 등의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에 조성되었음을 나타낸다. 도서관은 휠체어나 유모차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책 상자 등의 무거운 짐을 수시로 나르는 운영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1층의 주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물 내 일부 유휴공간보다는 폐동사무소, 폐파출소 등의 독립된 유휴시설물 전체를 도서관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가능하면 건물 1층 중심부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는 도서관 전용 건물 신축에 대한 지원도 더 많이 고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자체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공공시설물 내 사무공간을 위층으로 올려 보내고 1층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 2. 이용자 중심의 시설 마련

지역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망의 실태조사와 이용자 수요 조사를 통해 신규 조성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결정하고 이용자 의견 수렴을 반영한 공간 디자인을 할 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영상시설 등의 특정 기능의 공간 및 설비를 추가할 수 있고, 노인을 배려한 ‘찜질방’ 공간을 갖추거나, 해당 지역 이용자들의 관심에 따라 농업, 환경, 교육 등의 자료를 집중 구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할 때에는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각 건 별로 정밀하고 창조적이고 쾌적한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 인테리어와 시설 수준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연구한 다음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지역 주민들이 언제라도 ‘들르고 싶은 도서관’, 아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서관’, ‘집같이 편안한 도서관’은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 설계와 구현을 위한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이용자들을 위해 <작은도서관>을 ‘최선의 창조적 성장 환경’으로 조성하여 제공할 의무가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 전체에 있다.

## 3. 도서 콘텐츠 확충

도서관 서비스의 기본 조건은 도서 콘텐츠 확충이다. 2006년도 조성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들은 평균 4천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다. 이는 대개 210m<sup>2</sup> 정도의 면적을 보유한 해당 <작은도서관>들로서는 부족한 수준이다. 주변에 다른 도서관이 없거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소재해 있다면 이용자들의 평등한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양서를 구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간을 구비하고 장서를 확보해갈 수 있는 도서구입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조사 대상 도서관 중에서 2006년 이후에 개관한 곳이 서른 곳이 넘어 아직은 기본적인 도서 자료만 확보해 두고 차차 장서량을 늘려가는 단계에 있다고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각 <작은도서관>이 충분한 양의 장서를 구비하고 지속적으로 신간을 채워 높은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상호대차나 단체대출 등의 방법으로 공공도서관의 평균 10만 장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지식 정보와 학습 기회에 대한 접근권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켜 가야 한다.

<작은도서관> 시설부문의 활성화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작은도서관>의 조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 손으로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그로 인한 애정이야말로 <작은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은 도서관 조성지원 수혜 지역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문화복지에 대한 요청, 공동체문화에 대한 갈증을 <작은도서관>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 제2절 운영인력부문의 활성화 방안

### 1. 문화 활동의 진화와 <작은도서관>

생활권 단위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의 확충 속에서 향후 대중의 문화 활동은 감상에서 학습으로 그리고 참여와 체험으로 바뀔 전망이다. ‘감상’이라고 하는 문화 활동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와 이해를 기초로 한다. 즉, 텍스트가 갖고 있는 주제나 의미를 읽어내는 활동이다. 전문적 평론가가 아닌 이상, 감상이라고 하는 문화 활동은 일반인들에게 있어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상이란 텍스트를 가만히 보거나 들으면서 흥미를 창출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감상이라는 문화 활동의 다음 단계는 ‘학습’이다. 감상을 통한 문화적 호기심은 텍스트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다음 단계로서 학습에의 욕구를 유발한다. 학습이라는 문화 활동은 강좌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문화 활동의 진화는 학습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텍스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은 문화 활동의 다음 단계인 ‘참여와 체험’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참여와 체험은 문화 활동의 최고 단계로서 직접 창작물을 만들고 시연하는 살아있는 문화적 실천이다.

위와 같은 문화 활동의 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출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생활권 단위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인 것이다. <작은도서관>의 존재 이유와 운영 활성화의 필요성 역시 위와 같은 문화 활동의 진화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은 궁극적으로 참여와 체험이라는 문화 활동의 최고 단계를 대중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문화민주주의 구현 및 문화자치의 디딤돌이라 하겠다.

### 2. 사서의 전문성 확보

이러한 취지를 적극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바로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그 활용이다.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국의 <작은도서관> 58개를 실증 분석한 결과,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 이해도는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조직구조에 있어 업무의 할당이나 분담, 자율성 역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면서 내린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에 대해 상급기관의 지원 및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인력은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사서이거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의 행정 공무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은도서관>이 해당 지역에 있는 공립도서관의 분관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작은도서관>에 상주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담당하지만, <작은도서관>에 직접 파견되거나 소속된 인력은 자원봉사자, 공공근로, 공익, 청원경찰 등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작은도서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는 언제나 감동적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풀뿌리지역운동의 결과물이기때, 지역 활동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듯이,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1차적 업무로 하는 만큼, 사서의 역할은 보다 중요해진다.

아울러 사서는 공공도서관의 하부기구로서 <작은도서관>을 바라보고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된다. 즉, <작은도서관>을 단순히 도서업무로의 연장선 속에서 지원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기능과 함께 주민참여를 통한 문화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을 자신의 주요 업무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 자신이 소속돼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말로만 지시를 내리려는 자세는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위상과 역할이 다른 만큼, <작은도서관>의 이해를 돕고 운영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혹은 능력발전을 위해서 사서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이 지역문화활동의 디딤돌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함은 <작은도서관>을 움직이는 운영인력의 능력 향상과 함께 가야 한다. 즉, 운영인력의 능력발전, 새로운 학습·교육의 욕구 증대를 위한 교육 없이는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성장·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 3. 담당 공무원과 파견 인력의 전문성 확보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행정 공무원이 <작은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의 운영 마인드 역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공간을 <작은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을 행정의 하부기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열의가 있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에 실질적으로 파견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사서나 <주민자치센터>의 행정 공무원이 운영과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경우, 실질적인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이거나 공익 혹은 공공근로가 대부분이다. <작은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만큼, 이들의 업무 역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하며 보다 책임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지역민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심정적인 열의만 높다 뿐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을 총체적으로 조망하지는 못한다. <작은도서관>의 설립 취지 중의 하나인 주민참여가 바로 이들을 통해 가능하기에, 운영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공익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익은 병역의무를 대체하기 위한 직책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파견되어 단순 업무나 기능적 역할만 부여받은 한정된 운영인력으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이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은 의외로 많다. 따라서 이들 역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철저히 받을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업무처리능력을 체크해 전문성과 헌신성을 높여야 한다.

공공근로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수당을 받고 <작은도서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공익과 같은 수동적 운영인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들 역시 <작은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인력이니만큼,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에 국한된 단순한 업무처리를 넘어 주민참여와 문화복지를 이끌어 낼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인력이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채용해 업

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4.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기적 조직구조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기적 조직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문화를 향수하려는 대중의 욕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책임은 그만큼 중요해진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내에서의 수평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업무분장에 따른 상호교류,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 5. 요약

인력자원의 중요성은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에 있어 더욱 부각된다. 왜냐하면 생활권 공공문화기반시설은 규모가 작아 소수의 운영인력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당백’의 정신과 헌신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확충에 그치고 있는 지자체의 행정관례를 볼 때, <작은도서관> 역시 전시행성의 산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지원일 것이다.



## 제3절 프로그램부문의 활성화 방안

### 1.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활성화의 의의

<작은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규모나 크기와는 별도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은도서관>은 생활권에 위치하며 동시에 주민생활과 밀착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지역문화기반시설’에 해당된다. 이에 <작은도서관>은 수서와 대출 등 단순한 도서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 좀 더 포괄적인 주민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2. 프로그램 활성화의 기본 방안

본 연구에서는 전국 58개 <작은도서관> 조성평가 사업 가운데 ‘프로그램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부문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첫째,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주체’, 둘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기준’, 셋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주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주체는 지금까지 사서와 관장, 그리고 입주기관 등이 중심을 이루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주민 생활권을 토대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주민운영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



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2)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기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기준에 있어서 설문조사에서는 대체로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지역문화 및 지역정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보다 사서나 관장의 판단, 현실적인 운영 능력 등에 중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주체를 위한 ‘주민운영위원회’와 같은 주민 참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단체 및 문화기관와의 상시적인 교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감안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과도한 중복프로그램을 예방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3)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문제점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비의 부족이었다. 따라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의 주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이 직접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 고용 등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으며, 그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전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거나 벤치마킹하는 것도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족한 공간의 문제는 <작은도서관>이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보다는 기타 문화기반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유휴 공간의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사회에는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집, 문화회관 등 다양한 공

공의 문화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기관이 개별적으로 필요공간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여타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족한 공간을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 3. 우수 프로그램 사례

- (1) 동화를읽는어른들의모임: 흔히 동화는 아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동화는 어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유사한 ‘유아 동화 읽어주기’를 넘어 어른들이 동화를 읽는 모임을 갖는 것은 매우 신선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 (2) 도서관자원활동가교육: 자원활동가(자원봉사자)는 자칫 소모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해 꾸준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3) 길거리도서관: 이동도서관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다.
- (4) 어린이집과 연계한 ‘책의여행’: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해서 공동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 (5) 초등학생 독서감상문대회: 지역 초등학교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예이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존재를 더욱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6) 지은이 초청(저자와의 대화): <작은도서관>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프로그램이지만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집 등 지역 문화기관과 함께 추진한다면 앞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 (7) 이야기극장: 그림책을 슬라이드로 찍어 보여주는 것으로서, 단순한 동화구연이 아니라 좀더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 (8) 외국인주부 및 자녀관련 프로그램: 지역의 정서와 지역문화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프로그램이다.



## 제4절 이용자관리부문의 활성화 방안

### 1. 문화권과 <작은도서관>

이제 문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 속에서 새로운 권리개념인 ‘문화권(Cultural Rights)’이 사회의제로서 제기되었다. 법적 구속력이라는 신체 외부의 기제를 통해 보장받던 근대민주주의의 권리 개념과 달리, 문화권은 욕구와 욕망이라는 신체 내부의 기제를 통해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권은 내재적이며 비가시적이다.

문화권은 문학, 사진, 영화, 그림, 무용, 음악이라고 하는 구획된 문화예술장르에 대한 취미와 여가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문화권은 또 다른 차원의 인권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로 주장되어야 한다.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말한다.

문화적 권리가 소수 엘리트나 부르주아들의 특권 문제가 아닌 대중적 권리의 문제라고 할 때, 문화는 노동권의 문제나 사회안전망의 문제에 더하여 더 이상 사적인 영역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문화권은 사회 전체의 자원의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공적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권을 신장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문화권의 신장은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신장과 함께, 주체적으로 문화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또 문화권의 신장은 권리의 내용과 개념을 확대하거나 변형·재편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권리의 현실 개입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sup>12)</sup>

문화권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속에서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주도로 권력이 탈집중화되는 현시점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의 적극적 활용은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방향이라 하겠다. <작은도서관>은 지역민의 삶터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화권 확보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2) (사)문화사회연구소, 『경기도 문화지표개발 및 표본지역 조사연구』 (문화사회연구소, 2003), pp.21-22.

## 2. <작은도서관> 이용자 실태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의 참여는 매우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즉, 도서의 대출과 열람으로부터 자원봉사활동과 소모임 활동을 통해 문화향수 및 문화창작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참여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작은도서관>은 문화 활동의 진화를 통해 문화권을 확보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고 있다. 즉, 1차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그에 못지않게 요구된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실태는 대체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이용자의 의견수렴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에 뿌리박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닦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이용자 관리

위와 같은 조사를 기초로 해서 <작은도서관>의 이용자관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의 유형에 따른 참여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유형은 주부와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은퇴 노인과 무직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지역문화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와 지역자치를 이루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부와 학생 이외에 지역민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가 <작은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각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가 다르므로 그 기대를 파악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설립취지에 맞는 모든 업무를 진행시킬 수 없기에,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안정적 충원과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다양화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이타적인 자기희생만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존중이나 능력개발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사안이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업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작은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력활용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상근인력이 평균 2~3명임을 감안할 때, 상근직원이 자원봉사자까지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이로부터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를 통해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잠재 이용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참여는 매우 활발하다. 하지만 현재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사람 등 잠재 이용자를 유도할 프로그램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다섯째,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및 운영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의 공개는 이용자들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결과를 내올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수렴되고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 <작은도서관>의 민주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을 공개하고 주민 자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소모임 활동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조사결과 무려 67%에 달하는 <작은도서관>에 소모임 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비해 소모임 활동이 열악함을 의미한다. 소모임 활동은 자원봉사자의 충원 역할을 할 수 있을뿐더러, 이용자의 지속적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적 창구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이용자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모임 조직에 노력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기능과 함께 주민참여를 통한 문화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이용자 관리 및 잠재 이용자 개발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소모임 활동의 지원에 힘써야 한다.



## 제5절 재정운용부문의 활성화 방안

### 1. 재정운용 실태

향후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운영 재정의 확보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재정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작은도서관>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안정적인 재정확보방안이 전혀 없는 곳이 34%나 되었으며, 재정확보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 장서 구입, 프로그램 운영, 인력 확충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재정운용에 대한 어려움은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지원 요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작은도서관>들은 중앙 정부에 대해 운영 자금의 지원, 정부 차원에서의 <작은도서관> 기금 조성, 재정지원 법규 마련, 다양한 재정 확보 지침(가이드) 마련 등의 재정과 관련된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다수의 <작은도서관>들이 지자체에 대해서도 운영 자금의 지원, 재정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기금 조성, 다양한 재정 확보 지침(가이드) 마련을 바라고 있었다.

### 2.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현지 조사를 통해 본 <작은도서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주민후원회를 조직하여 후원을 받고, 사회복지기금의 지원, 민간 기업의 지원, 지역 유지의 지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재정을 조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다. <작은도서관>들은 비용의 절약을 위해 자원봉사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은 도서 정리, 대출, 청소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도서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도서 구입, 난방, 전기 등 기본적인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미 활동 중인 <작은도서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마련이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어렵다면, 민간의 지원을 통한 재정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이미 몇몇 <작은도서관>들은 지역 주민후원회, 지역 유지의 지원, 지역 기업의 후원, 대기업의 후원, 사회복지기금의 후원 등을 통해 민간의 지원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모범 사례를 들자면, 대전의 경우 민간주체로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7개 마을어린이도서관 내년에 신설한다. 용인의 느티나무 도서관의 경우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비를 확충하고 있는데, 재단이 설립된 유일한 곳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의 지원을 통한 재정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06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중앙 정부의 지원은 곧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다. 복권기금 등에서 부분지원 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협력을 통한, 분관 형태로의 운영비 지원 방안 또한 모색해 볼 수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작은도서관> 신축 및 시설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기금 조성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규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중앙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갖는다. 2006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앙 정부의 지원 사업은 많은 지자체들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곧 지자체 차원에서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진다. 이미 설립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예산 배정은 시급한 사안이다. 지자체가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배정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중앙 정부의 장기적인 <작은도서관> 조성 계획이 마련된다면 가능한 일이다. 지자체가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다각도의 <작은도서관> 기금 조성과의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의 재정지원 조례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앙 정부가 <작은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를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 제6절 네트워킹부문의 활성화 방안

<작은도서관>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도서관 고유의 기능인 도서 및 자료 열람, 대출 등이고, 두 번째는 지역의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기능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예산의 한계, 공간 규모의 한계, 장서 규모의 한계, 전문적 인력 구성의 한계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도서 구입, 도서 관리 등 도서관 고유의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도 공공 도서관이나 대형 사립 도서관, 도서관협회 등의 지원과 교육 등 교류가 반드시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 사랑방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기능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주기적인 운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문화 프로그램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작은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다. 때문에 다른 전문적인 문화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계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1.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작은도서관>이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도서관 네트워킹이다. 지역 주민이 <작은도서관>을 통해 보다 규모가 큰 도서관의 장서 및 자료를 대여 반납할 수 있게 될 때 <작은도서관>의 독서생활 증진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상호대차시스템 조성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드러나듯, 상호대차시스템이 구축된 <작은도서관>은 조사대상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본 절에서는 실증 조사를 통해 파악된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이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호대차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대차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상호대차시스템의 운영의 난점을 살펴보면, 첫째, 상호대차시스템 마련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작은도

서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상호대차시스템의 구축과 장기적 운용에 따른 재정마련 및 각 지역의 상황을 염두에 둔 차별화된 지원이 절실하다. 농촌지역의 경우, 전산화된 대출프로그램이 없는 지역이 존재하며,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상호대차시스템 마련 이후의 장서이동 및 보급 등의 예산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상호대차시스템의 효율적 장서보급과 도서관의 공공서비스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두 번째로 시군구 계열의 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유기적 호흡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도서관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 문제이며 도서관운영에 대한 접근방식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산하인 경우,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렵다.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과 지역 <작은도서관>과의 유기적 호흡이 어렵다.

세 번째로는 <작은도서관>에 따라서는 운영 주체 또는 지역 주민들의 상호대차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곳이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기존 공공도서관들의 장서 노후화, <작은도서관>의 문화 사랑방 성격 강조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장서수가 <작은도서관>에 비해 많다고는 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신설된 <작은도서관>의 장서가 신간인 경우가 있고, 특히 다수의 <작은도서관>들이 어린이를 대상의 한 장서를 확보하고 있어 연령별에 따라 오히려 공공도서관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다. 농어촌의 경우, 높은 연령층의 지역 주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은도서관>은 지역현안의 프로그램이 강조되며 이에 따른 사랑방 역할과 생활문화 접근의 기회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곳은 상호대차시스템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일률적인 상호대차시스템 마련 방안 보다는 보다 다층적이고 유연한 장기적 계획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지속적 운영에 대한 주체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지자체의 자체적 의지 없이는 상호대차시스템의 마련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능하다하더라도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시스템 마련에서의 운영의 차 - 예를 들어 지역의 경우, 간혹 책의 분실이 있을 수 있다 -에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서 부터, 운영에 따른 실비의 부담과 과정상 예상되는 진행비의 책임을 해당 공공도서관이 모두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상호대차에 대한 접근을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군구의 공공도서관과 민간조성된 <작은도서관>과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작은도서관>의 설립에 있어, 시군구 설립과 민간 설립의 운영주체 차이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차별적인 협조가 있을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의무가 있지만, 민간 설립의 <작은도서관>은 적극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적 상호대차시스템 마련의 기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 2.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사례 분석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지원 유형중 상호대차시스템 지원은 두 지역이다. 하나는 <작은도서관>이 25개소 조성된 순천시이며, 다른 한 곳은 정책적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이 전무한 구로구지역이다. 순천의 경우, 순천 시립중앙도서관과 순천 기적의도서관을 축으로 <작은도서관> 25곳을 연계하여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파트 밀집지역 및 농촌마을과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작은도서관>에 장서의 보급과 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되었다. 구로의 경우, 구립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중심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립문고(19개)와 사립문고(2개)를 묶어 총 25개 도서관과 문고를 상호대차로 연계하였다. 특이한 점은 웹을 기반으로 한 회원제 중심의 “지혜의 등대 - 통합도서관”을 구축한 점이다.

순천의 경우,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분관기능으로서 상호대차는 유의미한 것이며 이는 <작은도서관>의 정착과 역할 및 활성화에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미 25개소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순천의 경우, 2006년 지원된 상호대차시스템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구로의 경우, 2006년 상호대차시스템 지원을 바탕으로 웹기반의 통합도서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전반에 대한 장서의 효율적 흐름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작은도서관>의 조성이 전무하고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나 혹은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과 상호대차시스템의 본 취지인 공공도서관의 분관 도서관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공공도서관과 문고와의 대등한 위치에서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다. 지역 회원제를 기반으로 웹을 통한 장서의 분류와 흐름을 파악하는, 지역회원의 장서접근에 용의한 측면이 있으나 반대로 지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과 신간이 문고중심의 베스트셀러들로 편향될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정리하여 보면, 순천의 경우 <작은도서관>의 장서보유 한계를 보완하고 그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대차시스템 지원이었으나, 구로의 경우 웹기반 통합도서관을 설계함으로서 지역 문고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지역 이용자 중심의 상호대차시스템 지원이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상호대차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정책적인 <작은도서관>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호대차시스템 지원 사업의 차이는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작은도서관>의 개념이나 의미 혹은 필요성에 대한 지역적 편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적으로 문고와 혼용되어 쓰이는 점과 또한 어린이 도서관 형태로만 이해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정립과 사업 지원시 명확한 명칭사용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제6장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평가

제 1절 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 과정 평가

제 2절 사업영역별 성과목표 평가

제 3절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실제적 효과 평가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의 근본 목적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작은도서관>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독서문화 함양과 소외와 빈곤극복을 위해 접근성이 큰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 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대하는 일, 도서관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도록 도서관을 확충하는 일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일, 기존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고 제도화하는 일, <작은도서관>의 공간 확보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일 등이 주요 목표였다.

이번 조성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는 지원에 의해 조성된 <작은도서관>들이 이러한 목적에 맞도록 주민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서 얼마나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의 효과를 지원 대상 선정 과정, 지원 방식과 과정, 지원 수준과 범위, 목표와 성과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의 목적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문화관광부의 06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작은도서관>들이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가와 그 실제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 제1절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과정 평가

### 1. 지원 대상 선정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의 근본 취지는 1) 문화소외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2) 지식정보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자체 및 민간에 모델로 제시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거점으로 삼고 3) 지자체 및 메세나 기업,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에 의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지원대상은 비교적 명확한 세가지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는데, 첫째는 문화소외지역, 둘째는 도시,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균등한 기회제공, 셋째는 지자체의 지원 의지였다.

세부 기준으로는 1) 기존 공립문고, 또는 <작은도서관> 설치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곳, 2) 저소득층 밀집지역, 3)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곳, 4) 주변에 대체할 만한 문화시설이 없는 곳, 5) 공공도서관의 분관화를 할 수 있는 곳, 6)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가능한 곳, 7) 지역주민들의 이용욕구 및 자원봉사 활동 등 참여의지가 강한 곳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선 선정 기준을 제시하여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지자체에 의한 지속적 운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선정한 곳은 1) 영세민 임대아파트 지역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 2)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및 분관화 방안이 확정된 곳이었다.

이러한 세부적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가 실행되었는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자체의 보조사업비 부담비율 30% 확보 가능한 곳(우선 선정기준: 조성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예산이 확정된 곳), 2)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지원이 가능한 곳, 3) 공공도서관의 분관화를 할 수 있는 곳, 4) <작은도서관>의 설치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곳, 5) 관내 다수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의해 신청된 곳, 6) 지역주민들의 이용욕구 및 자원봉사 활동 등 참여의지가 강한 곳, 7)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주변에 대체할 만한 문화시설이 없는 곳 등이다.

선정에서 배제된 곳은 1) 지방비 부담 계획(조성비, 운영경비)이 미정이거나 불확실한 곳, 2) 조성 후 지속적인 운영경비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 3) <작은도서관>



시범 조성사업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 4) <작은도서관> 사업이 아닌 것 (예: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공공도서관 건립 등), 5) 사업내용이나 목적 불분명한 곳이 었다.

선정 기준과 과정을 조사한 결과, 선정은 뚜렷한 목적과 취지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 하는 기준과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지역 특성과 지속적 운영 가능성이었는데, 지역 특성으로는 농어촌 및 도시 빈곤지역 지역 등의 문화소외지역과 지자체의 지원 의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 운영 가능 성을 평가한 점이 인정된다.

지원된 <작은도서관>의 지역적 특성은 농어촌 지역, 도농복합지역, 도시지역에 골고 루 분포하여 다양한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역 비율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에 지원된 곳이 28%, 도농복합지역에 지원된 곳이 19%, 도시지역에 지원 된 곳이 49%로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득 구분에서도 중 류층 및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지원이 95%를 차지하여 문화소외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식정보 양극화를 해소라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조성지원 사업 대상 58개 작은도서관의 소재 지역별, 운영 주체별, 지원 유 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운영주체별로 분류하면, 민간 직영이 10개 소, 민간 위탁이 22개 소, 지자체 직영이 26개 소였다. 직영과 위탁을 합한 민간 운영은 32개 소였다. 지역별로 보면, 직영과 위탁을 합한 민간 운영 도서관은 농어촌 지역에 8개소, 도시 지 역에 24개소로 집중되어 있었고 도농복합지역에는 없었다. 지자체 운영은 농어촌 8개 소, 도농복합 9개소, 도시지역 9개소로 균등하게 분포되었다.

<도표 14. 운영주체/지역별 분류>

|        | 농어촌 | 도농복합 | 도시 | 계  |
|--------|-----|------|----|----|
| 민간 직영  | 4   | 0    | 6  | 10 |
| 민간 위탁  | 4   | 0    | 18 | 22 |
| 지자체 직영 | 8   | 9    | 9  | 26 |
| 계      | 16  | 9    | 33 | 58 |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 지원한 지자체, 지역주민단체, 기존 <작은도서관>들 이 설정한 성과목표를 나열하면, 인접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 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지식 양극화 현상 완화와 지역간 문화적 격차 해소, 소외지역

주민들의 지식 정보 함양, 농어촌 소외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확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혜택 부여, 도시서민 밀집지역에 생활친화적 도서관 조성,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 제공,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 사랑방 제공, 마을단위 <작은도서관> 제공, 독서 인구 확대, 책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및 사회교육 시설 조성, 공공재원으로 <작은도서관>을 시범조성하여 민간에 모델로 제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 마련,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의 독서문화시설 조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보다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 도서관의 신속한 보급, 주민이 주인되는 도서관 문화 조성, 다양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구축, 시민들에게 문화적 휴식공간 제공, 문화시설이 전무한 저소득층 아파트, 노후 빌라 단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익한 방과후 활동 장소 제공, 기존 <작은도서관> 시스템 개선, 장서 확충, 공간 시설 개선, 우수도서와 정보인프라 제공, 도농 정보격차 해소,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라는 정부 정책에 참여, 도서관 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마을도서관의 업그레이드, 지역민 지적 만족감 향상, 독서열기가 높은 지역주민 기대 부응, 시민 모두가 책 읽는 분위기 조성,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 조성,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도시전산 통합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주부 등 문화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주민친화적 문화공간 구성, 어린이의 독서생활화 유도,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거점 마련 등이 있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 지원한 지자체, 지역주민단체, 기존 <작은도서관>들이 설정한 성과목표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철학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총 58개 대상 <작은도서관>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와 탐방 실사 결과를 종합하면, 2006년 문화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은 1년이 지난 지금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격차 해소와 독서문화 제고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매우 지원의 효과가 컸다고 평가된 곳이 54개 관, 지원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된 곳이 4개 관이었다.

개별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의 효과는 1) 입지의 적절성(지역유형, 접근성, 근접 공공도서관 유무, 문화소외지역 등)과 2) 예산집행의 적절성(신축 또는 리모델링 과정, 공간 디자인과 시공 수준, 도서 등 콘텐츠 확보 수준), 3) 종합적 운영 실태(지자체의 의지, 운영인력의 전문성, 이용자의 주체적 참여, 프로그램 지속성, 시설 수준 등)를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입지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56개소가 적절하게 선정되었고 2개소는 근처의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시설과 다소 중복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 지원의 적절성을 운영 주체별로 평가하면, 민간 직영 10개소는 모두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간 위탁 22개소의 경우 1곳을 제외한 21개소의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자체 직영의 경우 26개소 가운데 3곳의 운영실태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원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곳은 직영과 위탁을 합한 민간 운영 도서관 32개소 가운데 1개소인 반면, 지자체 운영 도서관 26개소 중 3곳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 운영 도서관들 중에 운영이 미비한 곳이 민간 운영에 비해 약간 많다고 볼 수 있다.

<도표 15. 운영주체별 지원 대상 평가>

|              | 입지 적절성        | 예산집행 적절성      | 운영 실태         | 종합적 지원 적절성    |
|--------------|---------------|---------------|---------------|---------------|
| 민간직영         | 양호 9<br>미비 1  | 양호 10<br>미비 0 | 양호 10<br>미비 0 | 양호 10<br>미비 0 |
| 민간위탁         | 양호 22<br>미비 0 | 양호 21<br>미비 1 | 양호 21<br>미비 1 | 양호 21<br>미비 1 |
| 지 자 체 직<br>영 | 양호 25<br>미비 1 | 양호 23<br>미비 3 | 양호 23<br>미비 3 | 양호 23<br>미비 3 |
| 계            | 양호 56<br>미비 2 | 양호 54<br>미비 4 | 양호 54<br>미비 4 | 양호 54<br>미비 4 |

## 2. 지원 과정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은 첫째, 2008년까지 연간 50개소 내외의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자체와 민간(기업, 개인)의 자발적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것, 둘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 네트워크 구성 등) 구축으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 셋째,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제작 보급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사업의 효

울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평가 결과, 이러한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에 따라 사업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체계적이고 사실적인 선정과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사업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모집 공고: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실시, 2) 대상자 지원신청: 지원신청서 취합, 3) 지원대상 선정: 1차 서면조사, 2차 현지실사, 3차 종합 검토 및 선정, 4)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5) 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6) 사업시행주관단체의 지원 예산 신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사업지원예산 교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8)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수행 및 정산, 9) <작은도서관> 자문단 실사에 의한 평가, 10)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전반에 걸친 자료 첨부최종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졌다.

지원의 수준을 보면 사업규모는 전국 50개 소 내외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 50억 원이 투입되었다. 리모델링 및 콘텐츠 지원 영역에서는 1개 관 당 1억 원 내외가 책정되었고 건립 지원 영역에서는 건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위해 1개 관 당 5억 원 내외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지원액은 리모델링 지원(49개소): 2억 5천 4백 89만 원, 건립 지원(2개소): 2억 3천 4백만 원, 상호대차 지원(2개소): 2억 6천 1백 11만 원 규모였다.

지원수준은 리모델링(부분지원 포함) 사업은 지원 최고액을 7천만 원으로 하고, 단독건물 건립사업에는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되었다. 운영비적 성격의 지원은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감액하였고 지원예산액을 맞추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 중 최하득점 일부는 감액하였다. 도서관의 절대적인 부족과 열악한 사정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지원액수가 필요하지만, 예산규모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지원 규모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 제2절 사업영역별 성과목표 평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은 사업 영역별로 <A형: 리모델링 사업>, <B형: 단독건물 건립 사업>, <C형: 부분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지원유형별로 보면, 신축 지원이 5개소, 리모델링 지원이 45개소, 부분지원이 6개소,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지원이 2개소였다. 리모델링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운영주체/지원유형별 지원 대상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도표 16. 운영주체/지원유형별 분류〉

|        | 신축 | 리모델링 | 부분지원 | 상호대차 | 계  |
|--------|----|------|------|------|----|
| 민간 직영  | 2  | 6    | 2    | 0    | 10 |
| 민간 위탁  | 1  | 20   | 1    | 0    | 22 |
| 지자체 직영 | 2  | 19   | 3    | 2    | 26 |
| 계      | 5  | 45   | 6    | 2    | 58 |

### 1. A형: 리모델링 사업 평가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조성사업으로 리모델링 대상 공립 문고, <주민자치센터>, 폐파출소 및 폐동사무소 등에 1억 원 내외의 규모를 투자하여 인테리어, 가구, 도서, 컴퓨터 시스템 등을 구비하는 것이었다. 지원은 지자체의 공간 제공 및 조성후 운영비 부담을 전제로 하였다. 리모델링의 효과는 지원 전후 상황을 비교해봄으로써 평가되었다. 주요 평가기준은 개관시간 증가, 이용자수 증가, 자발적 소모임 및 자원봉사자수 증가, 지역민의 자발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조직 또는 재편, 지자체의 도서관 신규 인력 배치, 신규 조례 제정, 담당 부서 신설, 민간의 자발적 후원 발생이었다. 리모델링된 건물들로는 폐동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새마을문고, 아파트 부속도서관 등 다양하였다.

실사 결과, 대부분의 리모델링 도서관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리모델링의 가장 큰 효과는 보다 쾌적한 독서 환경의 조성과 신간 도서의 확보였다. 리모델링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쾌적한 독서환경의 구축에서 드러났다. 낡은 건물의 내부 보수, 바

닥 공사, 보일러공사와 전기, 통신시설을 정비, 공간 확장 및 통합, 등이 이루어졌다.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도서관들은 리모델링 후 이용자의 증가, 이용자 만족도의 증가, 주민 소모임의 확대, 주민 관심의 증가, 주민 자원봉사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유아실 설치 등을 통해 맞벌이 주부 등의 육아기능과 주부모임 등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한 지원이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독서실 분위기를 쇄신하여 아이들 눈높이에 따른 공간 구성과 디자인을 통한 독서 분위기 조성, 멀티미디어자료실, 교육실, 공연장,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확충 등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2. B형: 단독건물 건립 사업 평가

단독건물 건립 사업은 별도의 독립된 건물 형태로의 <작은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하였고 선정 대상은 저소득층 밀집지역(공공유희시설이 없는 곳)으로 한정하였다. 지자체의 부지 제공(건축에 문제가 없으며 재개발 등의 철거 가능성이 없는 곳) 및 건립 후 운영비 부담을 전제 조건으로 하였다. 사업규모는 건축 및 조성비용 약 5억 원 내외, 부지면적 약 50 이상 적정 규모였다.

단독건물 건립 사업은 지원 자금이 가장 컸고 효과가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었다. 지역 주민들은 아이들의 독서 공간과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기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아늑한 공간 구성으로 인근 초등학교생들이 방과 후에는 항상 찾는 곳이 되었고 지역 운영회의 모임을 갖는 장소가 되고 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 의해 신축된 도서관들은 설계와 시공에 도서관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스스로 만드는 도서관이라는 인식을 주어 운영자의 애착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부터 민관이 협력하는 사례가 있었고 신축으로 인해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하여 관리비 절약, 바닥 난방 등 다양하고 편리한 설비를 갖추므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운영주체 확보되어 있고 도서관 운영 경험이 존재하는 곳에 건물을 지원하여 도서관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도서관조성지원사업의 지원효과를 높인 사례가 있었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기본에 충실한 도서관 신축하고자 하였다. 공동

체문화와 교육 문화 향수의 진흥에 도움이 되는 <작은도서관>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데 있어 민과 관이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범사례가 된다.

### 3. C형: 부분지원 사업 평가

부분지원 사업은 인테리어, 가구, 도서, 컴퓨터 시스템 중 일부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선정 대상은 기존 운영 중인 문고 (공립문고 중심)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일부지원만으로도 활성화가 가능한 경우로 하였다.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인테리어 교체, 도서지원, 컴퓨터 시스템 등에 지원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부분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들은 주로 컴퓨터, 프린터기, 전자복사기 등의 구입으로 전산망을 확보하였고 서가, 현판 제작, 도서 구입 등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부분지원 중에는 상호대차시스템 지원이 포함되었는데, 이를 통해 하드웨어로는 통합도서관리서버, 웹서버의 구축, 소프트웨어로는 통합전자도서관리 프로그램, 통합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도서대출이력 추적 시스템 등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호대차시스템의 구축은 데이터 및 회원통합,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통합 검색과 대출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주민이 원하는 도서과 어느 도서관에 있더라도 인터넷 검색 및 신청으로 집 근처의 <작은도서관>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운영 주체별 지원 효과는 1) 입지의 적절성(지역유형, 접근성, 근접 공공도서관 유무, 문화소외지역 등)과 2) 예산집행의 적절성(신축 또는 리모델링 과정, 공간 디자인과 시공 수준, 도서 등 콘텐츠 확보 수준), 3) 종합적 운영 실태(지자체의 의지, 운영인력의 전문성, 이용자의 주체적 참여, 프로그램 지속성, 시설 수준 등)를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신축 지원을 받은 5개소는 모두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분 지원(6개소)또는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지원(2개소)을 받은 8개소 또한 지원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리모델링 지원 45개소의 경우 4곳의 운영실태가 미흡하여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표 17. 사업 영역별 성과 평가>

|      | 입지 적절성        | 예산집행 적절성      | 운영 실태         | 종합적 지원 적절성    |
|------|---------------|---------------|---------------|---------------|
| 신축   | 양호 5<br>미비 0  | 양호 5<br>미비 0  | 양호 5<br>미비 0  | 양호 5<br>미비 0  |
| 리모델링 | 양호 45<br>미비 2 | 양호 41<br>미비 4 | 양호 42<br>미비 3 | 양호 41<br>미비 4 |
| 부분지원 | 양호 6<br>미비 0  | 양호 6<br>미비 0  | 양호 5<br>미비 1  | 양호 6<br>미비 0  |
| 상호대차 |               | 양호 2<br>미비 0  | 양호 2<br>미비 0  | 양호 2<br>미비 0  |
| 계    | 양호 56<br>미비 2 | 양호 54<br>미비 4 | 양호 54<br>미비 4 | 양호 54<br>미비 4 |



### 제3절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실제적 효과 평가

#### 1.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의 가장 큰 효과라고 한다면, 사업 시행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소외지역 주민들 및 지자체의 독서문화 증진과 도서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작은도서관> 조성은 독서 문화 함양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욕구가 강한 주민들에게는 충족을 위한 기본적 환경을 제공하고 문화적 욕구가 적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자극하며 주변의 다른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서는 선정에서부터 농어촌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신축 가능성이 더 떨어지며 인구 밀도가 낮아서 이용자수가 적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거리적 접근성 떨어지지만, 주민들의 유대감이 강하고 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작은도서관>이 조성되면 문화 사랑방으로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리모델링할 건물 자체가 많지 않으므로 신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은 특히 농어촌 문화소외 지역에서 큰 파급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어촌의 경우는 도시 문화소외 지역보다 훨씬 문화적 토양이 척박한 실정이다. 조성지원된 지역의 대부분은 <작은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도서관 이용을 위해 차로 3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도서관을 이용한다 해도 구비된 도서는 열악한 상황이었어서 신설된 <작은도서관>에서 기존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시스템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이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은 독서문화 증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농어촌 지역은 문화소외의 차원을 넘어 인구의 감소와 마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학생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폐교되고 지역 인구 전체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은 인구와 경제적 낙후로 인하여 주민이나 지자체의 후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젊은이들도 살고 싶어하는 마을을 만들고 도시로 떠났던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함으로

씨 마을의 존립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독서문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축제, 문화지역 답사 등의 다양한 활동의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예산 문제, 적은 인구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열의가 높으며 지원 사업은 이러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 2. 지자체들의 도서관 지원에 대한 인식 제고

2006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조성예산의 일부 지원, 조성부지 제공, 운영비 지원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 탐방 조사를 통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원방식으로 인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우선 책정 등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주민의 관심을 촉발하는 효과가 있었다. 설립 당시부터 기본적으로 지원 금액은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충당하였고, 특히, 대전, 창원, 순천, 당진, 청주, 동두천, 천안, 화천, 김포, 목포, 강릉, 군산, 칠곡 등에서는 설립비용 보조만이 아니라 조성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며, 부천, 안성, 양주등지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자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작은도서관>운동에 대해 냉담했던 지자체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곳도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 제공,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열의에 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지자체 직영의 경우 광역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 정책 집행 등을 하다 보니, <작은도서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곳도 있었고 민간의 자율성 고취가 어려운 곳도 있었다. 행정부서에 도서관 담당 부서나 사서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총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이 도서관 관리를 업무의 일부로서 관리하는 곳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도서관 관리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다른 행정직원이 담당하게 되면 운영의 지속성이 상실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운영의 권한이 지역 주민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의 건의를 받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책결정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므로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발전 및 운영 계획이 부재한 곳도 있었다. 한편, 광역 지자체 소속 공공 도서관에서 사서직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전문성은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 주민과의 연계라든가 참여가 능동적이지 못했다. 사서직 공무원 또한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발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의 파견은 자칫하면 사서직 공무원들에게 한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파견된 사서는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것이므로 지역주민들과의 장기적 유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민간 직영의 경우 민간의 의욕이 강하나 해당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수동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영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 다양한 자구책을 추구해야 한다.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작은도서관>들은 지자체로부터의 감독으로 인해 자칫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여 주로 주민 후원이나 기업 후원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작은도서관>들은 탐방한 결과를 볼 때, 민간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자체가 운영을 지원하는 구조가 가장 전망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즉,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관리하거나 지자체 소속 도서관 또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분관 형태 등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아무리 확고하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의욕이 없는 곳은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었다. 민간 운영 주체의 경우도 해당 지역 주민에 의한 것이 아닌 광역 시민 단체에서 파견된 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곳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중앙집중식 관리의 난점이 있었다. 또한, 산하 <작은도서관>들의 실내 공간 구성이 모두 획일적인 곳이 있었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이터라도 주민들의 무관심 등이 문제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함께 전문사서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운영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작은도서관>들에서는 활기찬 기운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 탐방한 <작은도서관>들은 그리 많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연발생적 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 고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지역 특성과 주체의 특성에 의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향후의 사업은 이러한 <작은도서관>의 다양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제7장 <작은도서관>

# 시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지정방안

제 1절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사업 개요

제 2절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모델 개발

제 3절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정 방안

제 4절 시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지정을 위한 제언



## 제1절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사업 개요

### 1.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사업 개요<sup>13)</sup>

- (1)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팀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 시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 (2) 2006 <작은도서관> 시범 조성 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 구축을 목표로 <작은도서관>시범지구를 조성한다.
- (3)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해 <작은도서관> 활성화 거점 지역을 육성한다.
- (4) 시범지구 내 <작은도서관>의 확충과 운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 (5) 시범지구 내 전체 도서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망 구축을 통해 전반적인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유도한다.
- (6) 시범지구 내 <작은도서관> 운영의 법적 행정적 제도를 수립 지원한다.

### 2.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사업의 개념과 의의

#### (1) 개념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사업이란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작은도서관> 활성화 모델의 범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삼고 여러 지역 중에서 <작은도서관> 문화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상황을 고려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의 거점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특정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2) 의의 및 기대효과

-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 효과 극대화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영역의 협력으로 도서관 서비스 및 독서문화 진흥의 시너지 효과

13)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사업은 ‘2006년도 조성 평가 사업’과는 별개로,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기획예산정인 정책연구과제이다.



- <작은도서관> 활성화 모델의 전국적 확산

### **3.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전략**

- 선택과 집중
- 포용과 유연성
- 심층적 단계적 접근
-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원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



## 제2절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모델 개발

### 1. 시범지구 조성 모델 개발의 기본 방향

- 단계별, 심층적, 맞춤형 지원
- 지역주민 중심의 정부 / 지자체 / 시민영역 협력사업

### 2. 시범지구 조성을 위한 단계 모형(5단계)

| 단계   | 과정    | 과제                                                 | 사업 내용                                                                                                                                                                                                                                                        | 비고                                                                                             |
|------|-------|----------------------------------------------------|--------------------------------------------------------------------------------------------------------------------------------------------------------------------------------------------------------------------------------------------------------------|------------------------------------------------------------------------------------------------|
| 1 단계 | 준비 단계 | -T/F팀 구성<br><br>-실태 조사<br><br>-의견 수렴<br><br>-시책 확정 | -정부/지자체/시민영역 협력으로 T/F팀 구성<br><br>-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이용 실태조사</li> <li>□ 독서문화 실태조사</li> <li>□ 도서관 서비스망 그리기</li> <li>□ 작은도서관 수요조사</li> <li>□ 작은도서관운동 및 잠재적 도서관 운영 인력 현황 조사</li> </ul> -지역 주민 의견수렴<br><br>-종합계획 수립<br><br>-시책 확정 | -전담부서 설치<br><br>-조례제정 준비                                                                       |
| 2 단계 | 기초 단계 | -조성 및 확충                                           | -조성지원 시책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조성</li> <li>□ 이미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지원 (건물이나 공간 지원, 리모델링이나 시설보수 지원, 도서/비도서 및 장비/물품/가구 콘텐츠 지원, 운영인력 지원 등)</li> <li>□ 공공도서관 내 어린이열람실/영유아실 신설</li> </ul>                                                       | -지역민 참여와 자치 원칙<br><br>-지자체의 예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지원비 확보</li> </ul> |

|             |          |             |                                                                                                                                                                                                                                                                                                                                                                                                                                                                                                                                                                                                                                                                                                                                                                                                                                                                                                                   |                                                                                                                                     |
|-------------|----------|-------------|-------------------------------------------------------------------------------------------------------------------------------------------------------------------------------------------------------------------------------------------------------------------------------------------------------------------------------------------------------------------------------------------------------------------------------------------------------------------------------------------------------------------------------------------------------------------------------------------------------------------------------------------------------------------------------------------------------------------------------------------------------------------------------------------------------------------------------------------------------------------------------------------------------------------|-------------------------------------------------------------------------------------------------------------------------------------|
| 2<br>단<br>계 | 기초<br>단계 | -구성 및<br>확충 | <p>-구성지원 후보지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li> <li>□ 기존 시설물 리모델링</li> </ul> <p>-후보지 선정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자원 (도서관 건립과 운영의 역량을 갖춘 지역 인력 확보된 곳 우선)</li> <li>□ 공간 여건 (지자체 및 민간 영역의 신축 부지 및 리모델링 공간 협조 가능한 곳 우선)</li> <li>□ 접근성, 주민의 열의</li> </ul> <p>-구성지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사 및 공청회</li> <li>□ 이용자 분석 (도서관 성격, 규모, 공간 설계에 반영할 기본 자료)</li> </ul> <p>-구성추진위원회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자체, 공공도서관, 도서관계 전문가 참여</li> <li>□ 설계, 시공 단계에 개입</li> <li>□ 운영 계획 수립</li> </ul> <p>-설계, 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추진위 참여</li> <li>□ 자문단 위촉 (전문위원 및 도서관/건축계 시민단체의 컨설팅, 모델관 시범 조성에 직접 투입)</li> <li>□ 주민설명회</li> </ul> <p>-개관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도서관학교’ (작은도서관의 개념, 의의, 필요성, 실무 교육. 대상 : 지자체 관계자, 공공도서관 사서, 작은도서관운영자, 자원활동가)</li> <li>□ 홍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비도서 자료구입비 지원 및 보조예산 확보</li> <li>□ 운영비 지원 및 보조</li> <li>-공공도서관의 관리 및 지원 체계 수립</li> </ul> |
|-------------|----------|-------------|-------------------------------------------------------------------------------------------------------------------------------------------------------------------------------------------------------------------------------------------------------------------------------------------------------------------------------------------------------------------------------------------------------------------------------------------------------------------------------------------------------------------------------------------------------------------------------------------------------------------------------------------------------------------------------------------------------------------------------------------------------------------------------------------------------------------------------------------------------------------------------------------------------------------|-------------------------------------------------------------------------------------------------------------------------------------|

|             |           |                                              |                                                                                                                                                                                                                                                                                                                                                                                                                                                                                                                                                                                                                                                                                            |                                                                                                               |
|-------------|-----------|----------------------------------------------|--------------------------------------------------------------------------------------------------------------------------------------------------------------------------------------------------------------------------------------------------------------------------------------------------------------------------------------------------------------------------------------------------------------------------------------------------------------------------------------------------------------------------------------------------------------------------------------------------------------------------------------------------------------------------------------------|---------------------------------------------------------------------------------------------------------------|
| 3<br>단<br>계 | 안정화<br>단계 | <p>-프로그램 운영</p> <p>-상호대차 서비스</p>             | <p>-각종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향수 기회 확대할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li> <li>□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할 프로그램 개발</li> <li>□ 지역과 전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li> <li>□ 지역의 현안에 대해 자료, 정보 제공 및 강좌, 세미나 개최</li> <li>□ 문맹자, 비독서인, 시각장애자, 사회적 소외계층(최하위계층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교도소)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li> </ul> <p>-네트워크 구성 및 교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간, 지역 내 다양한 도서관, 독서시설,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등의 교류 및 상호부조 체제</li> </ul> <p>-상호대차 서비스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설치</li> <li>□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연계망 구성</li> <li>□ 의의: 생활권 단위 작은도서관 1개소를 통하여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지역 내 모든 장서를 자유롭게 검색, 이용</li> </ul> | <p>-공공도서관의 분관 체제 수립 (공립 작은도서관 위주)으로 정상운영비 100% 확보</p> <p>-프로그램 지원비 확보</p> <p>-상호대차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비용 확보</p> |
| 4<br>단<br>계 | 전문화<br>단계 | <p>-상근직원 배치</p> <p>-사서 배치</p> <p>-운영자 교육</p> | <p>-상근 인력 배치를 통한 도서관 운영 안정화</p> <p>-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p> <p>기존 비전문 인력에 대한 도서관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시</p>                                                                                                                                                                                                                                                                                                                                                                                                                                                                                                                                                                               | <p>-인건비 및 교육비 확보</p> <p>-조례 제정</p>                                                                            |

|             |          |                                                                                                                             |                                                                                                                                                                                                                                                                                  |  |
|-------------|----------|-----------------------------------------------------------------------------------------------------------------------------|----------------------------------------------------------------------------------------------------------------------------------------------------------------------------------------------------------------------------------------------------------------------------------|--|
| 5<br>단<br>계 | 안착<br>단계 | -작은도서관<br>활성화<br>완성<br>-파급 효과<br>-통합적<br>도서관<br>서비스망<br>구축<br>-적극적인<br>도서관<br>서비스<br>시행(one-<br>step<br>library<br>service) | -평가<br>-작은도서관 활성화 모델의 전국적 확산<br>-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전반적인 도서관 서<br>비스 개선, 도서관 문화 성숙<br>□ 공공도서관 활성화<br>□ 학교도서관 개방, 대학도서관 개방<br>-아웃리치서비스(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br>□ 찾아가는 그림책버스<br>□ 직장인,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자전거<br>배달 서비스<br>□ 병영, 교도소, 병원, 전철역사, 기차역사,<br>버스터미널 작은도서관 시범 설치<br>□ 도서관의 지역 사회 봉사 활동 |  |
|-------------|----------|-----------------------------------------------------------------------------------------------------------------------------|----------------------------------------------------------------------------------------------------------------------------------------------------------------------------------------------------------------------------------------------------------------------------------|--|

### 3.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 (1) 부천시<sup>14)</sup>

민간 협력형 <작은도서관> 운영 체제

##### ■ 주요 특징

- '민관협력 파트너십'
  - 2001년부터 시민, 기업, 부천시 협력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 지속적인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 수립
  - 역할분담
    - 부천시 : 공간과 예산 지원, 민간위탁법인 선정, 회계업무 지도감독
    - 민간법인 : 전반적인 운영 업무, 지역사회 문화공간, 지역민의 구심체 역할
- 상호대차 서비스

14) 부천시립도서관(2006. 6). "부천시 작은도서관(공립문고) 운영사례".

- <작은도서관> 전문 사서 배치
- 시립도서관-공립문고 분관 체제 확립
- 전문 사서 인건비, 보조 인력 인건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비, 공과금 예산
- 시립도서관 정기 지도 점검

## (2) 순천시<sup>15)</sup>

지자체 주도형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 ■ 주요 특징

#### □ 역할분담

마을주민 : 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 운영의 주축

순천시 : 행정, 지원

시립도서관 : 전담 부서 설치, <작은도서관>전담 사서배치, 도서 및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 양성 지원, 운영자 교육의 기획과 진행,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 □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작은도서관 지원

-‘특성화도서관’ (민속촌 내 초가집도서관)

-‘인구밀집도서관’ (아파트밀집지역 도서관)

-‘농촌마을도서관’ (농촌 지역 소재 도서관)

-‘종교기관운영도서관’ (교회도서관)

-‘자치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 지자체 선발 작은도서관 인력 배치, 자료구입비, 운영비 지원(운영자 인건비 포함) 보조, □ 상호대차프로그램 개발 완료

15) 순천시 작은도서관(2006). 「작은도서관 운영사례-순천시 작은도서관」, pp. 36~41.

### (3) 당진군<sup>16)</sup>

복권기금 지원을 계기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 ■ 주요 특징

-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전개, 2006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을 계기로 탄력 받음
-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
- 도서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예산 지속적 확보

### (4) 창원시<sup>17)</sup>

민간영역에서 출발했다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한 사례

#### ■ 주요 특징

- 민관 상호 협력
  - 민간단체 시작하여 지자체 주도로 옮겨감
  - 창원시 평생학습과에서 관리
  - 시민단체의 위탁 운영
-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근무요원 2인 인건비, 운영비 지원

### (5) 김해시

도서관 서비스 확충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 단계적 실시

#### ■ 주요 특징

- 시 차원에서 ‘책 읽는 도시 김해’를 선포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시

16) 당진군청 권창중(2007). “당진군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17) 국립중앙도서관(2006,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pp. 59~61.

책 펼침

- 자체 실태조사,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 도서관과 독서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복지 추구
- <작은도서관> 확충뿐 아니라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 리모델링, 학교도서관 개방 등 통합적 도서관 서비스 증진 추구

## (6) 강릉시

시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선언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 신설 추진

### ■ 주요 특징

- ‘책읽는도시 강릉’을 만들기 위한 ‘2007 강릉 책 축제’ 개최(2007년 10월)
- <작은도서관> 지속적인 설립(2008년 1월 개관 예정)
- 독서문화와 <작은도서관>을 평생학습 개념과 연결지음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문화 전파 노력

## (7)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 확충을 위해 단계적 계획 실시

### ■ 주요 특징

- 공공도서관 사서 ‘멘토링’ 시스템으로 <작은도서관> 관리 및 지원
- 시립도서관 관장, 국장, 계장이 참석하는 ‘<작은도서관> 관리자 정기회의’(월 2회)를 통해 운영상의 개선점 등 공동 논의
- 목포시와 목포시립도서관의 계획과 주도로 2006년 1관, 2007년 5관, 2008년 8관, 2009년 8관 등 총 22곳 조성하여 각 동마다 1관씩 조성 예정
- 2008년부터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예정



## (8) 활성화된 민영 <작은도서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 ■ 주요 특징

- 개인, 시민단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등의 주도로 가정의 거실, 임대 공간, 공공시설, 아파트 관리동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 설립, 지역주민 공동체 도서관으로 활성화
- 자발적인 참여와 자구 노력으로 운영 활성화
- 동네 도서관, 마을 도서관 등의 개념으로 지역공동체문화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공부방, 탁아소, 독서공간, 주민사랑방 등의 기능을 동시 수행.
- 규모는 작고 재정이 열악하지만 지역봉사가 가장 활발하고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투입 대비 지원의 효과가 높은 곳들임

## (7) 해외 사례<sup>18)</sup>

### ■ 미국

미국은 <작은도서관> 개념에 있어서 ‘작은 혹은 시골 도서관(Rural and/or Small Library)’이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인구 25,000명 미만의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을 통틀어 <작은도서관>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작은도서관> 용어는 Rural (public) library, Small (public) library, Small community library, Village library, Mini library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전체 공공도서관(9,129개)의 79%(7,177개)가 <작은도서관>에 해당된다. 이들 도서관은 규모의 구분 없이 도서관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도서관 시스템의 특징은 민간주도형이라는 점이며, 주법에 따라 도서관의 수나 운영 실정이 달라진다. 주도서관위원회에서 지방공공도서관에 대한 주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 설정, 교육프로그램 후원, 도서관 상호협력 증진 등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그럼에도 소수의 직원수, 예산의 부족, 협소한 공간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18) 국립중앙도서관(2006),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국립중앙도서관, pp. 92-119.

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등으로 업무보조 및 보조금 등의 도움을 받는다.

## ■ 영국

영국은 1916년 상호대차시스템 개념을 정착시키고, 1931년 영국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국에 상호대차시스템을 확립했다. 이에 영국구집도서관문헌종합센터(BLDSC) 등을 설립하여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영국의 협력체제는 미국과 달리 국가에 의해 정책적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하린게이 도서관(Haringey Libraries)’은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9개 분관과 9개 도서관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운영된다. 도서와 비도서류의 대출업무, 자동차문고, 장애인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아동 버스 서비스는 5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주 간격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 ■ 프랑스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공적 영역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및 육성하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없지만 공공도서관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많은 사설도서관이 존재하고 있다. ‘까샹 시립도서관’은 파리 남쪽 2km에 위치한 인구 24,000명의 작은 도시이다. 중앙도서관과 2개의 분관으로 운영되며, 분관은 사회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춤, 미술, 음악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으며, 도서관과 사회문화센터의 결합을 통해 독서 활동이 사회문화 활동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병원, 요양원, 형무소 등에 도서관이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어 있다.

## ■ 브라질

-“지혜의 등대”(Farol do Saber)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빈민층에 정보 접근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빈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 양쪽으로 출입구가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였다. 원색의 등대 형태의 도서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한다.

-미니도서관 “문학의 상자”

2003년부터 실시된 프로그램으로서 가정집이나 마을회관, 교도소 등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된 나무상자에 교육 및 문화 관련 책으로 채워져 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도서관 서비스망을 확장시키는 아웃리치서비스의 일환이다.

## ■ 일본

### -가정문고/지역문고

세계대전 직후 일본 사회에 아동부문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이 부재하던 시절에, 유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인식한 민간 영역에서 사회운동의 차원으로 개인의 가정이나 공회당, 아동관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독서 공간을 제공하였다. 성인 여성 중심의 지역주민들의 열의로 실현된 가정문고 및 지역문고 운동은 도서관을 매개로 마을공동체문화를 키우는 효과를 일으키기도 했다. 가정문고 및 지역문고는 어린이에 대한 최고의 도서관서비스, 양서 구비, 기회의 확장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체에 영향을 미쳐서 지역에 공립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 ■ 네팔

### -“리드네팔”(READ Nepal)<sup>19)</sup>

1991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네팔 산간지역에 마을도서관을 짓고 책과 신문, 잡지 등을 보급하여,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서 교육과 학습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도서관 건립에 참여하고 기여하여 “우리 손으로 지은 도서관”이라는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사업의 원칙이다. 마을공동체는 부지와 초기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도서관 운영계획도 짠다. 도서관 운영비도 마련한다.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물 디자인, 시공 관리와 감독, 사서 선출까지 주민들이 주도한다. ‘리드네팔’은 사전 교육과 사후 관리를 돕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작은도서관>은 마을 주민 개인의 문자 깨우치기, 독서 등의 자기 개발만이 아니라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장소로도 활용된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구의 노력 위에 민간 영역의 지원이 결합되어 마을 공동체를 일구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리드네팔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 사업의 대표는 최근 빌 게이츠 재단이 제정한 ‘배움의 길’ 상을 받기도 했다.

19) 도정일(2006), 『도서관운동, ‘리드 네팔’에서 배워라』. 한겨레신문, 9. 22.



### 제3절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정 방안

#### 1.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및 지정 방안

(1)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사업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2가지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 민관협력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향후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2개 방안에 대한 SWOT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 방안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우수 지역 선정 지원
- 방안 2: 문화소의 및 도서관문화 열악 지역 선정 지원

#### ■ 위 2개 방안에 대한 SWOT 분석

|                                  | [방안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우수 지역 선정                                                                                                                           | [방안 2] 문화소의 및 도서관문화 열악 지역 선정              |
|----------------------------------|-------------------------------------------------------------------------------------------------------------------------------------------------------|-------------------------------------------|
| <b>외적 기회<br/>(Opportunities)</b> | -지원 효과 높음<br>-단기간 효과 발생                                                                                                                               | -사회 문화 경제적 양극화 해소 효과<br>-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효과 |
| <b>내적 강점<br/>(Strength)</b>      | -지자체 경험과 노하우<br>-민간 역량과 경험<br>-지자체 의지와 민간의 열의<br>-예시<br>(1) 지자체 내 <작은도서관> 전담 부서 설치 지자체<br>(2) <작은도서관> 사서 배치, 분관 체제 수립 지자체<br>(3) 민영 <작은도서관> 협의회 수립 지역 |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부합<br>-지역민의 문화복지 수요 높음     |

|                             |                                                                                              |                                       |
|-----------------------------|----------------------------------------------------------------------------------------------|---------------------------------------|
|                             | (4) 활성화된 민영 <작은도서관> 들이 도서관 문화 및 프로그램 기획, 개발을 선도하는 지역<br>(5) <작은도서관> 운영 체제 마련 및 안정적인 예산확보 지자체 |                                       |
| <b>내부 약점<br/>(Weakness)</b> | <작은도서관> 확산 정책과 배치될 가능성                                                                       | 지자체 의지와 지역민 열의를 비롯한 도서관 문화를 새로 조성할 필요 |
| <b>외적 위험<br/>(Threats)</b>  |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우려                                                                    | -장기간 소요<br>-국립중앙도서관의 지속적 관리 및 지도 요청됨  |

(2) 위의 분석과 더불어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선정의 취지와 방향을 살펴볼 때, ‘방안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우수 지역 선정 지원’이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향후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선정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활성화 우수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모범 사례로 타지역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정 방안 실시안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정 방안 연구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 (1)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또는 전문가 좌담회 개최)
- (2) 사업 계획 확정
- (3) 공모
- (4) 서류 심사 (2배수 선정)
- (5) 현지 실사
- (6) 최종 선정, 발표
- (7) 사업 1단계 기초조사 (선정 대상이 자체 실시)

- (8) 평가 후 지원 대상의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단계 판정
- (9) 예산 및 시책 확정
- (10) 지원 실시

### 3.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후보 선정 조건

#### (1) 기본 조건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후보 선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기본 요건은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선정을 위한 관련 주체와 지원 효과를 감안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부문의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 지역주민의 관심과 열의
- 지원의 효율성

#### (2) 가점 조건

- 행정 지원 체계
- 기획 및 운영 역량 겸비한 지역의 인력 확보
- 건립 부지 및 조성 공간 확보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 (3) 기본 제출 자료

- 지역 일반 현황(연혁 등 인문환경적 특성, 인구 및 행정구역 등 사회환경적 특성, 경제활동인구 등 산업구조 및 생활환경, 재정현황, 교육시설 현황,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 현황, 문화예술인 현황 등)
- 도서관 현황(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문고, 사설도서관, 기타 독서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현황)

- 조성 부지 및 활용 가능 공간(공공, 민간) 현황
- 운영 역량 갖춘 지역 인력 현황
- 공공도서관 협력 체제 방안
- 도서관 종합 발전 계획
- 예산 확보 방안
-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실적

#### 4.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정 위한 평가지표안

(1)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만들기 위해 참고할 수 것으로서, 미국의 ‘베스트 작은도서관상(Best Small Library in America Award)’이 있다. 이것은 ‘Library Journal’사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공동후원을 통해 모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을 선정해서 모범 도서관으로 소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Library Journal 편집 위원, 주립 도서관 사서들 및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대표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8가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 지역 내 기여도 등을 평가 선정한다. ‘베스트 작은도서관상’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타 도서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상의 독창성
- PAC 도입 및 지원, 신기술에 대한 이용자 교육, 신기술 이용 효과 측정상의 혁신성
- 도서관 서비스 범위 확장상의 기술 사용 정도
-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정도
- 타 도서관과의 협력 시 적극성
- 타 기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정도
- 새로운 이용자 증가를 포함한 도서관 이용률 증가도
- 지역사회 센터 역할로서의 도서관 수행 정도

(2)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정 위한 평가지표안을 작성하기 위해 미국의 ‘베스트 작은도서관상’ 평가기준 등을 참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sup>20)</sup>

- 도서관 현실의 진단: 지역사회의 도서관 서비스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도서관정책: 장단기적인 도서관 확충 계획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은 있는가?
- 시민 의견수렴: 새로운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가?
- 시설계획 확립: 규모와 장서 수용능력, 가구와 설비 등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는가?
- 도서관 부지 확보: 도서관 서비스 목표에 맞는 도서관 부지를 확보할 방안은 있는가?
- 접근성: 도서관의 부지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인가?
-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조례는 있는가? 그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도서관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 인력 확보: 전문성을 갖춘 도서관 운영자의 인력 확보 방안 혹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의 역량을 갖춘 지역이 인력은 확보되었는가?
- 재정 확보: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서관 건립 예산 외에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도서관의 자료를 구입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할 방안은 있는가?
- 민관협력: 타 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은 어느 정도인가?
- 인지도 조사: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 서비스 및 프로그램: 타 지역의 도서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독창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20) 안찬수(2006),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실과 정책의 방향”, 『어린이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pp.23~24 참고.





## 제4절 시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지정을 위한 제언

- (1) 시범지구 조성 시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마을 단위, 즉 생활공동체 단위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야 한다.
- (2) 심층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태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정밀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설계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문화 및 운영 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현실에 따라 단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공적 자원 투입의 적실성을 확보해야 한다.
- (3) 바람직한 민관협력(governance) 방안을 모색하여 시범지구 조성사업 전반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수평적 협력과 연대 관계를 맺고 각 영역의 잠재적 에너지를 통합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4) 정부의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계기로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문화 및 운영 체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업 주체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 (5) 시민사회의 풀뿌리 <작은도서관> 운동의 취지와 성과를 온전히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사업 계획과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언제나 주민 참여와 주도적 역할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 정비를 유도하여 <작은도서관> 시범지구의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활성화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 (7) 시민사회, 기업, 각 분야별 전문가, <작은도서관> 운동의 활동가 등의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각 부분의 역량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경험과 지혜를 사업에 결합시키는 등 사업 계획과 실행상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
- (8) <작은도서관>의 개소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민간의 활성화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 제8장 <작은도서관> 결 론

제 1절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 선정

제 2절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 3절 후속 연구과제



## 제1절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 선정

본 연구는 2006년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국의 58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성평가를 위한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의지, 운영인력의 전문성, 이용자의 주체적 참여, 프로그램, 시설이라는 5개 부문을 나누고 각 부문별 선정 기준을 설정한 후 그에 해당되는 우수 <작은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부문별로 선정된 우수 <작은도서관>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에 실질적 준거로서 설정될 만하다.

### 1.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 - 지자체

<도표 18.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 - 지자체>

| 부문      | 선정 기준                                                      | 우수 <작은도서관>                                                                                                           |
|---------|------------------------------------------------------------|----------------------------------------------------------------------------------------------------------------------|
| 지자체의 의지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br>지자체 차원의 지구별 조성<br>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br>지원의 실질적 결과 | 전북 군산시(구암)<br>전남 순천시(3개소)<br>경기도 부천시(2개소)<br>충남 당진군(4개소)<br>충남 천안시(중앙동)<br>경남 창원시(7개소)<br>경기도 안성시(일죽)<br>전남 목포시(4개소) |

순천에는 26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이중 3곳은 2006년 지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순천 시립도서관 내 도서관운영과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성지원과 상근자 사서교육, 활동비지원 등 전반적인 일을 맡고 있으며 민간은 이에 협력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26개의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해 향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누구나 자료접근이 용이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들 <작은도서관>을 통합하고 각각의 <작은도서관>의 운영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장점인 지역이다.

2001년부터 부천시와 시민 그리고 기업의 협력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가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후에도 민관의 예산지원과 운영업무의 명확한 역할분담, 상호대차서비스, 전문사서 배치와 수평적 의사소통 등은 지자체의 의지를 포함한 실질적 결과를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특히 인건비를 포함한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시립도서관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006년 지원 조성된 구암 <작은도서관>의 경우, 해당 군산시의 공공도서관 건립과 발맞추어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원칙(유경험자, 사서자격자 우선 배치, 시청 파견형의 상근인력 지원)에서부터 지역 도서관 확충과 네트워크의 구축 등 장기적 안목을 갖춘 곳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 또한 높은 지역이다.

2006년 4개소가 지원된 당진군의 경우, 조성담당자의 지속적 유임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맞는 유효적절한 운영방안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명예관장제’를 도입하여 지역민의 참여통로를 만들고 각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을 취합하여 시기별로 홍보 및 응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거리 안내판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입간판은 군의 조성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천안시 중앙동 <작은도서관>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프로젝트 중의 한 곳이다. 이는 <작은도서관> 사업이 1개월 단위로 열리는 시정 보고회의에서 빠짐없이 보고되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2007년 4개소를 시작으로 2008년 3개소, 2009년 3개소, 2010년 2개소가 지자체의 의지와 지원을 통해 설립될 예정에 있다.

목포시는 2006년 1관과 2007년 5관의 <작은도서관>을 신규 조성하였으며, 시청 문화예술과와 목포시립공공도서관의 주도로 2008년 8관, 2009년 8관의 <작은도서관>을 신설하여 관내 총 22개 동마다 각각 1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1개소 당 관리자 1인과 자원봉사자 1~2인을 배치하였다. 월 2회 <작은도서관> 관리자 정기회의에 시립도서관 관장, 국장, 계장이 참석하여 운영상의 개선점 등을 공동 논의한다. 시립도서관 사서 1인이 담당제로 각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사서 ‘멘토링’ 시스템이 특징적이다.

창원에는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다.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사회교육센터 등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도서대여, 운영프로그램 등의 주요업무는 거의 동일하다. 그중 7

개 <작은도서관>이 2006년 조성 및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서관들이다. 창원시는 2년마다 한 번씩 공고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운영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또한 분기마다 540만원씩의 지원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창원시의 노력으로 시민들 가까이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었고 시민들은 도서관문화와 친숙해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 2.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 - 운영인력

〈도표 19.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 - 운영인력〉

| 부문        | 선정 기준                                  | 우수 <작은도서관>                                                                                 |
|-----------|----------------------------------------|--------------------------------------------------------------------------------------------|
| 운영인력의 전문성 | 도서관 업무 수행 능력<br>지역활동가로서의 능력<br>열의와 헌신성 | 충북 옥천군 안남배바우<br>경기도 용인시 느티나무<br>대전광역시 중구 알짬<br>경북 칠곡군 책사다리<br>전북 김제시 희망 남포<br>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

경북 칠곡군 책사다리 <작은도서관>의 경우, 1996년부터 지역 주부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원이 비미함에도 불구하고, 16명의 주부들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무급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민으로서의 열의와 헌신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문화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문화체험과 공부방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 동구 방촌동 <작은도서관>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시립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부분지원으로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는데, 이후 지자체는 매체에 꾸준히 홍보하여 이용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또한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독후감대회 및 공부방운영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같은 재화를 가지고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일에 임하는가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입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충북 옥천군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역 활동가로서 열의가 돋보인다. 예산확보를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을 위해 열성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이라는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 희망 남포 <작은도서관>의 경우, 리(理) 단위의 지역한계(마을 인구 450명, 관내인구 1000명)를 극복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직접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아파트 인근지역, 경찰서 등의 19곳을 거점으로 운영. 이용자 1500명) 무급의 관장이 지역봉사의 주체로, 문화기행과 독서지도 및 독후감 대회, 마을잔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이끌어 내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느티나무도서관>의 경우, 직원은 사서가 5명이고 일반 직원이 1명인데 사서들은 모두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전 후 공간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전 전과 동일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원에 대한 대우도 연봉제와 여름·가을 두 번 200%의 상여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는 등 다른 <작은도서관>에 비해 좋은 편이다. <느티나무도서관>은 한 개인이 사재를 털어 시작한 사립도서관이지만, 처음부터 사서를 직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높였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민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도서관에서 전문사서의 채용을 꺼리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대전시 알짬 <작은도서관>의 경우, 대전 중구의 알짬마을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들의 모임은 대전 전체를 아우르는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회’를 조직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협회를 중심으로 이미 5개동에 마을어린이도서관을 설립했고,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기금의 지원을 받아 7개 동에서 설립이 확정되었다.

### 3.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 - 이용자

<도표 20.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 - 이용자>

| 부문             | 선정 기준                         | 우수 <작은도서관>                                   |
|----------------|-------------------------------|----------------------------------------------|
| 이용자의<br>주체적 참여 | 일일 이용자 수<br>자원봉사활동<br>열의와 헌신성 | 충남 당진군 송산 개미<br>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br>경기도 용인시 느티나무 |

당진군 송산 <개미도서관>은 송사모(송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출자하여 공부방 형식의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군의 지원을 받아 <작은도서관>으로 확대 신설되었다. 송사모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주부 및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는 물론 지역의 기업과 자매결연을 통해 자원 봉사자를 안정적으로 충원하고 있다.

용인시 <느티나무도서관>의 경우, 자원활동가 70~1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열성적 활동가만도 60명이나 된다. <느티나무도서관>에서는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부르지 않고 ‘자원활동가’로 부르고 있다. 봉사라고 생각되기보다 도서관에서 자신의 할 일을 자발적으로 찾으려는 ‘활동’에 강조를 두기 때문이다. 자원활동가는 ‘도우미’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어린이도 자원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꼬마 도우미’ 명찰을 달아주고 일을 돕도록 한다. 자원활동가의 왕성한 활동과 자발적 참여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관장과 직원들은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자치도서관>은 지역민의 요구를 통해 동사무소 2층에 개관한 리모델링형 <작은도서관>이다. <자치도서관>의 설립 이전부터 주변 고아원과 장애인복지원에서 봉사활동을 해 오던 이들은 16개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특성을 살려 <자치도서관>을 마련했다. 45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민이 기부한 ‘독서진흥기금’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직접 신간을 구입하여 서고를 채우고 있다.

## 4.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 - 프로그램

〈도표 21.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 - 프로그램〉

| 부문   | 선정 기준                                 | 우수 <작은도서관>                                                            |
|------|---------------------------------------|-----------------------------------------------------------------------|
|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다양성<br>프로그램의 참신성<br>프로그램의 기획 능력 | 전북 진안군 마이강원 태백시 철암어린이<br>대전광역시 중구 알짹<br>경기도 용인시 느티나무<br>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집 |

진안군 <마이도서관>은 민간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곳으로서, 재정운용과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을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지역 현안인 이주 외국인(외국인 주부)의 지역 정착을 돕는 교육의 장으로서, 또한 이들이 지역민으로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참여의 장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대안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알짬 <작은도서관>의 경우,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열의 면에서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 어머니들의 독서모임, 유치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책읽어주기, 놀토 글쓰기, 테마 기행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재정 마련을 위한 관장 이하 활동가들의 노력과 지역민들의 참여가 돋보인다.

용인시 <느티나무도서관>의 경우, 독서회, 동아리, 이야기방, 이야기극장, 마을학교, 지은이만남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느티나무도서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독서지도나 독서논술과 같은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들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일단, 책을 많이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아이들이 저절로 독서 지도를 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이다. 또 <느티나무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2000년 도서관이 개관한 후 꾸준히 이어온 것이 대부분이라 장수 프로그램으로서의 관록이 진하게 배어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도맡아 해서인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의지가 대단하다. 프로그램 역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결혼하기 위해 온 사람들을 위해 ‘다문화가정 위한 한글교실’같은 사례는 매우 돋보인다. 이밖에도 동화나라여행, 체험학습, 현장학습, 부모 역할 훈련 등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 태백시 <철암어린이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 지역주민, 광산공사 등의 노력이 합해져 2003년 4월 개관하였다. 현재 지역활동가가 주도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타 지역연구소와의 연계, 신념과 소신 있는 활동가들의 참여로 인해 지역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연합동아



리 ‘광활’과 함께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기간 중에도 지역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 5.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 - 시설

〈도표 22. 부문별 우수 <작은도서관> - 시설〉

| 부문 | 선정 기준                            | 우수 <작은도서관>                                                       |
|----|----------------------------------|------------------------------------------------------------------|
| 시설 | 적정 규모<br>내부 공간 분할<br>인테리어<br>쾌적함 | 경기도 안성시 일죽<br>경북 청도군 청도<br>충북 옥천군 안남배바우<br>경기도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

청도군 청도 <작은도서관>은 철거하려고 비워뒀던 구(舊)풍각면사무소를 개조해 2007년 개관을 했다. 이곳은 2006년 문광부에 지원신청을 함과 동시에 근대문화유산(문화재 제256호)으로 등록했다. 지역의 폐건물이 문화재로 재발견되는 사례를 보인 청도 <작은도서관>은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탄생해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할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곳이다.

안성시 <일죽도서관>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비해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작은도서관>으로서는 비교적 넓고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영화감상 및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으며, 도서관 내부에도 유아실과 서가, 컴퓨터 및 디지털 공간, 수서와 대출 업무의 사무 공간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주변에 높은 건물도 없으며 2층에 위치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햇빛이 충분히 스며들게 함으로써 도서관으로서 공간의 쾌적함을 잘 살리고 있다.

옥천군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은 복권기금과 지자체 및 지역민의 후원을 받아 신축되었는데 현대적 감각을 살려 외관이 아름답다. 인테리어는 기능성을 살리면서도 열려 있는 느낌을 주며,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의 공간 디자인 철학에 잘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는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성공사례인 ‘지혜의 등대’를 도서관에 접목시켜 건립되었다. 등대라는 전망대는 지혜의 바다인 도서관을 상징하

기에 적절한 상징물이다. 이전 시장의 인테리어에 대한 높은 식견이 정책으로 반영된 동합운동장 지혜의 등대는 공부방, 서가, 휴게실, 인터넷 검색대 등이 쾌적한 공간에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 제2절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2006년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58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설과 운영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로 개발한 <작은도서관> 평가지표를 통해 얻는 결과를 갖고 향후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인력부문의 활성화 방안이다. 생활권 단위의 공공문화기반시설로 건립된 <작은도서관>은 궁극적으로 참여와 체험이라는 문화 활동의 최고 단계를 대중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를 적극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그 활용이라 하겠다. 현지조사를 통해 나온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니,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 이해도는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으며 인력조직구조에 있어 업무의 할당이나 분담, 자율성 역시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공공도서관, 사서, 공공근로, 공익, 자원봉사자 모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가로서의 역할수행에 좀 더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직무 연수를 포함하여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작은도서관>은 지역민의 삶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화권 확보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작은도서관> 운영의 성패는 이용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보장된다.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의 참여는 매우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즉, 도서의 대출과 열람으로부터 자원봉사활동과 소모임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참여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작은도서관>은 1차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수행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실태는 대체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과 이용자의 의견수렴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에 뿌리박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닦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유형에 따른 참여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체계적인 업무체계를 만들고,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및 운영평가서를 공개해 운영상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셋째, <작은도서관>은 지역민의 생활권에 위치하는 지역문화기반시설이다. 지역 커뮤니티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서관리 업무를 넘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운영의 주체를 관장과 사서뿐 아니라 지역민의 참여가 가능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기획·운영의 기준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의견, 지역문화와 지역정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영비 부족이나 공간의 문제는 민관협력이나 지역 내 문화기관의 상호협력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안정적인 <작은도서관>의 재정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노력일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권기금과 같은 한시적인 기금이 아닌, <작은도서관>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재정마련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고 지역 기반 기업의 후원도 기대할 수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작은도서관> 신축 및 시설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기금조성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규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어렵다면, 민간의 지원을 통한 재정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민간의 후원을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도 공공도서관들의 예산이 민간기업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기금모금에 앞장서야 한다. <작은도서관> 차원에서도 주민후원회, 지역유지의 지원, 지역 기업의 후원, 대기업의 후원, 사회복지기금의 후원 등을 통해 민간지원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비를 확충하는 방안도 있다. 끝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작은도서관>들이 재정 유치를 위해 나설 경우를 위해 가이드 등의 개발 및 교육을 제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킹은 필수적이다. 이는 <작은도서관>들 상호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해 지역민들은 원거리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자신이 사는 동네의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상호대차시스템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극도로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대중의 다양한 도서 및 자료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작은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며, 공공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현안이다.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들의 연계가 부족하고 규모가 왜소한 한국의 상황에서 상호대차시스템은 도서관들의 규모 및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의 부족을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예산에서 구축비용이 충당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절실한데, 예산증액을 위해서는 국회,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상호대차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 예산만으로 어렵다면 민간의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호대차시스템에 대한 홍보는 작은 규모로 인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들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할부처인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의 효과는 지역과 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개될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에 탄실한 기초를 제공했다고 평가된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평가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 향유와 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은 매우 컸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의 최대 효과는 열악한 문화 환경 속에서 좌절하는 문화소외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은 지원이라도 주민들에게는 금액으로서보다 의욕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종합적으로 본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판단된다.

향후 조성지원사업으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 시범지구조성이다.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특정 지역을 <작은도서관> 활성화의 거점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시범지구’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작은도서관> 모델의 활성화 및 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영역의 협력으로 도서관 서비스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3절 후속 연구과제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향후 연구과제로서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과제가 갖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사업의 전국적이고 대중적 확산을 위해, 여러 지역 가운데 시범적으로 집중 육성할 <작은도서관> 활성화 거점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시범지구 조성모델 및 지정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지자체와 지역민, 민간기업 협력 등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 2. 연구과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도표 23. 후속 연구과제의 제안〉

| 연구 제목                     | 연구 주제                                                                                                                                              |
|---------------------------|----------------------------------------------------------------------------------------------------------------------------------------------------|
|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및 지정방안 연구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작은도서관> 활성화 거점지역으로 시범지구를 육성함으로써, 시범지구 내 <작은도서관>의 확충과 운영 및 안정화를 도모한다.<br>아울러 시범지구 내 전체 도서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망 구축을 통해 전반적인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유도한다. |

### 3. 연구방법

2007년 <작은도서관> 조성평가사업을 바탕으로 시범지구 지정에 앞서 모델지구를 선정한다. 이 모델지구를 통해 시범지구 조성 및 지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검토한다.

- 단계별 실시안
- 후보 선정 조건
- 평가지표 구성

### 4. 기대효과

-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모범사례를 마련한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민과 민간 기업 등 민간영역의 상호협력 시스템을 도출함으로써 독서문화진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 <작은도서관> 시범지구를 통해 타 지역의 벤치마킹과 도서관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앞당길 수 있다.
-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전략과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부록

참고문헌

부록-설문지

부록-06년 <작은도서관> 지원현황 및 운영주체 정리

부록-현장방문 인터뷰 질문 내용



## << 참 고 문 헌 >>

- 강내희(1996), 『문화론의 문제설정』, 문화과학사.
- 강내희(1998), “문화공학을 제안하며”, 『문화과학』 14호, 문화과학사.
- 강내희(1999), “문화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 17호, 문화과학사.
- 강내희 외(1999), 『문화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사.
- 고길섭(2000),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문화과학사.
- 구창서(2000),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上)”, 『지방행정』 557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구창서(2000),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下)”, 『지방행정』 558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국토연구원 엮음(2002), 『세계의 도시』, 한울.
- 김성일(2002), “대중의 새로운 구성”, 『문화과학』 31호, 문화과학사.
- 김성재 외(1998),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보고서』, 문화관광부.
- 김왕배(2001),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 김일태(2002),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 방안”, 『도시행정연구』 16집, 서울시립대학교.
- 김진복(200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 584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김필두(1998), 『읍면동의 기능전환방안 (I) : 동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1999),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남영준 외(2006),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데이비드 하비, 구동희 역(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외 역(2001), 『희망의 공간』, 한울.
- 마페줄리 외, 박재환 외 편역(1998),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 박성수 외(2000), “공공영역과 사회운동”, 『문화과학』 23호, 문화과학사.
- 성남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1), 『성남시 문화지표조사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회.

스코트 래쉬 외, 박형준 외 역(1998), 『기호와 공간의 경제』, 현대미학사.

심광현(1998), “사회적 경제와 문화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문화과학』 15호, 문화과학사, 1998.

심광현(2003), 『문화사회와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앤터니 기든스, 김미숙 외 역(1998),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앤터니 기든스 외, 임현진 외 역(1998), 『성찰적 근대화』, 한울.

앤터니 기든스, 권기돈 역(2001),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 새물결.

원용진(1999),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문화과학』 17호, 문화과학사.

이동연(2002),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 문화과학사.

이범재(1990), 『지역문화환경 실태분석을 통한 문화공간의 활용과 확충방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이용권(1991), 『외국의 지역문화시설 운영실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이용남(2001), 『새마을문고운동 40년사 1961-2000』, 새마을문고중앙회.

이정미(2006), 『지역커뮤니티의 장인 작은도서관』, 도서관계.

이종영(1994), 『지배양식과 주체형식』, 백의.

이중한(1998), “<문화의 집> 지향과 발전 방향”, 『제1회 전국문화기반시설』, 문화관광부.

이 호(2000),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과 지역운동의 참여방법”, 『도시와 빈곤』 45호, 한국도시연구소.

이 호(2002), “주민자치센터 시행, 그 1년의 평가”, 『도시와 빈곤』 53호, 한국도시연구소.

임재해(2000),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장 보드리야르, 아상롤 역(1995),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제러미 리프킨, 이영호 역(2001), 『노동의 종말』, 민음사.

제러미 리프킨, 이영호 역(2001), 『노동의 종말』, 민음사.

조지 카치아피카스, 윤수종 역(2000), 『정치적 전복』, 이후.

존 쇼트, 백영기 역(2000), 『인간의 도시』, 한울.

존 스토리, 박모 역(1995),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존 스토리 엮음, 백선기 역(2000),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정근식 편(1999), 『축제, 민주주의, 지역 활성화』, 새길.

정지웅 외(2001), 『지역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정현태(2006),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울시도서관연구회지.

한국공간환경학회(1998), 『현대도시이론의 전환』, 한울.

한국공간환경학회(2000), 『공간의 정치경제학』, 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1995), 『문화지표체계 개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1995), 『도시 문화환경 조성방안 : 문화시설의 설치 촉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1995),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지표 조사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1997), 『21세기 도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1997), 『문화의 집 모델 및 운영방안에 관한 외국 사례 조사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1998), 『통계로 보는 우리 문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1999),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0), 『2000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0), 『문화벨트 및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1), 『2001 문화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1), 『2001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1), 『대도시에서의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1), 『문예회관 표준모델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1),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2), 『2002 문화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2), 『국민문화지수 개발연구 최종보고서』,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2006),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작은도서관> 조성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사)문화사회연구소는 시민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꿈꾸며 문화분야의 제3 연구센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03년 발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문화사회연구소는 문화환경지표만들기와 같은 문화지표개발연구, 지역문화기반시설연구와 같은 지역문화연구, 문화프로그램개발과 같은 콘텐츠연구, 문화사회아카데미운영과 같은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사)문화사회연구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작은도서관> 조성평가에 관한 전국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은 58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 및 운영체제를 조사하는 이번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동참한다는 뜻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됨과 동시에 귀하의 응답은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학술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한 질문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문화사회연구소 소속 연구원 일동은 귀하의 관심과 참여에 부응하고자 성실히 연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7년 9월

(사)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이동연

## 1. <작은도서관> 시설평가지표

1.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응답자 | 직급 | 성별 | 연령 | 근무년수 |
|-----|----|----|----|------|
|     |    |    |    |      |

2. 귀 도서관에 관한 기초 질문입니다.

|          |                                                                              |
|----------|------------------------------------------------------------------------------|
| 정식명칭     |                                                                              |
| 주 소      |                                                                              |
| 설립연도     |                                                                              |
| 홈페이지     |                                                                              |
| 개관시간     |                                                                              |
| 휴무일      |                                                                              |
| 전화번호     |                                                                              |
| 사서자격증 유무 | ① 있음( ) ② 없음( )                                                              |
| 작은도서관 CI | 현판 제작 유무 (① 있음 ② 없음)<br>부착 위치 (① 입구 ② 건물 측면 ③ 건물 중앙 옥상<br>④ 도서관 내부 ⑤ 기타 ( )) |

3. 귀 도서관의 입주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
| 공간 입주 형태 | ① 주민자치센터 내 입주<br>② 기타 공공기관 내 입주<br>③ 민간 건물 내 입주<br>④ 자체 독립 건물에 입주<br>⑤ 기타 ( )                                                     |
| 운영형태     | ① 지자체 직영(설립·운영 모두 지자체 담당)<br>② 민간 위탁(설립-지자체 / 운영-민간단체)<br>③ 지자체 위탁(설립-민간단체 / 운영-지자체)<br>④ 순수민간단체 직영(설립·운영 모두 민간단체 담당)<br>⑤ 기타 ( ) |

|            |                                                                                                                                                         |
|------------|---------------------------------------------------------------------------------------------------------------------------------------------------------|
| 접근성(순위 표시) | ① 도보로 10분 내외 걸리는 이용자 (   %)<br>② 도보로 20분 내외 걸리는 이용자 (   %)<br>③ 도보로 30분 내외 걸리는 이용자 (   %)<br>④ 도보로 40분 내외 걸리는 이용자 (   %)<br>⑤ 도보로 50분 이상 걸리는 이용자 (   %) |
| 전체 면적(m²)  |                                                                                                                                                         |
| 층별 면적(m²)  |                                                                                                                                                         |

4. 주변 문화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구민회관 등)

|           |  |
|-----------|--|
| 주변 문화예술기관 |  |
| 주변 문화예술단체 |  |
| 주변 문화예술인  |  |

5. 귀 도서관을 둘러싼 지역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
| 도시화 정도 | ① 농어촌지역      ② 도농복합지역<br>③ 도시지역      ④ 기타 (            )        |
| 사회 계층  | ① 상류층지역      ② 중류층지역<br>③ 저소득층지역    ④ 기타 (            )         |
| 중점 활동  | ① 주거지역      ② 상가지역<br>③ 산업밀집지역    ④ 학교지역    ⑤ 기타 (            ) |
| 주거 형태  | ① 일반거주지역    ② 아파트밀집지역 ③ 기타 (            )                       |
| 직업 분포  | ① 자영업      ② 사무직<br>③ 농어업      ④ 학생      ⑤ 기타 (            )    |

6. 귀 도서관의 장서 관련 질문입니다.

|                         |                            |                                            |
|-------------------------|----------------------------|--------------------------------------------|
| 단행본                     | ① 1000권 미만<br>③ 2001-3000권 | ② 1001-2000권<br>④ 3001-4000권<br>⑤ 4001권 이상 |
| 정기간행물                   | ① 5종 미만<br>③ 9-11종         | ② 6-8종<br>④ 12-14종<br>⑤ 15종 이상             |
| 시청각자료<br>(DVD, CD, 비디오) | ① 30개 미만<br>③ 51-80개       | ② 30-50개<br>④ 81-100개<br>⑤ 101개 이상         |
| 연간 자료구입비                | ① 200만원 미만<br>③ 301-400만원  | ② 200-300만원<br>④ 401-500만원<br>⑤ 501만원 이상   |
| 장서 소장 비율                | 아동                         | 학습만화 (      %)                             |
|                         |                            | 그림책 (      %)                              |
|                         |                            | 동화책 (      %)                              |
|                         |                            | 기타 (      %)                               |
|                         | 성인                         | 소설 (      %)                               |
|                         |                            | 비소설 (      %)                              |
|                         |                            | 교양 (      %)                               |
|                         |                            | 기타 (      %)                               |
| 상호대차시스템                 | ① 실시 (      )              | ② 미실시 (      )                             |

7. 귀 도서관의 공간구성(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출부스, 자료실, 열람실, 휴게실, 소모임방 등)

| 공간 명칭 | 층수 | 평수 | 특이 사항 | 공간 명칭 | 층수 | 평수 | 특이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용 계층(순위표시) | 주부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직장인 | 자영업자 | 대학생 | 기타 |
|-------------|----|----|-----|----|-----|------|-----|----|
|             |    |    |     |    |     |      |     |    |
| 1일 평균 이용자 수 |    |    |     |    |     |      |     |    |
| 1일 평균 대출권수  |    |    |     |    |     |      |     |    |
| 관 내 인 구 수   |    |    |     |    |     |      |     |    |



## 2.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관한 설문조사

문 1] 귀 도서관의 인력구성(직급 / 인원 / 고용주체 / 상근·비상근 여부)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문 2] 귀 도서관의 운영목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세요)

|   |                            |  |
|---|----------------------------|--|
| ① | 도서 열람, 대출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  |
| ② | 독서프로그램을 통한 독서문화 개선         |  |
| ③ | 공공도서관의 분관 기능               |  |
| ④ | 주민의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사랑방 역할     |  |
| ⑤ | 문화복지 증진을 통한 지식정보 양극화 해소    |  |

문 3] 귀 도서관에서 귀하가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세요)

|   |                   |  |
|---|-------------------|--|
| ① | 대출                |  |
| ② | 수서                |  |
| ③ | 프로그램 기획, 진행       |  |
| ④ | 회원관리(도서회원, 소모임 등) |  |
| ⑤ | 시설관리              |  |

문 4] 귀 도서관 운영의 내부 소통구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4-1) 귀하는 업무수행에 있어 <작은도서관>의 운영목표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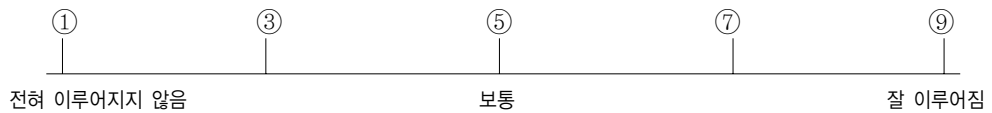


4-2) 귀하는 귀 도서관의 운영목표를 동료 혹은 이용자와 어느 정도 논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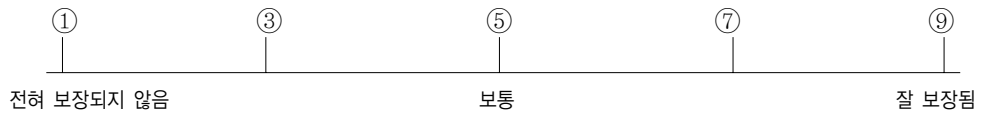


문 5] 귀 도서관의 업무분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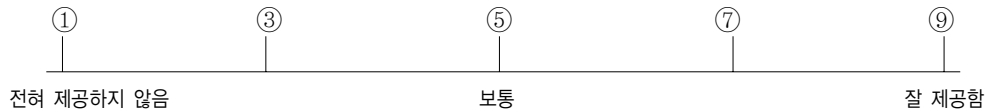
5-1) 귀 도서관은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도서관에서는 업무수행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됩니까?



5-3) 귀 도서관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문 6] 귀 도서관의 운영인력의 전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6-1) 귀 도서관의 운영인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① | 사서업무(대출, 수서) 수행능력          |
| ② |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능력            |
| ③ |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
| ④ | 모범 운영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       |
| ⑤ | 지역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가로서의 능력 |

6-2) 귀 도서관의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① | 직무연수 등의 재교육 실시      |
| ② | 근무시간 단축 등의 복지 확대    |
| ③ | 효율적 업무분장이 가능한 조직 개편 |
| ④ | 업무수행의 자율성 보장        |
| ⑤ | 기타 ( )              |

문 7] 귀 도서관의 직원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
| 근무시간(주 단위) | ① 40시간 이하      ② 40-45시간<br>③ 46-50시간      ④ 50-55시간      ⑤ 56시간 이상 |
| 봉급체계       | ① 기본 봉급제      ② 연봉제      ③ 시간제<br>④ 봉급+ 실적 수당제(보너스)      ⑤ 기타 ( )   |
| 복리후생제도     | ① 의료보험      ② 고용보험<br>③ 국민연금      ④ 휴가<br>⑤ 퇴직금지급      ⑥ 기타 ( )     |

###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

문 1] 귀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기입해 주세요)

|                    | 구 분   |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 현황 |          |     |
|--------------------|-------|---------|---------|----------|-----|
|                    |       |         | 참여 인원수  | 주요 참여 계층 | 지속성 |
| 독서문화<br>개선<br>프로그램 | 독서모임  |         |         |          |     |
|                    | 책읽어주기 |         |         |          |     |
|                    | 글쓰기   |         |         |          |     |
|                    | 강독    |         |         |          |     |
|                    | 도서전시  |         |         |          |     |
|                    | 기타    |         |         |          |     |

|                    |               |  |  |  |  |
|--------------------|---------------|--|--|--|--|
| 창작육구<br>실현<br>프로그램 | 공연            |  |  |  |  |
|                    | 제작            |  |  |  |  |
|                    | 경연<br>(자체 행사) |  |  |  |  |
| 문화육구<br>유발<br>프로그램 | 공연 관람         |  |  |  |  |
|                    | 전시 관람         |  |  |  |  |
|                    | 영상물 관람        |  |  |  |  |

|            |                  |  |  |  |  |
|------------|------------------|--|--|--|--|
| 교육<br>프로그램 | 소양교육<br>(인문학)    |  |  |  |  |
|            | 문화강좌             |  |  |  |  |
|            | 가정문화<br>(육아, 아동) |  |  |  |  |
|            | 단기강좌<br>(어학, 논술) |  |  |  |  |
|            | 상담               |  |  |  |  |

1-1) 위 프로그램 중 운영과 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 2] 귀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
|---|--------------------------|
| ① | 관장                       |
| ② | 사서                       |
| ③ | 자원봉사자                    |
| ④ | 이용자들의 자발적 소모임(주민운영위원회 등) |
| ⑤ |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 등 입주기관      |

문 3]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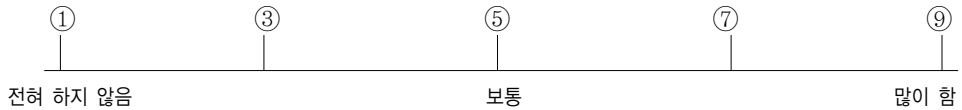
|   |                       |
|---|-----------------------|
| ① | 이용자들의 의견              |
| ② | 도서관의 실질적 지원능력(시설규모 등) |
| ③ | 도서관의 설립취지             |
| ④ | 사서의 운영판단              |
| ⑤ | 지역문화 혹은 지역정서          |

문 4]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  
능)

|   |                    |
|---|--------------------|
| ① | 제한된 프로그램 종류        |
| ② | 적은 참여자 수           |
| ③ | 협소한 공간             |
| ④ | 프로그램 기획·운영의 전문성 부족 |
| ⑤ | 프로그램 진행비 부족        |

#### 4. <작은도서관> 이용자 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문 1] 귀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문 2] 귀 도서관을 홍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① | 인쇄 홍보물(팸플릿, 리플릿 등) 제작을 통해 |
| ② | 지역신문, 벼룩시장 등 언론매체를 통해     |
| ③ | 컴퓨터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       |
| ④ | 반상회나 기타 주민모임을 통해          |
| ⑤ | 특별히 하지 않음                 |

문 3] 귀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계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
|---|---------------------------|
| ① | 건의함 등의 의견 수렴함을 통해         |
| ② | 개별사업 및 프로그램의 평가 질문지를 통해   |
| ③ | 이용자대표로 이루어진 주민들의 자치모임을 통해 |
| ④ | 컴퓨터 통신망(인터넷)을 통해          |
| ⑤ | 특별히 하지 않음                 |

문 4] 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    |
|---|----|
| ① | 있다 |
| ② | 없다 |

문 5] 귀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관련 질문입니다.

5-1) 귀 도서관은 현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   |     |
|---|-----|
| ① | 예   |
| ② | 아니오 |

5-2) 귀 도서관의 자원봉사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활용 분야        | 인원수 | 참여계층 | 활용시간(월평균) |
|--------------|-----|------|-----------|
| 사무행정보조       |     |      |           |
| 대출·수서업무      |     |      |           |
| 프로그램 기획·운영   |     |      |           |
| 봉사(도서관리, 청소) |     |      |           |
| 기타 ( )       |     |      |           |

5-3) 귀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① |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을 통해  |
| ② |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찾아와서  |
| ③ | 기존 자원봉사자의 소개를 통해 |
| ④ | 종교, 사회단체, 학교를 통해 |
| ⑤ | 기타 ( )           |

5-4) 귀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① | 자원봉사자의 뜻을 존중하여 가능하면 관여하지 않음 |
| ② | 근무한 날의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함         |
| ③ | 자원봉사자 자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 ④ | 월례평가회 및 보충교육 실시             |
| ⑤ | 기타 ( )                      |

5-5) 귀 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어떤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① | 소정의 활동비 지급               |
| ② | 자원봉사자 친목행사 지원(아유회, 회식 등) |
| ③ | 문화행사 초대 및 할인 혜택          |
| ④ |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음            |
| ⑤ | 기타 ( )                   |

5-6) 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① | 예산의 절감을 위해          |
| ② |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
| ③ | 이용자들의 참여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
| ④ |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
| ⑤ | 기타 ( )              |

문 6] 귀 도서관의 이용자 소모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6-1) 자발적인 이용자들의 동아리(소모임)가 있습니까?

|   |    |
|---|----|
| ① | 있음 |
| ② | 없음 |

6-2) 있다면,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항 목 \ 이 름 |  |  |  |  |
|-----------|--|--|--|--|
| 인 원       |  |  |  |  |
| 참여 계층     |  |  |  |  |
| 지원 방법     |  |  |  |  |



## 5. <작은도서관> 재정운용에 관한 설문조사

문 1] 귀 도서관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    |
|---|----|
| ① | 있음 |
| ② | 없음 |

1-1)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문 2] 귀 도서관의 예산지출 중 각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 순위 | 항 목        | 비율          |
|----|------------|-------------|
|    | 도서구입       | (        %) |
|    | 각종 프로그램 운영 | (        %) |
|    | 시설관리 및 확장  | (        %) |
|    | 자원봉사자 관리   | (        %) |
|    | 직원 인건비     | (        %) |
|    | 기 타        | (        %) |

문 3] 귀 도서관의 재정운용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

문 4] 귀 도서관은 예산항목 선정 및 할당 규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   |         |
|---|---------|
| ① | 반영함     |
| ② | 반영하지 않음 |

4-1)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① | 건의함과 같은 의견 수렴함을 통해       |
| ② | 주민운영위원회 같은 주민들의 자치모임을 통해 |
| ③ | 개별적인 면담 혹은 의견개진을 통해      |
| ④ | 자체 설문지를 통해               |
| ⑤ | 기타 ( )                   |

문 5] 귀 도서관은 예산 선정 및 집행에 관한 결산내역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합니까?

|   |         |
|---|---------|
| ① | 공개함     |
| ② | 공개하지 않음 |

5-1) 공개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   |                              |
|---|------------------------------|
| ① | 도서관 내 게시판을 통해                |
| ② | 정기 혹은 비정기 소식지(간행물이나 자료집)을 통해 |
| ③ | 컴퓨터 통신망(인터넷)을 통해             |
| ④ | 이용자가 문의해 올 때 개별적으로 제공        |
| ⑤ | 기타 ( )                       |

문 6] 귀 도서관에 지원금을 지원한 단체에 √표를 해주시고, 각 단체별 지원금의 규모 및 사용명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지원 단체        | 연차별 규모 | 지원명목 |
|--------------|--------|------|
| 문화관광부        |        |      |
| 지자체          |        |      |
| 도서관 산하 자치후원회 |        |      |
| 지역문화재단       |        |      |
| 기타(기금, 기업)   |        |      |

문 7] 설립지원금 지원 이외에 중앙정부(문화관광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① | 운영자금 지원               |
| ② | 재정 관련 법규 마련           |
| ③ | 정부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기금 조성 |
| ④ | 다양한 재정확보지침(가이드) 마련    |
| ⑤ | 기타 ( )                |

문 8] 재정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                          |
|---|--------------------------|
| ① | 운영자금 지원                  |
| ② | 재정 관련 조례 마련              |
| ③ | 지역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기금 조성 |
| ④ | 다양한 재정확보지침(가이드) 마련       |
| ⑤ | 기타 ( )                   |

## 6. <작은도서관> 네트워킹에 관한 설문조사

문 1] 귀 도서관은 지역의 다른 도서관과 상호대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                    |
|---|--------------------|
| ① | 운영함                |
| ② | 운영하지 않음 (문5로 가주세요) |

1-1)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1-2)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도서관과 교류하고 있습니까?

---

문 2] 상호대차시스템으로 제공되는 도서는 어떤 것들입니까? (각각 우선순위를 표시해 주세요)

|    |      |  |
|----|------|--|
| 아동 | 학습만화 |  |
|    | 그림책  |  |
|    | 동화책  |  |
|    | 기타   |  |
| 성인 | 소설   |  |
|    | 비소설  |  |
|    | 교양   |  |
|    | 기타   |  |

문 3] 상호대차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주 단위 도서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        |
|---|--------|
| ① | 10권 미만 |
| ② | 11-20권 |
| ③ | 21-30권 |
| ④ | 31-40권 |
| ⑤ | 41권 이상 |



<< 부록: 06년 작은도서관 지원현황 및 운영주체 정리 >>

|    | 소재지        | 작은도서관        | 지원형태 | 운영주체  |
|----|------------|--------------|------|-------|
| 1  | 서울시 구로구    | 통합도서관 지혜의 등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2  | 전북 군산시     | 구암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3  | 충남 당진군     | 고대웃음꽃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4  | 충남 당진군     | 생각나무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5  | 충남 당진군     | 송산개미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6  | 충남 당진군     | 순성반딧불이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7  | 경기 안산시 단원구 | 별자리작은도서관     | 간접지원 | 지자체직영 |
| 8  | 강원도 강릉시    | 솔을꿈나무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9  | 전북 김제시     | 희망남포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직영  |
| 10 | 전북 진안군     | 마이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직영  |
| 11 | 전남 나주시     | 공산면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12 | 전남 목포시     | 꿈나무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13 | 경기 김포시     | 누리봄문고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14 | 전남 강진군     | 대구면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15 | 전남 목포시     | 반딧불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16 | 강원 화천군     | 사내면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17 | 강원 화천군     | 웅달샘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18 | 전남 목포시     | 웅달샘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19 | 전남 목포시     | 피터팬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20 | 강원 고성군     | 거진복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21 | 경남 창원시     | 동읍자여마을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22 | 경남 창원시     | 디지털마을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23 | 경남 창원시     | 반림마을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24 | 경남 창원시     | 사파동성마을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25 | 경남 창원시     | 안민마을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26 | 경남 창원시     | 안민청솔마을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27 | 경남 창원시     | 의창주민자치마을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28 | 강원 태백시     | 철암어린이도서관     | 간접지원 | 민간직영  |

|    |            |              |      |       |
|----|------------|--------------|------|-------|
| 29 | 부산시 북구     | 꿈밭작은도서관      | 간접지원 | 민간위탁  |
| 30 | 부산시 서구     | 문화의집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31 | 부산시 사상구    | 쌈지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직영  |
| 32 | 경남 산청군     | 행복미소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33 | 경기 용인시 수지구 | 느티나무사립공공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직영  |
| 34 | 인천시 서구     | 가재울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직영  |
| 35 | 인천시 서구     | 물푸레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직영  |
| 36 | 인천시 부평구    | 꿈나무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37 | 대전시 유성구    | 유성도서관 진잠분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38 | 대전시 중구     | 알짹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직영  |
| 39 | 충북 옥천군     | 배바우작은도서관     | 간접지원 | 민간직영  |
| 40 | 충북 청주시     | 봉명미니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41 | 경기 안성시     | 일죽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42 | 경기 부천시 원미구 |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43 | 경기 부천시 원미구 | 소나무푸른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44 | 경기 양주시     | 봉암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45 | 전남 광양시     | 금호동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46 | 전남 거제시     | 푸른숲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47 | 대구시 동구     | 방촌동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48 | 경북 청도군     | 청도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49 | 경기 광주시     | 오포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50 | 전남 순천시     | 상호대차시스템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51 | 전남 순천시     | 연동대주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52 | 전남 순천시     | 승주꿈꾸는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53 | 전남 순천시     | 벽산꿈꾸는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54 | 경북 칠곡군     | 책사다리작은도서관고관  | 간접지원 | 민간직영  |
| 55 | 경기 동두천시    |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56 | 경기 동두천시    | 도심광장 지혜의 등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57 | 광주광역시 북구   | 동림동자치도서관     | 직접지원 | 민간위탁  |
| 58 | 충남 천안시     | 중앙동작은도서관     | 직접지원 | 지자체직영 |

## << 부록: 현장방문 인터뷰 질문 내용>>

1. 정확한 도서관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작은도서관>의 접근성은 어떻게 되나요?
  3. 귀 <작은도서관>의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인가요?
  4. 귀 <작은도서관>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는 어떤가요?
  5.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타 단체들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6. 운영 시 재정현황은 어떤가요?  
(별도 도서구입비 여부, 고용과 운영비의 안정/비안정 확인)
  7. 재정현황 확인 시 해당 <작은도서관>의 어려운 점을 확인합니다.
  8. 장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 방안을 알려주세요.
  9.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제반 운영사항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인하여 주세요.
  10. 자원봉사자의 성격과 소모임의 여부, 도서관 이용자들 현황을 정리합니다.  
(방문자 계층, 장서관수-대출/소모임의 성격과 형성과정, 자원봉사자 현황 등)
  11. 귀 <작은도서관>의 당면 과제와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12. 조성 전과 후의 변화상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역할여부를 정리합니다.  
(지원 내역, 지원 전후 이용자 및 운영상의 변화)
- \* 특이사항을 체크하고 사진을 통해 IC를 포함한 공간구성을 확인하여 주세요.  
(운영자 열의, 지역적 특성, 이용자 주체적 참여, 프로그램상의 특성 등)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64

전 화 : 02)535-4142

홈페이지 : [www.nl.go.kr](http://www.nl.go.kr)



**(사) 문화사회연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 2동 120-10 백광빌딩 3층

전 화 : 02)745-1603

전자우편 : [cultures21@naver.com](mailto:cultures21@naver.com)

홈페이지 : [www.kccs.or.kr](http://www.kccs.or.kr)